



# HOMO MIGRANS

Vol.28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2023

May

■ 특집 · 공동체 실제와 이상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

Homo Migrant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Vol.28(May 2023)

## 이주사학회 운영진

회장 오영인(평택대)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문종현(세종대)  
학술이사 구지훈(창원대)  
김대보(원광대)  
라영순(연세대)  
이은영(부산대)  
정재현(목포대)  
대외협력이사 김정식(신라대)  
다문화교육이사 윤종필(동국대)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양재혁(한성대)  
편집위원 정용숙(춘천교육대)  
김정욱(인천대)  
허 현(충남대)  
고유경(원광대)  
이용재(전북대)  
문경희(창원대)  
이경일(경성대)  
정대성(부산대)  
신동규(창원대)  
해외편집위원 Klaus DITTRICH(EdUHK)  
Kyungmi KIM(Paris 7)

### 감사

마은지(송실대)

주소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우정당 310호  
문종현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2-3408-3953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mailto:homomigrans@gmail.com)

편집위원회 전용 이메일 [homomigransed@gmail.com](mailto:homomigransed@gmail.com)

회비 일반회원- 6만원(자동이체: 월 5천원), 학생회원- 1만원

납부계좌번호 국민은행 781402 04 104469 문종현(이주사학회)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28호(2023년 5월)

발행일 2023년 5월 31일

지은이 · 펴낸곳 이주사학회

주소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우정당 310호  
문종현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2-3408-3953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mailto:homomigrans@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ISSN 2093-3061



---

# Homo Migrans-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

May 2023  
ISSN: 2093-3061

<Editorial> 5

<Special> Community Reality and Ideal

- The Influx of the Ukrainian War Refugees and the Expansion of the 'Koryoin Village' in Gwangju \_\_\_\_\_ Ko, Ka Young 8
- Michel Chevalier's Communal Imagination:  
'Mediterranean System' Communication Network — Yang, Jae Hyuk 51

<Article>

-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fragile state index on the change  
in net migration rate \_\_\_\_\_ Choi, Kanghwa 76
- Non-narrative, personal, poetic documentary photography as  
artistic expression \_\_\_\_\_ Hong, Sang-Hyun 96

<Bulletin>

<Ethic Rules>

<Editing Rules>

<Contribution Rules>

<Association Rules>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

## **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편집자의 글 ■

『호모미그란스』 28호는 ‘공동체의 현실과 이상’을 논의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고가영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확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차 대전 이래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전쟁 난민을 발생시키면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로 유입된 120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을 맞이하는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를 살펴본다. 고려인마을은 그곳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자녀들을 입국시킨 것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의 한국 입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논문은 고려인 입국 초기에는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입국이 이뤄졌지만, 점차적으로 일가족 전체, 여성과 아이들, 무국적자 고려인들, 노년층들이 입국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가영은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이 고려인마을에서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동포’로 불린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편협한 태도를 비판한다. 고가영은 한국 사회가 ‘특별기여자’나 ‘재난당한 동포’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선별적 환대에서 벗어나, 난민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재혁의 「미셸 슈발리에의 공동체적 상상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지중해 시스템」은 19세기 초 유럽의 경계를 넘어 동·서양 문명의 공동체를 수립하려는 생시몽주의자 미셸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 기획을 분석한다. 논문은 생시몽의 유럽 공동체 기획을 지중해 중심의 지구적 공동체 기획으로 확장하는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철도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로 구성되는 물질적 네트워크와 은행이 대표하는 정신적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동양과 서양의 ‘보편적 연합’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생시몽주의 고유의 미래 전망으로 해석한다. 생시몽 역시 영국과 프랑스 민족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조직 수립을 통한 산업 네트워크 수립하고자 했다면, 슈발리에의 산업을 뚜렷하게 정치 전면에 내세우며 생시몽주의 교리에 따라 유럽과 비유럽을 통합하는 거대 서사 ‘보편적 연합’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철도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실현하고자 했다. 논문은 슈발리에 기획은 이후 서구인이 지중해에서 펼친 식민과 제국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에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호모미그란스』 28호는 경제학과 미학 분야의 일반논문 2편을 소개한다. 먼저, 최강화의 「이주민의 순이동률 변동에 대한 국가취약지수의 영향 분석」은 국가취약지수가 이주민의 순이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집합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논문에 따르면, 국가의 취약성이 커질수록 이주민의 취약국가로의 입인은 작아지게 되고, 반대로 취약국가로부터의 이탈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응집력 지수, 정치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그리고 외부 개입 등과 같은 다섯 개의 국가취약지수 중에서 어떠한 원인조건과 원인조건과의 배열조합이 이주민의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충분조건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강화는 연구에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이용한다. 연구 결과 경제적 취약성과 외부 개입의 부재가 이주민들의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조건으로 분석됐다. 한편 논문은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응집력 취약성이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외부 개입의 부재가 이주민의 순이동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주요한 영역에서 취약성이 없는 경우에 이주민의 순이동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홍상현의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 『ROUTE 44』의 사진적 방법론」은 2023년 출간된 저자의 사진집 『ROUTE 44』에 관한 작품론이다. 홍상현의 설명에 따르면, 『ROUTE 44』는 ‘44번 국도’를 ‘산업화 한국’이 남긴 하나의 슬픈 흔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사회 구조 안에서의 ‘은퇴세대’를 ‘산업화 한국’이 낳은 또 하나의 흔적으로 설정하고, 그 세대의 일원인 작가의 아버지 개인의 ‘생활의 이주사’를 시작으로 ‘지금의 44번 국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미지에 담고 있다. 홍상현은 『ROUTE 44』의 이미지들을 몇 가지 특성으로 분류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서사적 다큐멘터리 사진’이다. 일반적으로 기록으로서의 사진은 주제 안에서 구성되는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ROUTE 44』의 이미지들은 비서사적이며, 파편적이고, 기록의 열거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록으로서의 사진과 달리 예술적 표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큐멘터리로서의 사진의 역할을 보여준다. 『ROUTE 44』는 문자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메타언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詩 언어에서처럼, 메타모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사진적 기록으로서, 로버트 프랭크, 워커 에반스, 그리고 앳제의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그 방법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작업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확장\*

고가영\*\*

### I. 머리말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기)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의 전문가들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었고, 전쟁 발생 직후에는 단기간에 종식될 전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그 누구도 종전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패권과 그것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으며, 이제 연구 논문들과 연구서들도 출간되고 있다.

신범식을 비롯한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전쟁을 ‘삼중전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삼중전쟁’이란 미·러 간의 국제질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쟁의 대리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국민국가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둘러싼 내전을 의미한다.<sup>1)</sup> 이러한 세 가지 측면(대리전, 전면전, 내전)의 성격에 더하여 홍완석은 ‘가치 전쟁(민주주의 vs 권위주의)’의 요소를 포함하여 4개의 층위로 전쟁을 설명하기도 한다.<sup>2)</sup>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1) 신범식 「삼중전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질서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8-24 쪽.

가치 전쟁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이 전쟁이 합리적 담론의 영역을 오래전에 벗어났으며, 정치적 노선과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의 이해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내러티브 전쟁이라고 규정한 이해영의 연구서도 있다.<sup>3)</sup> 이 책에서는 노엄 촘스키와 에티옴 발리바르, 슬라보예 지젝 등 현대의 좌파 지식인들 사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면서 전쟁의 성격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규명하고 있다.<sup>4)</sup>

역사학에서는 도대체 이 전쟁이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두 나라의 주류 민족은 동 슬라브인이라는 민족적 근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교라는 동일한 종교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갈등과 분쟁은 특수한 배경을 갖고 있다.<sup>5)</sup> 전쟁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또 다른 견해로는, ‘전쟁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특별좌담에서 포스트콜로니얼 학자인 폴 길로이가 쓴 ‘포스트콜로니얼 멜랑콜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임지현의 분석이 있다. 그는 식민지를 상실한 구 제국들이 제국주의 시기에 대한 어떤 향수나 우울감과 유사한 감정에서 기인한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현재 러시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6)</sup> 이에 덧붙여서 임지현은 나토 동진에 대한 국

---

2) 홍완석,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동학, 함의」, 『슬라브연구』, 제38권 3호(2022).

3) 이해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 (서울: 사계절, 2023).

4) 노엄 촘스키는 이 전쟁의 배경에서의 미국의 잘못을 명백하게 밝히며, 서방의 선택적 분노를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으로 1.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하기, 2. 더 이상 크림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3. 연방제 협정을 통해 돈바스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되, 국제적 레퍼런덤(referendum 국민투표)로 해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에티옴 발리바르는 촘스키가 푸틴에 대해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며, 경제 제재가 러시아인의 과도한 반발을 초래해서도 안된다고 한 것은 틀렸다고 명백하게 지적하면서, 푸틴을 물러서게 하려면 강력한 타격이 필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발리바르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민중이 푸틴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러시아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정당한 전쟁’이며, 이 전쟁에 정당성을 승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슬라보예 지젝 역시 『가디언』 기고문에서 만약 좌파라면, 우크라이나 편에 서라고 촉구하면서, 더 강한 나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책, 16~22쪽.

5) 구자경,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박영사, 2023).

6) 김현섭, 신범식, 임지현, 「특별좌담. 전쟁을 다시 생각한다」, 『철학과 현

가 안보적인 관점에서의 위기의식도 당연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제국으로 여기고 있는 러시아를 미국이나 서유럽이 주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분노, 즉 '서발턴 제국(Subaltern empire)'으로서의 집단심성을 배경으로 주목하기도 한다. 여론조사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80%가 넘는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서발턴 제국'의 주민으로서 더 강한 제국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소외감과,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영토를 상실한 것 등의 복잡한 심성들이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7)</sup> 이외에도 이 전쟁의 전투과정 자체<sup>8)</sup>와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포함하여, 이 전쟁이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sup>9)</sup> 아울러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젤렌스키 개인과 그 세대를 분석한 저서도 발간되었다.<sup>10)</sup>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인, 전개 과정,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쟁의 다양한 측면들 중, 전쟁 난민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한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주민 공동체인 사단법인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와 우크라이나 난민들과의 관계를 중점

---

실』, 133호(2022), 23~24쪽.

7) 같은글, 23~24쪽.

8) 김규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작전 분석」, 『전략연구』, 29권 2호(2022); 김규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정보전 활동」, 『슬라브연구』, 38권 No.호(2022); 두진호, 「우크라이나 사태 전훈 분석: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사적 담론」, 『국방정책연구』, 38권 4호(2023).

9) 김영식, 김병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의 무기화 전략」, 『러시아연구』, 32권 2호(2022); 성진석,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여파: 에너지 수급 안보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32권 2호(2022); 정선미, 「에너지로 본 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 공공제론적 패권안정론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32권 2호(2022); C. Kuzemko et al. "Russia's war on Ukraine, European energy policy responses &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transformation",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93(2022); 제성훈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서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3).

10) Olga Onuch and Henry E. Hale, *The Zelensky Effe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이다.<sup>11)</sup>

유엔난민기구의 최고대표보인 질리언 트릭스(Gillian Triggs)에 의하면,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내부적으로 난민 대책을 수립했고, 이 대책은 플랜 A,B,C,D로 준비되었다. 담당자들의 다수는 대체로 플랜 A를 예상했다. 플랜 A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플랜 B는 수십만 명 정도로 난민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었으며, 플랜 D가 400만 명 정도의 난민 발생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의 수는 예상을 훨씬 능가했다.<sup>12)</sup> 이러한 난민들의 상황과 이를 수용하는 공동체를 통해 이 전쟁의 양상을 좀 더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에 대한 연구로는 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난민들과 코비드-19 확산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sup>13)</sup>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에 유입되었던 중동, 아프리카(MENA) 지역의 난민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의 차이점을 분석

- 
- 11) 오늘날 난민은 광의의 의미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협의의 의미, 즉 전쟁으로 인한 난민, 그 중에서도 고려인 난민, 특히 광주 지역으로 유입된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 12) 질리언 트릭스,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 포럼 기조발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023.4.28.).
  - 13) Matthew Hodes, “Thinking about young refugees’ mental health following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8-1(2023), pp. 3-14; Arash Javanbakht, “Addressing war trauma in Ukrainian refugees before it is too late”,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3(2022); Wei Bai, Hong Cai, Yi Zheng and Ling Zha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addressing mental health crisis among child and adolescent refugees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Asian Journal of Psychiatry* 72(2022); Zhaohui Su, Dean McDonnell, Ali Cheshmehzangi, Junaid Ahmad, Sabina Segalo, Claudimar Pereira da Veiga, Yu-Tao Xiang, “Public health crises and Ukrainian refugees”, *Brain Behavior and Immunity*, 103(2022), pp. 243-245.

한 글들이 있다. 유럽의 언론, 특히 폴란드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백인, 유럽인, 주로 기독교인이어서 문화적 친연성을 갖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메나 지역 난민들을 향해 표현되었던 적대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언론의 우호적인 태도를 분석한 글도 있다. 동일한 글에서 전통적으로 서유럽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향해 더 우호적이라고 분석한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sup>14)</sup>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현재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부분 고려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멘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구별되는 특성들이 있다.

무엇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거 유입된 광주고려인마을은 매우 성공한 이주민 공동체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국내 언론과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sup>15)</sup> 그러나 아직까지

---

14) 이를 위해 저자는 320개의 뉴스 기사를 분석했다. Natalia Zawadzka-Paluckta, "Ukrainian refugees in Polish press", *Discourse & Communication*, 17-1(2023), pp. 96-111.

15) 광주 고려인마을 관련 연구로는 김영술, 홍인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권 1호(2013); 김경학,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권 4호(2014); 김재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귀환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 『재외한인연구』, 32호(2014); 임영상, 정막래, 「한국 속의 러시아,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2호(2016); 김재기, 홍인화, 「광주거주 고려인 이주노동자로서 인권실태」, 『재외한인연구』, 43호(2017); 선봉규 「한국에서 외국인 집거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2권 2호(2017); 선봉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현황 및 과제: 광주광역시 거주 고려인동포 자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권 2호(2017); 정막래, 주동완, 「광주 고려인마을의 발전을 위한 위키백과 구축 연구」, 『슬라브학보』, 32권 3호(2017); 정막래, 「광주 고려인마을 콘텐츠 연구: <나눔방송>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 논문(2017.8); 김경학, 「국제이주 과정에서 아동의 정착 경험: 광주광역시 고려인 아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0권 2호(2018); 석주연, 「고려인의 코드 전환과 의사소통 전략 연구-광주 월곡 마을 거주 고려인의 경우」, 『화법연구』, 37호(2017); 석주연, 박수연, 주연, 「광주 월곡 마을 고려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대하는 지역으로서의 광주 고려인마을에 대한 조망은 언론 기사들을 제외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sup>16)</sup> 이 글에서는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상관관계를 증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언론 기사 분석, 관련 기관인 법무부 및 지방자치체 발간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광주 고려인마을 거주민과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산한 구술자료를 활용하였다. 광주 고려인마을에서의 현지조사는 총 11회에 걸쳐 진행했다.<sup>17)</sup> 심층인터뷰는 고려인 지원센터 공동 대표 2인(고려인

---

위한 기초적 연구], 『한국언어문학회』, 105호(2018); 김경학,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이주와 정착」, 『문학들』, 55호(2019); 김나경, 선봉규, 「한국 거주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3호(2018); 윤승중 외, 『광주 고려인마을 사람들』 (광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9); 이형하, 권충훈, 「광주고려인마을 나눔방송의 주요 핵심어 변화 탐색」,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권 2호(2019); 박종구, 심재우, 조민주, 원재우, 이길준, 최진, 「고려인 마을의 '사이공간'으로서 로컬리티: 광주, 안산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호(2020); 한정훈, 「이주민 공동체의 정착 공간과 얽히는 시선들 -광주 고려인마을을 대상으로-」, 『실천민속학연구』, 35호(2020); 한정훈, 「이주(移住)의 서사(敘事)와 고려인 공동체의 미래 -광주 고려인마을 거주 고려인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호남학』, 68호(2020);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엮음, 『광주 이주민의 삶과 문화』,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총서 2 (광주: 도서출판루치카, 2021); 김성원, 「가족 생태학 관점으로 바라본 광주 고려인 마을에 대한 문화 기술지 연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작 연구1」, 『유아교육학논집』, 25권 4호(2021); 김기성, 「경제투쟁과 아장스망-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의 횡단지역성-」, 『인문학연구』, 64호(2022); 전득안, 선봉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과 이주민 공동체의 변화-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지식융합연구』, 5권 1호(2022); 정종민, 김경학, 강영신, 김수정, 선봉규, 김나경, 「팬데믹 상황에서의 광주 이주배경 고려인 아동의 정동적 연결성」, 『다문화와 평화』, 16권 2호(2022); 차노희, 「팬데믹 이후 광주고려인마을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담론」, 『문화와 융합』, 44권 8호(2022); 김향희, 「광주광역시 월곡동 고려인마을 내 고려인 자영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5권 2호(2023) 등이 있다.

16) 김은서, 「무력분쟁 발생시 아동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인도법논총』, 42호(2022).

17) 현지조사는 1차: 2021년 6월 24일~25일, 2차: 2021년 7월 13일, 3차: 2021년 8월 20일~22일, 4차: 2021년 10월 8일~10일, 5차: 2021년 12월

1인, 선주민 1인), 우크라이나 난민 12명, 이들을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이주민 고려인 1인(올드커머), 고려인 4명, 광산구청 외국인 주민과 공무원 2인, 고려인마을 핵심 활동가인 선주민 4인, SBS 기자 2인과 진행하였는데, 이들 중 다수와는 반복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고려인 전쟁 난민들의 상황과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이주민 공동체의 확장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발생 현황과 한국으로 유입

### 1.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발생 현황

2022년 2월 24일 전쟁 첫날부터 수도 키이우, 서부 르비우, 동부 하르키우, 남부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대도시에 러시아군에 의한 폭격이 행해졌다. 이로 인해 전쟁 초기부터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이 명백한 침략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명명해 왔다. 러시아가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해 온,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아온 러시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한 특별 군사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명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22년 봄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개최되었던 사진전 “언제나 엄마가 있기를, 언제나 내가 있기를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ет мам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у я!)”이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이르쿠츠크 등 대도시의 도심 거리에서 개최된 이 사진전에 게시된 사진은 2017년 돈바스 지역에 수개월 동안 체류했던 중군 기자 이리나 라쉬케비치(Ирина Лашкевич)와 다니일 보그단(Даниил Богдан)이 동부지역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찍어온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폭격에 의해 부수진 유치원과 건물의 잔해 속에 나뒀구는 인형, 공포 속에서 공허해진 눈빛을 가진 아이들을 클로즈업한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러시아 정부가 벌인 전쟁의 당위성을 러시

---

10~11일, 6차: 2022년 7월 23일~26일, 7차: 2022년 8월 13일~16일, 8차: 2023년 10월 15일~16일, 9차: 2023년 2월 20~21일, 10차: 2023년 4월 6일~8일, 11차: 2023년 5월 18일~21일에 진행되었다.

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sup>18)</sup>

그러나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2022년 9월 21일에 러시아 정부가 30만 명을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내림으로써 깨어졌다. ‘특별 군사 작전’에 동원령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도 스스로조차 부정할 수 없는 전쟁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쟁의 원인이 독일 통일 당시 고르바초프에게 나토는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 때문이든,<sup>19)</sup>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고자 한 러시아의 열망이었던, 우크라이나 내부의 동·서 갈등이든,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의 2023년 4월 23일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민간인 사상자는 23,015(사망자: 8,574, 부상자 14,441)명에 달한다.<sup>20)</sup>

---

18) Юлия Сталина, “В Петербурге открылась уличная выставка с историями детей из Донбасса. Над экспозицией работали военные корреспонденты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27 марта 2022) <https://www.spb.kp.ru/online/news/4681555/>; [https://mos.news/news/sankt\\_peterburg/pust\\_vsegda\\_budet\\_mama\\_pust\\_vsegda\\_budu\\_ya\\_deti\\_donbassa\\_v\\_tsentre\\_sankt\\_peterburga/](https://mos.news/news/sankt_peterburg/pust_vsegda_budet_mama_pust_vsegda_budu_ya_deti_donbassa_v_tsentre_sankt_peterburga/) (샹트페테르부르크)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детям Донбасса, открылась в Иркутске”, *Иркутск Сегодня* (2022.05.12.). <https://irk.today/2022/05/12/fotovystavka-posvyaschennaya-detyam-donbassa-otkrylas-v-irkutske/> (이르쿠츠크); Наталья Стрелцова, Василий Иванов, “Дети Донбасс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ет мам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у Я!» — фото”, *Regnum* (14 марта 2022); <https://regnum.ru/news/society/3531798.html> (모스크바);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открылась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детям Донбасса”, *ЕАН* (8 Мая 2022) [https://eanews.ru/news/v-yekaterinburge-otkrylas-fotovystavka-posvyashchennaya-detyam-donbassa\\_08-05-2022](https://eanews.ru/news/v-yekaterinburge-otkrylas-fotovystavka-posvyashchennaya-detyam-donbassa_08-05-2022) (예카테린부르크); Анастасия Долгополова, Любовь Зубков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ет мама…»”, *Анга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http://xn--80aagchebveoladvbvqjs.xn--plai/news/v-svezhem-nomere/4851-pust-vsegda-budet-mama> (안가르스크)

19) 푸틴 자신은 이 ‘특별군사작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이를 들고 있다.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statements%20/67828>

20) 이중 도네스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사상자는 9,526(사망자 3,963, 부상자 5,563)명이다. Ukraine: civilian casualty update 24 April 2023, *Office of the*



전쟁의 참상 속에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고 있으며, 초기부터 대규모로 발생했던 난민의 숫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3월 8일에 약 200만 명이었던 난민이, 3월 12일에 약 250만 명, 3월 15일에 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폴란드에 도착한 전쟁 난민들도 약 370만 명에 이르렀다.<sup>21)</sup>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유엔난민기구의 2023년 4월 20일자 자료에 의하면,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은 8,172,189명이며, 우크라이나 내 실향민은 5,352,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sup>22)</sup>

그런데 기존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비교할 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는 인근 국가들의 수용 태도는 차이를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이다.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한 바 있는 폴란드는 현재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OECD 대표부의 2022년 5월 9일 보고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 성인의 80-90%가 여성이며, 그중 절반 정도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sup>23)</sup> 주로 여성, 아이들로 구성된 난민들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18세-60세의 전투 가능한 남성들의 출국을 막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24)</sup>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인근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전면에 드러내 놓고 거론하지는 않지만, 인종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ttps://www.ohchr.org/en/news/2023/04/ukraine-civilian-casualty-update-24-april-2023> (검색일: 2023년 4월 28일)

21) Natalia Zawadzka-Paluckta, "Ukrainian refugees in Polish press", *Discourse & Communication* Vol.17-1(2023), p. 97.

22) file:///C:/Users/SNU-User/Downloads/2023%2004%2020%20Ukraine%20situation%20flash%20update%20No%2045.pdf

23) OECD. "Rights and Supports for Ukrainian Refugees in Receiving Countries", (2022. 5.9.), pp. 7-8.

24) 18-60세 사이의 남성들 중 아이가 셋 미만인 사람이라는 조건도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난민들 중 타지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는 경우 그곳을 목적으로 정하지만, 타국에 연고가 없는 경우 많은 이들이 인근 국가들의 난민 수용소에 체류하고 있다. 주로 러시아에서 발간되는 인터넷 저널들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불가리아, 독일 등지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조망하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다.<sup>25)</sup>

유엔난민기구가 2022년 12월~2023년 1월 우크라이나 주변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3,9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향후 3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로 귀환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12%이며, 언젠가는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65%, 귀환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사람이 18%, 귀환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5%로 나타나고 있다.<sup>26)</sup>

물론 내전이나 국민국가 사이의 전쟁으로도 난민이 발생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처럼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이유는 이 전쟁이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시행되었고, 이는 러시아 경제에만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우크라이나의 노동 가능 연령의 남성들이 대거 폴란드, 체코, 독일을 비롯한 유럽으로 노동이주를 떠났다.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 21일 대국민 TV 연설문에서 푸틴은 2019년 발

---

25) “Беженцы в Германии живут в школах(독일 학교에서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1/bezhency-v-germanii-zhivut-v-shkolax/>(검색일: 2023년 3월 28일); “Украинские беженцы с трудом адаптируются в Германии(독일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0/ukrainskie-bezhency-s-trudom-adaptiruyutsya-v-germanii/>(검색일: 2023년 3월 28일); “Беженцы из Украины остались без жилья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영국에서 거주할 곳이 없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0/bezhency-iz-ukrainy-ostalis-bez-zhilya-v-velikobritanii/>(검색일: 2023년 3월 28일); “Украинские беженцы в шоке от Болгарии(불가리아에서 충격받은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06/ukrainskie-bezhency-v-shoke-ot-bolgarii/>(검색일: 2023년 3월 28일).

26) “A year of War in Ukraine”, *With You* Vol. 48(2023 Spring) p. 7. [https://www.unhcr.or.kr/unhcr/files/pdf/2023Q1\\_spring\\_withyou.pdf](https://www.unhcr.or.kr/unhcr/files/pdf/2023Q1_spring_withyou.pdf) (검색일: 2023년 4월 28일)

표된 국제기구의 발표를 인용하여,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sup>27)</sup> 이처럼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상당수가 국외로 노동이주를 감행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고려인들 중에서도 대도시의 주류 사회로의 진입에 성공했던 이들은 다수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주의 흐름 속에서 유럽으로 노동이주를 감행했고, 농촌 지역에서 농사짓던 젊은이들의 다수가 한국으로 들어왔다.<sup>28)</sup>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이들의 가족들이 국경을 넘어 이들과 합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도 대규모 난민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 2.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의 한국 유입

이처럼 대규모로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의 일부가 전쟁 난민이 되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2023년 3월 26일에 배포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쟁 이후 한국으로 유입된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수는 약 1,2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sup>29)</sup>

한국에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1992년부터였다. 이후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여 난민 인정 규정이 마련되었다.<sup>30)</sup>

---

27)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statements%20/67828> (검색일: 2022년 2월 20일).

28)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고가영, 「접경지대 우크라이나의 국내·외적인 갈등 상황이 고려인 개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 『역사문화연구』, 71호 (2019)를 참조할 것.

29)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 보도자료』 (2023. 3. 26).

30) 조영관, 「국내 보호 체류자격 및 처우 개선방향」, 『난민의 국내정책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포럼 발표집』 (2023.4.28.). 4~5쪽.

그러나 난민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난민 인정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한국에서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2001년이었으며, 26세의 이디오피아인 전도사 한 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sup>31)</sup> 이후 2002년에 1명, 2003년에 12명, 2004년에는 18명을 인정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가 되었다. 점차 난민신청은 폭주했으나, 2015년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난민협약국 평균인 38%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었다.<sup>32)</sup> 2015년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난민 보호 수용력은 189개 국가 중 119위이다. 난민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킨 예멘 난민의 경우, 난민 인정을 신청한 549명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다.<sup>33)</sup>

현행 난민법(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이다.<sup>34)</sup>

---

31) 이재호, 「좁머족을 아시나요」, 『한겨레 21 1264호』 (2020.5.1.).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111.html](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111.html) (검색일: 2022년 5월 9일).

32) 옥영혜, 「한국의 난민정책 -재정착난민제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191~192쪽.

33) 최유, 「제주예멘난민 이후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5권 1호(2022), 22쪽.

34) 난민법 (시행 2016. 12. 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9C%EB%AF%BC%EB%B2%95> (검색일: 2021년 6월 22일) 국제적으로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만들어진 것은 1951년이었으나, 시간적 지리적 한계가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난민의 범주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1967년 UN 총회 결의 2189호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가 채택되었다. 알리야 바스타우바예바((ALIYA BASTAUBAYEVA), 『독일과 영국의 난민 보호정책 비교 연구: 난민인정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16권 7호(2016), 6~9쪽.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확장

2023년 3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1994년 이후 2023년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88,979명이며, 이 중 1,363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511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874명이 난민인정(보호)을 받고 있다.<sup>35)</sup>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의 난민 인정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건)

연도	구분 심사완료 <sup>34)</sup>	난민인정(보호)					불인정 <sup>35)</sup>
		소 계	인 정	인도적체류	인정률	보호율	
<b>총 계</b>	<b>47,735</b>	<b>3,874</b>	<b>1,363</b>	<b>2,511</b>	<b>2.9%</b>	<b>8.1%</b>	<b>43,861</b>
1994~2015년	7,498	1,488	580	908	7.7%	19.8%	6,010
2016년	5,665	350	98	252	1.7%	6.2%	5,315
2017년	5,874	437	121	316	2.1%	7.4%	5,437
2018년	3,954	651	144	507	3.6%	16.5%	3,303
2019년	5,060	308	79	229	1.6%	6.1%	4,752
2020년	6,236	223	69	154	1.1%	3.6%	6,013
2021년	6,851	124	72	52	1.1%	1.8%	6,727
2022년	4,912	242	175	67	3.6%	4.9%	4,670
<b>2023년 1~3월</b>	<b>1,685</b>	<b>51</b>	<b>25</b>	<b>26</b>	<b>1.5%</b>	<b>3.0%</b>	<b>1,634</b>

<난민신청 심사결과> 출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42쪽

2023년 3월 기준으로 난민 신청사유는 종교(19,064), 정치적 의견(16,771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8,835명), 인종(4,443명), 국적(561명), 기타(3585명)이다.<sup>36)</sup>

2022년 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고려인들과 그 가족들인 우크라이나인들이다. 2014년 크림 병합 이전에는 고려인들이 이곳에 약 3만 명가량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전쟁 발발 당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약 12,000명으로 집계되었고, 실제로는 약 2만 명 정도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기 후반 한반도를 떠나 연해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주했던 고려인들이 이제 전쟁 난민이 되어 다시 한반도로 귀환하고 있다.

35)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3쪽.

36)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3쪽.

### III.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우크라이나 난민 현대

#### 1. 고려인 이주사와 광주 고려인마을의 형성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귀환이주를 감행한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를 ‘고려사람’으로 불렀던 조선인-이주민들의 이주사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월경민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1863~1937)로서 정치적·경제적인 원인으로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연해주에 정착했던 시기이다. 둘째는 ‘유형민의 삶’을 살았던 시기(1937~1956)였다. 전쟁을 앞두고 ‘일본의 스파이’라는 구실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때로부터, 유형민족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중앙아시아에서 정착했던 시기이다. 셋째는 ‘소비에트 국민의 삶’을 살았던 시기(1956~1991)이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 사회의 해빙의 분위기와 탈스탈린 운동의 기조 속에서 당시 서기장이었던 흐루쇼프에 의해 1956년에 “특별이주자들의 법적 지위상 특별 거주에 따른 제한조치 해제에 관해서”라는 법령이 공표되어, 스탈린 시기에 정해졌던 거주제한이 철폐되었다. 이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게 된 고려인들은 신이주를 감행하여 거주지를 확대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이때 고려인들은 세 방향으로 이주했다. 첫 번째 방향은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소련의 대도시로 이주한 것이다. 이들은 대학교육을 마친 이후 소련의 주류사회로 진입했다. 두 번째 방향은 러시아 남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으로 계절 노동인 고본지<sup>37)</sup>를 떠난 것이다. 세 번째 방향은 비록

37) 고려인의 고본질의 기원은 연해주 이주 초기 시기 북한 거주민들이 봄철에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가을이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계절노동으로 보기도 한다. 임영상,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북한, 그리고 다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고려인 김 레오니드의 살아온 이야기-」, 『역사문화연구』, 35호(2010).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주로 ‘고본지’라고 부르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고본질’이라고 부른다. 농업 분야에서의 토지 임차-경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고본질은 10-20명 정도로 구성되며, 대표(브리가질)가 먼저 경작할 토지를 물색하여 계약을 한다. 고본질은 봄철에 집을 떠나 가을에 수확한 이후 되돌아 오는 고된 노동이지만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었기에 많은 고려인들이 고본질에 나섰다. 권희영,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p. 39; 이봄철, 「고려인 농업형태인 고본질의 변화와 시설농업의 전망」, 『전남대학교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7), p. 50; Герон Н. Ли, *Гобонди(고본지) Записки наблюдателя о любви корейцев к земле* (Бишкек, 2000).

소수이긴 하지만 강제이주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인 연해주로 귀환한 것이다.

네 번째 시기는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살게 된 시기(1992-현재)이다.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이후 신생독립국가가 된 중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 강화정책과, 체제 전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려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재이주했으며, 이에 더하여 역사적 고국인 한국으로의 귀환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에서 고려인을 밀어내는 유출 요인은 신생 독립국가의 정부들이 국민국가 정체성을 확립(Nation-state building)하기 위해 자국어와 자민족 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어가 모국어였던 고려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한국 내에서 고려인들의 유입을 끌어당긴 원인은 재외동포법의 제정이었다. IMF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6월 재외동포의 경제회생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안)' 입안을 시도했다. 이 법안에서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2조 제2호)로 제한했다. 이 법안은 1998년 8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 2일에 제정·공포되었고, 12월 3일 시행되었다.<sup>38)</sup>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점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 시기 한반도에서 이주했던 이들이 재외동포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제외된 동포들은 주로 조선족과 고려인이었다. 이에 일제의 강제징용·수탈을 피해 중국 만주로 이주했던 한인 2세로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중국 국적자 3인(조연섭·문현순·전미라)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1999년 8월 23일 재외동포법

---

38) 김봉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369> (검색일: 2023년 3월 6일).

제2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2004년 3월 5일에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개정(법률 제7173호)되었다.<sup>39)</sup>

이러한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고려인들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후 2019년 고려인 4세대들도 동포로 인정됨으로써 가족단위의 이주도 가능해지자, 고려인들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2023년 3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는 외국국적동포가 812,693명이 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2,335,596명)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sup>40)</sup> 고려인은 약 105,321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41)</sup>

(2023.3.31. 현재, 단위 : 명)

계	중 국	미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카자흐스탄
812,693	630,461	46,488	41,390	35,493	18,016	20,345
	호 주	키르기즈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기 타
	5,083	3,816	3,472	426	379	7,324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별 한국 체류 현황>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44쪽

이처럼 국내로 유입된 고려인들은 안산시 맷골, 인천광역시 함박마을, 광주광역시 월곡동, 안성시 내리, 경주시 성건동 등 여러 지역에서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주목할만한 장소는 광주광역시 월곡동의 고려인 집거지이다. 이곳은 안산시 맷골마을,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과 함께 국내 3대 고려인 집거지 중 하나이다. 현재 광산구 월곡 1동과 2동을 중심으로 약 7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sup>42)</sup> 사단법인을 설립한 광

39) 같은 글.

40) 국적별로는 중국이 630,461명으로 전체의 77.6%, 미국 46,488명(5.7%), 러시아 41,390명(5.1%)이다.

41) 이 숫자는 구소련지역 외국국적 동포 수를 합산한 것이다. 이는 2021년 4월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통계자료에서 76,880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다.



주의 고려인 집거지인 고려인마을은 응집력과 체계적인 마을 운영 면에서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고려인 집거지가 공단 근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과 달리 광주 고려인마을의 경우 이천영, 신조야 두 사람의 설립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고려인마을이 자리잡고 있는 월곡동도 다른 도시의 고려인 집거지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공단(하남공단과 평동공단)이 있으며, 아울러 광주시 외곽이어서 농촌으로의 접근성도 편리해, 공장과 농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선주민 설립자인 이천영 교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일어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88년부터 전남여상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1998년에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이때부터 이주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주로 이주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받아주는 일을 했다. 그는 광주전남 교사들로 구성된 교직자 선교회 회원들과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광산구 하남공단에 창고를 임대해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를 개원했다. 이후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인권상담소, 광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공단교회, 한반도사랑교회, 외국인 노숙자쉼터, 무료급식소 등을 세웠다. 외국인 노숙자 쉼터에는 주로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이들을 돕는 일을 20여년 동안 지속했다.<sup>43)</sup>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활동을 하던 중인 2002년에 이천영 교장은 현재 고려인 지원센터의 공동 대표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신조야와 만나게 되었다. 신조야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딸을 만나기 위해 2001년에 입국한 후 전남 함평의 콘크리트 회사에서 일했다. 함평에서 임금

---

42) 김명식, 「[광주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난민보고서] 고려인 오자 역사는 깊어지고 미래는 밝아졌다」, 『남도일보』 (2022.11.02.).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489>(검색일: 2023년 1월 5일).

43) 이천영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2021년 8월 21일, 22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고려인마을 교회, 방송국, 고려인 문화관); 고가영, 「왜 고려인마을에는 코로나 19가 없나: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새날학교 설립자인 이천영 교장의 네 번의 운명적 만남」, 『한겨레 21』 1379호 (2021.09.03.).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78.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78.html) (검색일: 2022년 2월 10일).

체불을 겪게 되었고, 광주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즈베키스탄 여성으로부터 전해 듣고 2002년에 광주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를 운영하던 이천영 대표를 찾았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고려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동행하게 됐다. 신조야 대표가 월곡동에 도착하던 2002년에는 카자흐스탄 남성과 결혼한 고려인 여성 한 명밖에 없었다.<sup>44)</sup>

이천영과 신조야 대표의 만남은 고려인 이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일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냈다. 이들은 2004년에 고려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2005년부터 상담소를 개소했고, 2009년 1월부터는 고려인 지원센터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고려인마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월곡동 고려인 집거지에는 고려인들의 한국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많은 기구들이 조직되었다. 이 기구들은 생활지원, 교육시설, 고려인 미디어, 문화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갖추어진 이러한 인프라들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입됨으로써 오히려 고려인마을에는 몇몇 기구들이 신설되었다.

### 1) 고려인 지원센터와 우크라이나 난민 정착지원

먼저 생활 지원 부분의 핵심 기구인 고려인 지원센터는 가방 하나만 들고 월곡동 지원센터로 찾아온 고려인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구해 주었다. 이 일은 지원센터 개관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찾아오는 고려인 이주민들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들이 첫 월급을 받게 되면 다음 사람들을 위해 숙소를 떠나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이주민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고려인 노동자들 역시 빈번한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센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변호사, 노무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법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고려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sup>45)</sup>

---

44) 신조야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2021년 10월 9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45) 이천영, 신조야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2021년 8월 21일, 22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이러한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고려인마을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의 난민 수용소에서 도움을 요청한 고려인들의 국내 입국 항공권을 구입하여 보냄으로써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한국 입국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인마을 지원센터의 항공권 지원으로 국내로 입국한 고려인은 2022년 12월에 875명이었다.<sup>46)</sup> 광주 고려인마을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항공권을 보내게 된 계기는 월곡동에 위치한 식당인 고려인 가족 카페의 주인이 기부한 천만 원이 마중물이 되었다. 이후 광산구청, 기업체, 개인들이 기부금을 고려인마을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국내 입국을 도왔으며, 입국 이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당 보증금 2백만 원, 두 달 치 방세 80만 원, 생계비 백만 원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매주 생필품들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기도 한다. 이 모든 비용은 모금을 통한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sup>47)</sup>

또한 고려인마을 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착에 매우 시급한 문제인 의료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광주지역 의료진들과의 협업 속에서 지원센터는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6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전에도 환자들이 생기고, 수술이 필요한 위급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고려인 지원센터는 월곡동 거주민에 한해 국적(민족), 병명, 액수 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다. 병원비는 월곡동에서 자리를 잡은 고려인 상인들만이 아니라 선주민 개인이나 단체들도 참여한 모금활동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sup>48)</sup> 이처럼 고려인마을은 광주시민과 고려인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코비드 19가 성행하던 시기 고려인을 포함한 이주 노동자들 백신 접종 및 위생관리를 위해 고려인마을은 광산구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sup>49)</sup>

---

46)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https://www.koreancoop.com/sub.php?PID=0506>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47) 이천영, 신조야, 박 빅토리아 인터뷰, 2022년 7월 23, 24, 25, 26일, 2022년 8월 14일, 16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48) 이천영 인터뷰, 2021년 8월 22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49) 김양숙, 박진 인터뷰, 2023년 4월 7일 (광산구청 외국인 주민과 사무실).

이러한 기존의 의료 인프라도 우크라이나에서 광주 고려인마을로 들어온 난민들의 의료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난민들의 경우 시급한 수술을 포함한 긴급한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고려인마을은 난민들에게 160건이 넘는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해 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도착과 동시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안 예프로시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안씨는 우크라이나에서 22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는데,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지하생활, 열악한 환경에서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갔으며, 폴란드 난민수용소에서의 생활 등으로 인해 허리 상태가 악화되어 시급한 수술을 필요로 했다. 또한 협동농장 일을 처음으로 착수했던 김씨의 경우도 입국 당시 심각한 치질 상태여서 도착 즉시 수술을 받았다. 폭격으로 원래 약했던 청력이 더 손상된 안 엘레나의 딸의 경우는 고성능의 보청기를 고려인마을로부터 제공받기도 했다.<sup>50)</sup>

## 2) 고려인 미디어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난민 청년들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는 고려인 미디어이다. 이는 인터넷 신문 '나눔 방송'과 라디오 방송국 'GBS FM고려방송'이 있다. 라디오 방송국은 2016년 인터넷 마을 방송으로 개국하여 소규모로 운영되다가, 2021년 7월에 정식 주파수를 가진 지상파 방송으로 허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1일 고려방송(FM93.5Mhz) 개국식을 갖고 러시아어 70%, 한국어 30%로 24시간 방송되는 정규방송이 되었다. 현재 가청지역은 광주시와 전남 일부이며, 방송은 유튜브로도 제공된다. 이 방송을 듣고 광주에 지인이 없지만, 중앙아시아로부터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를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sup>51)</sup>

이러한 미디어 인프라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GBS FM고려방송'은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동포 자녀를 위한 방송교육을 시행했다. 이 교육은 2022년 8월부터 5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3명의 방송 진행자를 배출했다. 이 중 최 빅토리아(20

---

50) 박 빅토리아, 안 엘레나, 이천영 인터뷰, 2022년 7월 24일, 2023년 4월 7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51) 이 믿음 인터뷰, 2022년 8월 16일, 2023년 2월 20일, 4월 8일 (고려인마을 방송국, GBS FM고려방송국).

세)와 이 다리야(22세)는 고려방송 프로그램 중 '타임 오브 드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22년 10월 6일 오후 4시에 첫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진행자인 최 빅토리아는 “지난 4월 전쟁의 참화를 피해 폴란드로 피신한 후 난민센터에 머물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으나 고려인마을이 지원하는 항공권을 받아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했으며, 광주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 정착 후 고려방송이 전하는 방송을 들으며 많은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됐기에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며 국내외 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sup>52)</sup> 이처럼 고려인마을의 생활지원 인프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려인 난민들이 광주로 유입된 이후 이들의 초기 정착과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3) 교육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아동, 청소년들

고려인들의 한국 사회의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녀 교육 문제이다.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국내 유일의 학력 인가 중고등학교인 '새날학교'가 있다. 새날학교는 2007년에 이주 노동자의 자녀 2명을 돌보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동사무소내 광산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교실 2칸에서 시작한 새날 학교는 폐교된 삼도남초등학교 장소로 2009년에 이전하여 개교식을 가졌다.<sup>53)</sup>

2011년 6월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 과정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로 인가되었으며, 고려인마을 자녀는 물론 국제결혼을 통해 입양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sup>54)</sup> 2021년 1월 졸업생 23명 중 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13명 모두가 연세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한동대학교, 국민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동

---

52) 박 빅토리아, 「“아픔을 함께 이겨요” 우크라 탈출 고려인동포 자녀 고려방송 진행자로 나서」, 『한국협동조합방송』 (2022년 10월 11일). [http://www.k-coop.com/board\\_view\\_info.php?idx=4690&seq=83](http://www.k-coop.com/board_view_info.php?idx=4690&seq=83) (검색일: 2022년 12월 20일).

53) 폐교된 삼도남초교 총동문회장은 새날학교에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윤중채, 「박중석 삼도남초교 총동문회장, 새날학교에 장학금 전달」, 『남도일보』 (2023.01.09.)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892> (검색일: 2023년 4월 23일)

54) '새날학교' <http://www.saenalschool.com/school/06.html> (검색일: 2023년 1월 5일).

신대학교 등에 입학했으며,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를 통해 광주 인근 산업단지 기업에 입사했다.<sup>55)</sup> 2023년 4월 현재 재학생은 72명이고, 10명의 교사와 9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생 30명이 대기 중이며, 2023년 2학기에는 1개 반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sup>56)</sup>

구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합계
남	7	8		7	4	1	3	1	1	32
여	12	5	2	6	6	2	6	1		40
합계	19	13	2	13	10	3	9	2	1	72

<2022학년도 나라별 현황> 출처: 새날학교 홈페이지  
<http://www.saenalschool.com/index.html>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새날학교는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4월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들은 20명이다.<sup>57)</sup> 새날학교 학생들은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례로 한국인 예술가 7명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학생들과 함께 학교 식당 건물 벽화 그리기 등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난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벽화의 주제는 인종의 다양성이며, 예술가들이 기본 도안을 그려 넣은 후,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색을 채워 벽화를 완성했다.<sup>58)</sup>

이외에 고려인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시설로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 2012년 10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있으며, 2013년 7월에 개원한 고려인마을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광산구 외국인 지원과의 관할 하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55) 김혜경, 「광주새날학교, 제10회 졸업식 비대면 온라인 개최」, 『한국타임즈』 (2021.01.08.). <http://www.hktimes.kr/read.php3?aid=1610059202136634006> (검색일: 2021년 3월 28일); 박호재 「다문화 대안 학교 ‘광주 새날학교’ 풍성한 졸업식」, 『The Fact』(2021.01.08.). <http://news.tf.co.kr/read/national/1836192.htm> (검색일: 2021년 3월 28일).  
 56) 이천영 인터뷰, 2023년 4월 7일 (새날학교 교장실).  
 57) 이천영 인터뷰, 2023년 4월 7일 (새날학교 교장실).  
 58) 김용희, 「벽화로 꽃핀 '우크라 고려인 어린이들의 꿈」, 『한겨레』 (2022.05.31.)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5040.html> (검색일: 2023년 1월 5일).

한글, 영어, 수학 과목 등의 학습지도가 행해지고 있다. 2017년에는 고려인 청소년문화센터를, 2022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버들시내> 센터도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올드커머로 전쟁 이전 한국에 들어왔던 우크라이나 출신 대학생이 이제 막 전장을 빠져나온 난민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며, 간식을 챙겨주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인 새날학교부터 광산구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주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들시내> 청년 센터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교육 기관들은 고려인 주민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난민 지원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난민 전문가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4) 문화 시설과 난민의 고려인 정체성 확립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과 그 이전에 구소련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고려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취업, 거주지 확보 등의 경제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난민을 비롯한 고려인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고려인마을 어린이 합창단, 오케스트라, 고려인마을 극단, 학술기관(고려인마을 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이주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박물관인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을 건립했다. 김병학 박물관 관장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에서 한글학교 교사, 카자흐스탄 한글문화센터 소장, 고려일보 기자 등으로 활동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체류한 24년 동안 그는 고려인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두고 관련된 귀중한 유물 12,000점을 수집했다. 그의 개인 소장품을 바탕으로 2021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을 개관했다.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이 소장한 자료 중 23권의 자료집이 국가기록물 제13호로 지정되기도 했다.<sup>59)</sup>

---

59) 김병학 인터뷰, 2021년 7월 13일, 8월 21일, 2022년 8월 15일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

특히 2021년 8월 14일~31일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를 박물관에서 개최했으며, 2022년 8월 15일에 월곡동 어린이 공원에서 홍범도 장군 제막식이 있던 날에는 박물관 전시실에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단막극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때 공연을 담당한 배우들은 호남대학교 연극 전공 학생들이었다. 이처럼 고려인 박물관은 고려인마을 거주민인 고려인들과,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주민들이 고려인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 5) 난민 유입으로 신설된 기구들

#### 협동 농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광주로 유입된 난민 고려인들 중 노년층들은 공장, 식당 등에서 힘든 노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려인마을은 2023년 2월 광산구 새마을회 소유의 농지를 임대해 고려인 협동농장을 출범했다. 지역사회 후원금과 마을 주민들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농사자금을 기반으로 비닐하우스 등 농사에 필요한 기본 자재를 구입하여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월곡동 고려인마을 내 35개 식당들과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판매망을 구축해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고려인마을 협동농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난민들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sup>60)</sup>

그런데 협동농장 건립 당시 최초로 농업을 담당했던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김씨와 토지를 대여해 주는 광산구 새마을회 지도부 사이에 농법의 차이로 인한 이견도 발생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우크라이나 남부로 고분지를 다니면서 농사일을 시작한 이래로 일생을 농업에 종사해 온 김씨는 자신만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를 원했다. 그러나 광활한 대지에서 대규모 농사를 지어온 이들의 농법을 인정하지 않는 토지 주인인 새마을회 지도부 사이의 이견으로 결국 김씨는 협동농장 업무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sup>61)</sup> 협동농장 내 농업은 다른

---

60) 윤종채, 「광주 고려인마을 협동농장, 특화작물 ‘씨뿌리기’ 한창」, 『남도일보』 (2023.04.18.)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458> (검색일: 2023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에게로 넘어갔으며, 2023년 4월 현재 김씨는 새날학교의 학교 교정 관리를 하고 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동농장을 통한 농업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생계를 위한 터전 마련에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양계장

고려인마을의 양계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양계장을 운영해온 박 에릭이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지원으로 입국하여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에 거주하게 되면서 형성되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양계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산구 새마을회 소유 임야의 일부를 대여하여 양계장을 시작했다. 낡은 가정용 냉장고를 부화기로 활용하여 2023년 4월에는 하루에 250-300마리의 닭들을 부화시키고 있다. 자연 방목으로 관리되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계란과, 닭들은 고려인마을 식당들에 납품되기도 하고, 별도의 판매 루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박 에릭은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62)</sup> 이처럼 고려인마을 인프라를 난민들이 활용함과 동시에 난민들의 유입으로 새로운 경제활동 분야들이 개척되면서 고려인마을 공동체가 확장되고 있다.

## 2. 우크라이나 난민 개인의 삶

### 1) 가족 전부 입국

고려인마을의 지원으로 입국한 난민들 중 일가족 전부가 광주로 들어온 사례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 엘레나의 가족이다. 1979년생인 엘레나는 광주의 공장에서 6년 동안 힘겹게 번 돈을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인 미콜라이우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청각장애인인 딸에게 송금해왔다. 엘레나는 지난 2022년 1월 가족들을 만나러 우크라이나로 입국했다.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그녀가 송금한 돈으로 마련한 미콜라이우의 예쁜 집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적십자의 도움으로 버스를 타고 몰도바-루마니아-헝가리-슬로바키아를 거쳐 폴란

---

61) 김씨 인터뷰 (1955), 2023년 4월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 신안 튜립 축제 현장).

62) 박 에릭 인터뷰 (1954), 2023년 4월 7일 (광주 고려인마을 양계장).

드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다. 난민 수용소의 상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았으며, 음식도 충분하지 않았다. 안 엘레나는 폴란드 난민 수용소 취재를 위해 나와 있었던 한국 기자들에게 한식을 요청하여 가족들이 함께 먹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엘레나의 가족은 그곳에서 고려인 마을에서 보내준 항공편으로 함께 입국했다. 청각 장애가 있는 딸의 경우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에서는 장애인 무용수로서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딸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안 엘레나는 고통스러워했다.

이처럼 전쟁을 계기로 가족 전부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 이들은 전후에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엘레나의 부모님은 둘다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했으며, 엘레나는 2007년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딸도 러시아 국적자이다.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 구소련 지역민들에게 국적 부여를 간소화했는데, 이때 엘레나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우크라이나를 벗어날 때, 러시아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니 러시아로 가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통보에 우크라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음을 항변하여 어렵사리 부모와 딸과 함께 폴란드로 갈 수 있었음을 증명하기도 했다.<sup>63)</sup> 이처럼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은 러시아 국적, 우크라이나 국적,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러 종류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더해 무국적자들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이 고려인들의 복잡한 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노년층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노년들 중, 박 에릭과 니 엘자 부부가 있다. 박 에릭은 1954년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주의 레닌 콜호즈에서 태어났으며, 니 엘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의 아푸르간에서 태어났다. 레닌 콜호즈에서 지인을 통해 만나서 결혼한 이들은 1983년에 결혼했으며, 딸 둘과 아들 1명이 있다. 이들은 1983년부터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로 고본지를 다녔고, 1995년에 미콜라이우로 완전히 이주했다. 이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집과 자동차 3대를 소유했고, 이 차량들을 위한 커다란 주차장 겸 창고를 건축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생 동안 농사

---

63) 안 엘레나 인터뷰 (1979), 2022년 7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를 지으며 이북한 이 모든 것들은 폭격으로 인해 무너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과 차고가 집중적으로 폭격을 당한 이유가 차고가 커다란 규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무기를 쌓아두었을 것이라고 러시아군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들은 2022년 6월에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우선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장녀인 사미라의 집으로 갔다. 사미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항공사에 근무했고, 그곳에서 만난 독일 사람과 결혼하여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독일에서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박 에릭은 광주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지원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양계장을 운영했던 그는 광주에서도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2023년 4월 현재 미콜라이우에서 지역 방위군으로 자원하여 근무하고 있다. 전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젊은 날에 고된 노동으로 마련했던 모든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과 더불어, 종전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연금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생을 근면하게 살아왔으나, 말년에 불쌍한 전쟁 난민으로 전락했다며 니 엘자는 한탄했다. 만약 젊은 시절이라면, 난민이 되었더라도 그 폐허 위에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노년이 되어 전쟁 난민이 되어 고된 노동을 하기 어렵고, 새롭게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기도 어렵다며 안타까워 했다.<sup>64)</sup>

이들 부부와 함께 고려인마을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씨(본인 스스로 익명을 요청)도 1955년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주에서 태어났다. 1971년부터 어머니와 외삼촌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고본지를 다녔으며, 198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정착했다. 일생을 농부로서 살아온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박, 오이, 토마토 등의 농사를 지었다. 그의 사위는 이 전쟁에서 전사했으며, 그는 두 딸과 아내와 함께 폴란드 난민 캠프에서 체류했다. 폭격 당시 지하실에 피해 있던 그와 그의 가족은 몰도바 - 루마니아 - 헝가리를 거쳐 폴란드에 도착했다. 폴란드에서 그는 단신으로 그의 누이가 거주하는 이탈리아로 갔다. 그의 누이는 이탈리아 사람과 결혼하여, 이탈리아 농촌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에 폴란드로 돌아왔고, 폴란드 난민 캠프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목사의 도움으로 광주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지원을 받고 2022년

64) 니 엘자 인터뷰 (1957), 2023년 4월 7일 (광주 고려인마을 양계장).

8월 1일에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는 헝가리, 폴란드 등 그동안 여정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65)</sup> 유럽의 각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 또한 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치전쟁의 단면인 것으로 여겨진다.

인천 공항에서 광주로 직행한 그는 고려인마을에서 막 시작한 협동 농장에서 농업을 시작했으나, 땅을 제공한 새마을회와 농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23년 4월 현재는 새날학교를 관리하고 있다. 무연고로 입국한 그에게 고려인 지원센터는 매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그의 아들은 미콜라이우에서 지역방위군으로 자원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체류하고 있는 몰다비아인인 아내와 두 딸은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받는 지원금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하고 있다.<sup>66)</sup>

### 3) 여성과 아이들

우크라이나 난민의 90%는 여성과 아이들이다.<sup>67)</sup> 김 옥사나는 세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에서 출생한 김 옥사나도 우크라이나로 이주했고, 남편과는 전쟁 전에 사별했다. 옥사나는 징집대상이라 출국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두 아들과 결혼한 두 딸을 우크라이나에 남겨놓고, 나머지 딸 셋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옥사나는 전쟁 발발 이전까지 한국으로 오겠다는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미콜라이우에서 함께 교회에 다니던 친구가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고 있어서 고려인 지원센터로부터 세 딸과 자신의 항공료를 지원받아 광주로 들어왔다.

고려인마을 쉼터에서 세 딸과 함께 3주 정도를 지내다가,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2022년 7월 25일에 월곡동에 위치한 월세방으로 이사를 나왔다. 이들 역시 초기 정착금과 두 달 동안의 월세를 지원받았으며, 당장 생활에 필요한 이불, 쌀, 그릇 등을 지원받았다. 2007년생인 딸 박 알렉산드

---

65) 헝가리 길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였는데, 핸드폰 통역 어플을 사용하여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씨, 2023년 4월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

66) 김씨 인터뷰, 2023년 4월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

67) "A year of War in Ukraine", p. 7.

리아와 2010년생인 딸 릴리야는 새날학교로 전학을 했다. 7월에 입국한 두 아이는 처음으로 겪어보는 한국, 특히 광주의 더위에 몹시 고통스러워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짓던 옥사나는 식당 주방 보조원으로 취업을 했으나, 알러지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다가, 이후 공장에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면서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가족 중 여성과 아이들만 국경을 넘어왔기에, 종전이 되면 이들은 가족들이 있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sup>68)</sup>

#### 4) 무국적자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은 무국적자로 신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2018년 당시에 우크라이나 고려인 협회장이자, 키예프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학과장인 강정식 교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협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를 무국적자들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0년대 초반 소연방 해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고려인들 중 우크라이나 입국 이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적도 상실되고, 우크라이나 국적도 취득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된 이들이 많았으며, 고려인 협회가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과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강정식 회장은 2018년 당시 '합법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무국적자 문제를 90%가량 해결했다고 말한 바 있다.<sup>69)</sup>

무국적자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 2018년 당시 오데사에 거주한 마리나 신이었다. 마리나는 소련시기 패스포드를 갱신하여 우즈베키스탄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녀의 남편은 소련시기 발급된 패스포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1997년까지는 소련 시기 발급된 패스포드로 우크라이나에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갑자기 소련 패스포드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마리나의 남편은 무국적자가 되어 거리에 마음 편히 나갈 수 없었으며, 생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sup>70)</sup> 이처

68) 김 옥사나 (1973), 박 율리야 (1993), 박 알렉산드라 (2007), 박 릴리야 (2010) 인터뷰, 2023년 7월 25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69) 강정식 인터뷰 (1948), 2018년 9월 25일 (키예프,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학과장실).

럼 고려인 협회와 한국 대사관이 다수의 고려인들의 국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에는 여전히 국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 무국적자들도 광주 고려인마을로 들어왔다.

무국적 고려인 난민들 중 우크라이나인 아내와 18개월(22년 7월 기준)된 딸과 함께 입국한 김 발레리(1988년)도 있다. 김 발레리는 8세에 부모님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으나, 우크라이나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왔다.<sup>71)</sup> 무국적자이기에 많은 제약 속에 살아왔으나, 오히려 전쟁이 발발하자 젊은 남성들의 경우는 출국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동원령에 해당되지 않아 출국할 수 있었다. 무국적자들은 일생 거주 지역을 벗어날 꿈도 꾸지 못하다가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해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크라이나인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입국한 김 발레리가 당면한 문제는 취업의 어려움이었다. 무국적자들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이 발행한 동포 방문비자(C-3-8)로 국내 입국하였다. 이로 인해 취업 제한과 90일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22년 8월 한국 내 무국적자인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은 약 6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sup>72)</sup>

### 5) 유사 이주 노동자

리 드미트리리는 2년 전 키예프로 일하러 갔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체르카스의 집으로 돌아왔다. 반년 동안 일거리도 없어서 수입이 없이 지냈다. 그는 아이들을 우크라이나에 남겨둔 채 우크라이나인 아내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에서 들어온 것과는 달리 이들은 직접 피해지역이 아닌 곳에서, 자비로 국내로 입국했다. 한국으로 오는데 아이들과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아이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라고 답했다.<sup>73)</sup> 이들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입이 끊어지자 한국행을 감행했다.

---

70) 신 마리나 인터뷰 (1966), 2018년 9월 27일 (오메사, 한인교회).

71) 김 발레리 인터뷰 (1988), 2022년 7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72) 이천영 인터뷰, 2022년 8월 16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73) 리 드미트리리 인터뷰 (1984), 2022년 8월 15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이처럼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다양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상황을 통해 전쟁의 단면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3. 난민과 동포 사이의 광주 정착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여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에서 민간 모금을 통해 항공권을 지원받아 한국으로 입국하고, 초기 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인 고려인들은 분명 전쟁 난민이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사위가 전사하기도 하고, 또는 일생을 일군 집과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비극적 현실에 처해 있는 전쟁 난민이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1/4 고려인임을 증명하여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전쟁 난민으로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의 입국부터 정착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온 광주 고려인마을 지도부 역시 이들을 전쟁 난민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예멘 난민 사건의 사례로 인한 것이었다.<sup>74)</sup> '2023 난민 포럼' 개최사에서 인권위원장인 송두환도 "예멘 난민신청자 관련 기사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는 경쟁적이고 자극적이었으며, 국회에서는 난민 유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sup>75)</sup> 당시 연합뉴스를 비롯한 10개 이상의 한국 언론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보도를 폭발적으로 쏟아냈다.<sup>76)</sup> 이는 한국 사회 내에 난민 문제가 조명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무슬림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에 당황한 정부는 2021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할

---

74) 2018년 4월 ~ 5월에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입국자 561명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대규모 제주 예멘 난민신청으로 한국사회는 처음으로 난민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게 되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안된 '제주도 불법난민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714,875명이 찬성할 정도로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높았다. 최유, 「제주예멘난민 이후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19~20쪽.

75)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포럼 발표집』 (2023.4.28.).

76) 고은지,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난민인권센터 (2019.2.4.) <https://nancen.org/1859> (검색일: 2022년 10월 11일).

때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 378명을 ‘특별 기여자’라는 호칭으로 특별 전세기를 통해 2021년 8월 26일에 한국으로 입국시켰다. 이들 역시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이었으나,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부르지 않았으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중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들을 ‘특별기여자’라고 명명함으로써, 예멘 난민들을 향했던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향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서는 이들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아닌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으로 부른다.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동포, 특히 고려인들을 흥범도 장군의 후예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돕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그런데 동포 돕기 차원이라는 점에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주도성은 현저하게 낮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정부는 르비우에 중앙 기구를 설치하고<sup>77)</sup> 유대기구(Jewish Agency)를 통해 폭격 대상 지역으로 450대의 특별 버스를 배치했으며, 알리야 센터(Aliyah center)<sup>78)</sup>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6개국에 개설했으며,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유대인 난민들에게 호텔과 다른 숙소, 음식, 상담을 제공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대인들을 위해 ‘알리야 익스프레스 프로그램(Aliyah Express program)’을 시작하여 즉시 항공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도착 이후 숙소와 정착을 도왔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59,870명에 이른다.<sup>79)</sup> 202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유입될 유대인의

---

77) “우크라이나”, *One New Man Family*, <http://www.onenewman.net/107>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78) 알리야는 히브리어로 ‘(시온산에) 오른다’라는 의미로서 고향땅에 돌아간다는 ‘귀환’을 의미한다. 즉 해외 거주 유대인의 이스라엘 복귀와 정착을 일컫는다. 홍인화, 임채완, 『이스라엘 귀환동포의 알리야와 지원정책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5권 1호(2017), 168쪽.

79) “UKRAINE CRISIS”, <https://www.jewishagency.org/2022-ir-ukraine> (검색일: 2023년 1월 5일)/ 우크라이나에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4만 5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를 약 30,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스라엘 도착 이후 이들에게는 임시 거주지가 제공되며, 이스라엘 사회 통합에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언어 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아이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및 복지 활동을 제공한다.<sup>80)</sup>

물론 국가 자체가 이민자로 구성된 이스라엘과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지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는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된 이들 고려인들을 보편 인권의 문제인 난민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불쌍한 동포 돕기라는 민족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향후 난민 수용 등 한국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사회가 난민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가지는데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IV. 맺음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 2차 대전 이래 유럽에서 최대 규모로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물론 한 국가 내에서의 내전이나, 국민국가들 사이의 전쟁에서도 난민들은 발생하지만, 대리전의 성격을 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난민들을 발생시켰다.

기존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같은 무슬림, 유색인종의 난민과 달리 80-90%가 여성과 아이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백인들인 이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인근 국가들에서 환대를 받았다. 물론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난민의 규모 역시 예상을 벗어난 규모로 확대되면서, 이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

<http://www.onenewman.net/107> (검색일: 2023년 1월 5일).

80) “우크라이나”, *One New Man Family*.

인근 국가들에서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자유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즉 가치적인 측면도 이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그동안 난민 인정에 매우 인색한 태도를 견지해 온 일본 정부조차도 특별 항공편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일본으로 데려왔고, 이에 대한 여론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이다.<sup>81)</sup>

이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중 유대인과 고려인들은 제외동포로서, 귀환이주의 형태로 이스라엘과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단지 이스라엘의 경우 이 모든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적인 행위 주체로 나선 반면, 한국은 민간 차원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의 한국 입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이다. 고려인마을이 난민 고려인들에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 계기는 고려인마을이 위치한 월곡동에서 이주노동자로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남겨두고 온 자신들의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답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단지 미성년 자녀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데려왔지만, 점차 일가족 전체, 여성과 아이들, 무국적자인 고려인들, 노년층들이 광주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제공으로 입국했다.

광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은 다수가 미콜라이우(니콜라예프) 출신이다. 이는 전쟁 이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광주로 들어와 노동을 하던 고려인들이 미콜라이우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한 이후 요청하면 무료로 항공권을 구매해 준다는 정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이전에도 생활지원, 법률, 의료, 교육 분야와 문화적인 부문에서도 고려인들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전쟁 직후 광주 고려인마을은 난민들의 입국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모금을 통해 약 900명 가량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했으며, 이

---

81) 김소연, “난민에 인색한 일본, 우크라 피난민 이례적 지원 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37769.html>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들의 정착과정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한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광주 고려인마을의 올드커머인 고려인들과 선주민인 활동가들이 다방면에서 돕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난을 겪는 이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후원 물품과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입됨으로써,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확장되었으며, 오히려 선주민들의 과거 고려인 공동체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들도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에 대한 환대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해 표출된 부정적 여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고려인마을 활동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을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으로 명명하며, 이들을 난민이라기보다는 재난을 당한 동포를 도와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향후 한국 사회는 '특별기여자'나 '재난당한 동포'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선별적 환대에서 벗어나, 재난을 당한 '난민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kknow@snu.ac.kr

#### 주제어(Key Words)

우크라이나 전쟁(The Ukrainian War), 우크라이나 난민(Ukrainian refugees),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Ukrainian Koryoin refugees), 이주민 공동체(Migrant community), 광주 고려인마을(Koryoin Village in Gwangju)

투고일: 2023.04.20. 심사일: 2023.05.20. 게재확정일: 2023.05.26.

<국문초록>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확장**

고 가 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내전, 국가간의 전쟁, 그리고 대리전 등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이래 유럽에서 최대 규모로 전쟁 난민을 발생시켰다. 주로 여성과 아이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메나 지역 난민들과는 달리 인근 국가들에서 환대를 받기도 했다. 이들 난민들 중에는 고려인들도 있다. 전쟁 발생 이후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약 1200명 정도가 들어왔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의 한국 입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이다. 계기는 고려인마을이 위치한 월곡동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자녀들을 입국시킨 것이었다. 초기에는 단지 미성년 자녀들을 항공권을 제공하여 데려왔지만, 점차 일가족 전체, 여성과 아이들, 무국적자인 고려인들, 노년층들이 광주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제공으로 입국했다. 이들 난민들의 개인적 경험들은 이 전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은 기존에 갖추어져 있던 광주 고려인마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착할 수 있었고, 이들의 유입으로 광주 고려인마을은 더 확장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에 대한 환대는 전쟁 난민에 대한 환대라기보다 재난을 당한 동포에 대한 도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을 난민이라는 호칭보다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동포’로 부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선별적 수용의 현실을 알 수 있다. 향후 한국 사회는 ‘특별기여자’나 ‘재난당한 동포’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선별적 환대에서 더 나아가, 단지 ‘난민들’이어도 그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e Influx of the Ukrainian War Refugees and the Expansion of the 'Koryoin Village' in Gwangju**

Ko, Ka Young

The war that began with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urned into a protracted one. The war in Ukraine, with its complex characteristics of civil war, interstate war, and proxy war, has generated the largest number of war refugees in Europe since World War II. Ukrainian refugees, mainly women and children, were welcomed in neighboring countries, unlike those from the Mena region. Among these refugees are Koreans. About 1,200 Koryoins from Ukraine who became refugees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entered Korea.

It is the Koryoin Village community in Gwangju that actively promotes the entrance of Koryoin refugees from Ukraine. It started with the bringing of the children of Goryeoins living in Wolgok-dong, where the Goryeoins from Ukraine built a village. In the beginning, only teenagers or younger children were brought in by providing airline tickets, but gradually entire families, women and children, stateless Koreans, and the elderly entered the country with air tickets provided by Koryoin Village people in Gwangju. The personal experiences of these refugees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war.

These Ukrainian refugees were able to settle down owing to the existing infrastructure of the Goryeoin Village in Gwangju, and the influx of these people allowed the Goryeoin Village in Gwangju to expand further. However, the hospitality for the Ukrainian refugees is limited to help for the compatriots who suffered disasters rather than

that for war refugees. Therefore, in Korean society, Koryoins who have been refugees from the war in Ukraine are referred to as “Koreans who escaped from Ukraine” rather than refugees. Through this, we can acknowledge the reality of selective acceptance of refugees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will have to go beyond the selective hospitality that requires special modifiers such as 'special contributors' or 'disaster-stricken compatriots' and move toward a society that can positively accept refugees even if they are just 'refugees'.

## 참 고 문 헌

### 1. 사료

- 강정식 인터뷰, 2018년 9월 25일 (키예프,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학과장실).
- 김 발레리 인터뷰, 2022년 7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김양숙, 박진 인터뷰, 2023년 4월 7일 (광산구청 외국인 주민과 사무실).
- 김병학 인터뷰, 2021년 7월 13일, 8월 21일, 2022년 8월 15일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
- 김 옥사나, 박 올리야, 박 알렉산드라, 박 릴리야 인터뷰, 2023년 7월 25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김씨 인터뷰, 2023년 4월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 신안뜰립축제 현장).
- 니 엘자 인터뷰, 2023년 4월 7일 (광주 고려인마을 양계장).
- 리 드미트리 인터뷰, 2022년 8월 15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박 빅토리아 인터뷰, 2023년 8월 1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박 에릭 인터뷰, 2023년 4월 7일 (광주 고려인마을 양계장).
- 신 마리나 인터뷰, 2018년 9월 27일 (오데사, 한인교회).
- 신조야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10월 9일, 2022년 7월 23, 24, 25, 26일, 2022년 8월 14일, 16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안 엘레나 인터뷰, 2022년 7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 이민음 인터뷰, 2022년 8월 16일, 2023년 2월 20일, 4월 8일 (고려인마을 방송국, GBS FM고려방송국).
- 이천영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2021년 8월 21일, 22일, 2022년 8월 16일, 2023년 2월 20일, 4월 7일,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고려인마을 교회, 방송국, 새날학교).
- 김봉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369> (검색일: 2023년 3월 6일).
-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 고가영, 「왜 고려인마을에는 코로나 19가 없나: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새날학교 설립자인 이천영 교장의 네 번의 운명적 만남」, 『한겨레 21』 1379호(2022.05.10),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 (검색일: 2022년 2월 10일).
- 고은지,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난민인권센터 (2019.2.4.), <https://nancen.org/1859> (검색일: 2022년 10월 11일).
- 김명식, 「[광주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난민보고서] 고려인 오자 역사는 깊어지고 미래는 밝아졌다」, 『남도일보』 (2022.11.02.),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489> (검색일: 2023년 1월 5일).
- 김소연, “난민에 인색한 일본, 우크라 피난민 이례적 지원 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37769.html>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 김용희, 「벽화로 꽃핀 '우크라 고려인 어린이들의 꿈」, 『한겨레』 (2022.05.31.),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5040.html> (검색일: 2023년 1월 5일).
- 김혜경, 「광주새날학교, 제10회 졸업식 비대면 온라인 개최」, 『한국타임즈』 (2021.01.08.), <http://www.hktimes.kr/read.php3?aid=1610059202136634006> (검색일: 2021년 3월 28일).
- 난민법 (시행 2016. 12. 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9C%EB%AF%BC%EB%B2%95> (검색일: 2021년 6월 22일).
- 박 빅토리아, 「“아픔을 함께 이겨요” 우크라 탈출 고려인동포 자녀 고려방송 진행자로 나서」, 『한국협동조합방송』 (2022년 10월 11일), [http://www.k-coop.com/board\\_view\\_info.php?idx=4690&seq=83](http://www.k-coop.com/board_view_info.php?idx=4690&seq=83) (검색일: 2022년 12월 20일).
- 박호재 「다문화 대안학교 ‘광주 새날학교’ 풍성한 졸업식」, 『The Fact』 (2021.01.08.), <http://news.tf.co.kr/read/national/1836192.htm> (검색일: 2021년 3월 28일).
-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https://www.koreancoop.com/sub.php?PID=0506>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 “우크라이나”, One New Man Family, <http://www.onenewman.net/107>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 윤종채, 「광주 고려인마을 협동농장, 특화작물 ‘씨뿌리기’ 한창」, 『남도일보』



- 보』 (2023.04.18.),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458> (검색일: 2023년 4월 23일).
- 윤중채, 「박중석 삼도남초교 총동문회장, 새남학교에 장학금 전달」, 『남도일보』 (2023.01.09.),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892> (검색일: 2023년 4월 23일).
- 이재호, 「줍머죽을 아시나요」, 『한겨레 21 1264호』 (2020.5.1.),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111.html](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111.html) (검색일: 2022년 5월 9일).
- “A year of War in Ukraine”, *With You*, 48(2023 Spring), [https://www.unhcr.or.kr/unhcr/files/pdf/2023Q1\\_spring\\_withyou.pdf](https://www.unhcr.or.kr/unhcr/files/pdf/2023Q1_spring_withyou.pdf) (검색일: 2023년 4월 28일).
- Ukraine: civilian casualty update 24 April 2023,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ttps://www.ohchr.org/en/news/2023/04/ukraine-civilian-casualty-update-24-april-2023> (검색일: 2023년 4월 28일).
- “UKRAINE CRISIS”, <https://www.jewishagency.org/2022-ir-ukraine> (검색일: 2023년 1월 5일).
- “Беженцы в Германии живут в школах(독일 학교에서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1/bezhency-v-germanii-zhivut-v-shkolax/>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 “Беженцы из Украины остались без жилья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영국에서 거주할 곳이 없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0/bezhency-iz-ukrainy-ostalis-bez-zhilya-v-velikobritanii/>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statements%20/67828> (검색일: 2022년 2월 20일).
- Сталина, Юлия, “В Петербурге открылась уличная выставка с историями детей из Донбасса. Над экспозицией работали в оенные корреспонденты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27 марта 2022), <https://www.spb.kp.ru/online/news/4681555/>; [https://mos.news/news/sankt\\_peterburg/pust\\_vsegda\\_budet\\_mama\\_pust\\_vsegda\\_budu\\_ya\\_deti\\_donbassa\\_v\\_tsentre\\_sankt\\_peterburga/](https://mos.news/news/sankt_peterburg/pust_vsegda_budet_mama_pust_vsegda_budu_ya_deti_donbassa_v_tsentre_sankt_peterburga/) (검색일: 2023년 1월 5일).

“Украинские беженцы в шоке от Болгарии(불가리아에서 충격받은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06/ukrainskie-bezhency-v-shoke-ot-bolgarii/> (검색일: 2023년 3월 28일).  
“Украинские беженцы с трудом адаптируются в Германии(독일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0/ukrainskie-bezhency-s-trudom-adaptiruyutsya-v-germanii/>(검색일: 2023년 3월 28일).

## 2. 단행본

- 강주진, 『한국과 소련』 (중앙출판인쇄주식회사, 1979).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엮음, 『광주 이주민의 삶과 문화』.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총서 2 (광주: 도서출판루치카, 2021).  
구자정,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박영사, 2023).  
권희영,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신범식 「삼중전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질서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이해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 (서울: 사계절, 2023).  
윤승중 외, 『광주 고려인마을 사람들』 (광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9).  
제성훈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서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3).  
Onuch Olga and Henry E. Hale, *The Zelensky Effe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Ли, Герон Н., *Гобонди(고본지) Записки наблюдателя о любви ко рейцев к земле* (Бишкек, 2000).  
Петров. А.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XIX века* (Владивосток : ДВО РАН, 2000).  
Стариков Н., *Беляев Д. Россия, Крым, Итория* (СПб., 2018).

### 3. 논문

- 고가영, 「접경지대 우크라이나의 국내·외적인 갈등 상황이 고려인 개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 『역사문화연구』, 71호(2019).
- 권충훈, "광주고려인마을 나눔방송의 주요 핵심어 변화 탐색",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권 2호(2019).
- 김경학, 「중양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권 4호(2014).
- 김기성, 「경계투쟁과 아장스망-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의 횡단지역성-」, 『인문학연구』, 64호(2022).
- 김재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귀환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 『재외한인연구』 32호(2014).
- 김영술, 홍인화, 「중양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권 1호(2013).
- 김은서, 「무력분쟁 발생시 아동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인도법논총』, 42호(2022).
- 김현섭, 신범식, 임지현, 「특별좌담. 전쟁을 다시 생각한다」, 『철학과 현실』, 133호(2022).
- 반병률,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地新墟", 『한국근현대사연구』, 26호(2003).
- 신범식 「삼중전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질서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 알리야 바스타우바예바(ALIYA BASTAUBAYEVA), 「독일과 영국의 난민보호정책 비교 연구: 난민인정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16권 7호(2016).
- 옥영혜, 「한국의 난민정책 -재정착난민제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 이봄철, 「고려인 농업형태인 고본질의 변화와 시설농업의 전망」, 『전남대학교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7).
- 임영상, 정막래, 「한국 속의 러시아,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2호(2016).
- 전득안, 선봉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과 이주민 공동체의 변화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지식융합연구』, 5권 1호(2022).

- 정막래, 「광주 고려인마을 콘텐츠 연구: <나눔방송>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8).
- 정선미, 「에너지로 본 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 공공제론적 패권안정론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32권 2호(2022).
- 조영관, 「국내 보호 체류자격 및 처우 개선방향」, 『난민의 국내정책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포럼 발표집』 (2023.4.28.).
- 질리언 트릭스, 「난민의 국내정책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 포럼 기조발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023.4.28.).
- 홍완석,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동학, 함의」, 『슬라브연구』, 38권 3호(2022).
- Javanbakht, Arash, “Addressing war trauma in Ukrainian refugees before it is too late”,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3(2022).
- Kuzemko, C. et al. “Russia’s war on Ukraine, European energy policy responses &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transformation”,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93(2022).
- Zawadzka-Paluckta, Natalia, “Ukrainian refugees in Polish press”, *Discourse & Communication*, 17-1(2023).

## 미셸 슈발리에(Michel Chevalier)의 공동체적 상상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지중해 시스템’\*

양재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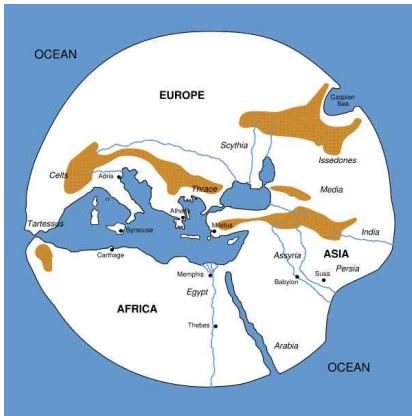
### I. 머리말

지중해는 서양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며 등장한다. 지중해는 이주, 식민, 무역, 상업, 평화, 종교, 산업, 자본, 노동, 문화, 교통, 문명, 약탈, 침략, 저항, 전쟁과 같은 역사적 주제와 함께 비극적 또는 희극적 사건의 무대로서 또는 그 자체가 주역으로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역사를 구성한다. 지중해는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이주, 무역, 식민은 물론 전쟁, 약탈, 추방, 피난과 같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 이동의 장소였다. 특히 식민과 이주는 고대 그리스인의 기원 및 정체성을 파악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지중해는 이미 고대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우리에게 알려진 서양의 역사는 지중해의 문명사로 이해할 수 있다. 서양의 문자 역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로 시작한다. 민족이나 종족의 역사가 아닌 세계의 역사로서 출발한 서양의 문자 역사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벌어진 세계적 전쟁에 관한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기원전 6세기경 밀레투스 출신 헤카타이오스(Hecataeus of Miletus)의 지도<sup>2)</sup>는 세계에 관한 고대 그리스인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원형의 대지가이아는 대양 오케아노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지의 중심에 지중해가 위치한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24)

1) 최혜영, 「고대 지중해 식민 활동과 여성」, 『서양고대사연구』, 52호(2018), 108쪽.

2) <https://www.hellenicaworld.com/Greece/Person/en/Hecataeus.html> (검색일: 2023년 04월 15일)



[그림 16] 헤카타이오스의 지중해 지도 (기원전 6세기 )

서양 중세에도 지중해는 다양한 민족과 문명의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가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중세 시기 서구 유럽과 아랍 세계는 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상호 교류는 멈춘 적이 없다. 앙리 생시몽(Henri Saint-Simon)이 지적한 대로 아랍 실증 과학의 유입은 근대 유럽 문명을 탄생시키는 기반을 구성한다. 유럽은 이슬람 스페인과 남부 이탈리아의 중개를 통해 아랍의 과학 지식의 다양한 요소들을 받

아들었다. 아랍 문명은 그리스 사상을 정제하고 나서 지중해를 통해 라틴 세계로 소통했다. 16세기 들어 이런 문화적 교류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유럽 강대국, 특히 스페인이 지중해를 벗어나 아메리카로 관심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중해는 서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sup>3)</sup>

근대 들어 지중해는 크고 작은 다양한 세력의 각축장(arène)으로 등장한다. 18세기 지중해는 다양한 지리적·역사적 동기에 따라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속된 반목, 대립과 경쟁, 그중에서도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 간의 대립, 그리스 동양과 라틴 서양 간의 분열, 정복에 기초한 대제국의 약화에 따른 지역 권력들의 분열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들어 지중해는 영국과 프랑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1815년, 패배한 프랑스로서는 유럽에서 자신의 세력을 입증할 능력이 없었다. 바로 그때 지중해가 프랑스가 야심을 발휘할 새로운 장이 되었다.

그러나 지중해에서 진정으로 강한 세력은 오직 하나, 영국이었다. 영국은 먼 저 바다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3) Émile Temime, *Un rêve méditerranéen: Des saint-simoniens aux intellectuels des années trente (1832-1962)* (Marseille: ACTES SUD, 2002), pp. 15-20.

이 획득한 여러 곳의 거점과 산업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영국에게 지중해는 시장이었다. 또 그것은 세계를 내다보는 그들의 관점에서 아시아를 향한 전략적 요충지였다.<sup>4)</sup>

군사적·경제적·학문적으로 동양에 관한 서양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 이후 지중해는 프랑스와 영국이 경합하는 무대가 된다.<sup>5)</sup>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탈식민지의 물결로 시작하는 19세기 초 서양 세력의 지중해 진출은 뚜렷한 경향을 형성했으며, 유럽 강국의 지중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강화됐다. 프랑스와 영국의 지중해 지역으로의 진출은 지중해 연안 대부분의 국가에 정치·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각성이라는 충격을 가했다.<sup>6)</sup>

이와 같이 지중해는 서양의 문자 이전 역사에서부터 서양 문명의 지리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활동의 중심이다. 독보적인 지중해 역사 연구가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펠리페 2세 시대, 곧 15~16세기의 지중해를 서구 근대의 탄생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연구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sup>7)</sup> 브로델은 펠리페 2세 시대를 벗어나 문자 이전 역사 시대 지중해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페르낭 브로델에게 지중해는 근대라는 시간 속에 가둘 수 없는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사물의 '교환'이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것으로 보인다.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지중해까지 내려왔지만 그 경계에서 어김없이 멈추었기 때문에 지중해가 곧 세계의 살아 있는 중심이 되었고, 지중해

---

4) Jean Carpentier·François Lebrun, 강민정·나선희 역, 『지중해의 역사』 (파주: 한길사, 2006), 387쪽.

5) Émile Temime, *Un rêve méditerranéen*, p. 23.

6) 영국은 지중해 지역에서 1802년 몰타를 식민화하고, 1815-1864년 이오니아 제도를 보호령으로 삼았으며, 1878년 키프로스를 매입했고, 1882년 이집트를 점령하고 1920년에는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했다. 프랑스는 1830년 알제를 점령하고, 1881년 튀니지, 1912년 동모로코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1920년에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위임통치하여 북아프리카 지방에 지중해 제국을 건립하려 했다. 19-20세기 지중해는 오스만제국의 와해와 새로운 유럽 제국들이 대두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용우, 「프랑스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MuCEM)의 지중해주의」, 『역사와세계』, 54호(2018), 111쪽.

7) Fernand Braudel, 주경철·조준희 역,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서울: 까치, 2017).

가 공명관처럼 그 거대한 대륙들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따라서 지중해는 세계의 역사가 집약되는 곳이었고, 지중해의 역사는 멀리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쌍방향의 흐름이 과거 역사의 주된 특징이었다. 지중해는 주는 것이 있었고 받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교환된 ‘선물’은 재앙일 수도 있었고 은총일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뒤섞였다.<sup>8)</sup>

19세기 들어 지중해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서 결정적인 변화를 맞는다. 지중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급진적인 공간의 전환을 목격한다. 1830년대와 1840년대의 운송수단의 혁명으로 지중해에서는 서구인의 새로운 활동과 기획이 등장한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생시몽주의자 미셸 슈발리에(Michel Chevalier)의 ‘지중해 꿈’ 또는 ‘지중해 시스템’<sup>9)</sup> 기획이다. 슈발리에에는 민족주의 경향의 대두, 자본주의의 경제적 팽창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지중해 시스템’을 통해 생시몽주의 종교의 ‘동·서양의 보편적 연합’ 교리에 관한 그만의 고유한 해석과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한다.

## II 동·서양 문명의 보편적 연합 ‘지중해 시스템’

미셸 슈발리에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해저 철도 터널의 건설, “유럽 민족 공동체”의 설립과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의 세계”를 추구했던 “예지자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었다.<sup>10)</sup> 슈발리에에는 에콜 폴리테크닉(École polytechnique)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에콜 데민느(École des

---

8) Fernand Braudel, 강주현 역, 『지중해의 기억』 (과주: 한길사, 2006), 73 쪽.

9) 『지중해 시스템』은 생시몽주의 기관지 『르글로브』(*Le Globe*)의 편집장이었던 슈발리에가 1832년 초에 ‘지중해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일련의 글들의 모음으로 『생시몽주의 종교: 산업 정치와 지중해 시스템』 [*Religion saint-simonienne: Politique industrielle et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aris: Bureaux du Globe, 1832)] 저서에 『르글로브』의 다른 기사들과 함께 포함되어 출간된다. 생시몽주의 연구자들은 통상 『지중해 시스템』을 저서로 다루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신문 기사가 아닌 저서로서 표시한다. 저서를 가리킬 때는 『지중해 시스템』으로 표기하며, 슈발리에의 연의 기획을 의미할 때는 ‘지중해 시스템’ 기획으로 표기할 것이다.

10) Michael Drolet, “Industry, Class and Society: A Historiographic Reinterpretation of Michel Chevalier”,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123:504(2008), p. 1229.



mines)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그는 1830년 전도유망한 공학기사(ingénieur)의 경력을 그만두고 생시몽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생시몽주의 운동 지도자 프로스페 앙팡탱(Prosper Enfantin)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된다. 슈발리에에는 생시몽주의 종교에 헌신한 이후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생시몽주의 기관지 『르글로브』(*Le Globe*)의 편집을 책임졌으며, 앙팡탱과 지방 교회와의 모든 서신을 작성하고 관리했다. 슈발리에에는 생시몽주의 집단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지도자 앙팡탱과 함께 생트펠라지(Sainte-Pélagie) 감옥에 투옥되고, 이후 앙팡탱과 절연할 때까지 생시몽주의 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sup>11)</sup>

생시몽 사후에 전개된 생시몽주의 운동은 1831년에 운동 지도자 최고 성부 아망 바자르(Amand Bazard)와 앙팡탱의 분열과 일부 구성원의 이탈로 위기에 빠진다. 권력 투쟁에 승리한 ‘유일 최고 성부(Le seul Père suprême)’ 앙팡탱은 ‘여성’과 ‘동양’이라는 새로운 주제 중심으로 생시몽주의 윤리 담론을 주도하며 운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킨다. 앙팡탱은 새로운 생시몽주의의 “윤리적 질서의 작업”을 에밀 바로(Émile Barrault)와 샤를르 조셉 랑베르(Charles Joseph Lambert)에 맡기고, 정치적 사업은 슈발리에가 지도하도록 지시한다. 앙팡탱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새로운 생시몽주의 담론은 문학적·감성적 방향으로는 에밀 바로에 의해서, 정치·경제적 방향으로는 미셸 슈발리에에 의해서 스승 생시몽의 이론은 물론 초기 생시몽주의 운동의 논의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앙팡탱이 유일 성부로서 생시몽주의 집단을 이끌면서 생시몽주의 담론에

---

11) Jean Walch, “Problèmes Saint-Simoniens et problèmes contemporains: Le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de Michel Chevalier”,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Etranger*, 153(1963), p. 422. 슈발리에에는 앙팡탱과 결별 이후 경제적 자유주의자와 정치 관료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그의 자유 무역을 변호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실 앙팡탱과의 결별 이후에도 생시몽의 사상 또는 생시몽주의 학파의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슈발리에에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로 알려졌지만, 그의 사상은 ‘국가’, ‘노동 계급’, ‘역사 인식’ 문제에서 생시몽의 사상과 깊은 연관을 유지했다. 따라서 생시몽주의의 사도로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의 슈발리에의 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이후 슈발리에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과의 단절을 확인한다기보다는 그것과의 연관을 확인하는 작업일 것이다. 슈발리에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과 생시몽주의 연관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Michael Drolet, “Industry, Class and Society”.

서 여성과 동양이라는 주제가 급부상하는 데 바로의 역할이 중요했다. 앙팡탱의 새로운 윤리를 선전하는 데 앞장섰던 바로는 설교를 중심으로 ‘오리엔탈리스트’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학적 담론을 생산했다. 생시몽주의 종교의 열렬한 전도자 바로는 “예술과 사회의 밀접한 연관과 사회적 책무”에 주목하며, “미학 이론을 생시몽주의 주요 이슈와 유기적으로 접속”했다.<sup>12)</sup> 생시몽주의자들의 동·서양 연합 담론은 프랑스 오리엔탈리즘 전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낡은 대립(남성/여성, 정신/신체 등)에 기반을 두는 “본질주의적인 시각”으로 동양과 서양의 본성을 고정시킨다.<sup>13)</sup> 바로는 앙팡탱이라는 서구 유럽 남성으로서의 유일 성부의 옆자리를 채울 여성 메시아 성모를 찾기 위해 여성 원정대(Compagnons de la Femme)를 이끌고 지중해 연안 지대를 탐색하기도 한다.



[그림] 17 미셸 슈발리에  
<https://www.societe-des-etudes-saint-simoniennes.org/chevalier>

슈발리에에는 동·서양의 연합 교리를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산업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건설하려는 야심찬 기획으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지중해 시스템’은 “앙팡탱의 새로운 윤리에 대한 물질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슈발리에에는 유럽의 통합 또는 유럽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생시몽의 기획을 동·서양 문명의 연합을 전망하는 ‘지중해 시스템’ 기획으로 확장한다.<sup>14)</sup>

생시몽주의 동·서양 연합 담론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군사적 정복을 합법

12) 옥영수, 『근대 유럽의 설계자: 생시몽·생시몽주의자』 (서울: 소나무, 2022), 200쪽.

13) Michel Levallois et Sarga Moussa (dir.), *L'orientalisme des saint-simoniens* (Paris: Maisonneuve & Larose, 2006), pp. 8-10.

14)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Religion saint-simonienne: Politique industrielle et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aris: Bureaux du Globe, 1832), p. 17.

화하는 당대에 지배적인 정치적 담론과는 구별되며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폭력을 통한 동양 억압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한다.<sup>15)</sup> 특히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동양과 서양 사이의 산업적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동양과 서양의 화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평화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중해 시스템’은 군사적 지배를 통한 영광을 추구했던 나폴레옹을 추억하는 “영웅주의”와 서양의 정복 의지와 구별되는 기획으로서 세계의 경제적 질서를 유럽 민족 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시도이다.<sup>16)</sup>

슈발리에에 봉건적 질서를 옹호하는 특권 계급뿐만 아니라, 여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동양을 단지 무력과 멸시로 경멸했던 프랑스 민족을 비판하면서, 앙팡탱의 윤리로 여성과 동양에 관한 기존 편견을 대체하여, 종교적 평등 위에서 여성을 남성과 결합시키고, 동양을 서양과 통합시키는 생시몽주의 사도로서의 미션을 강조했다.<sup>17)</sup>

슈발리에에 기존의 동양에 대한 부정적이고 유럽 중심적인 편견을 비판하면서, 인류적 차원에 이루어질 생시몽주의 운동에서 동양에게 능동적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8)</sup> ‘지중해 시스템’은 문화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에서 이기주의와 반목 또는 대립으로 마비된 세계를 재생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춘다. 슈발리에에 따르면, “유럽은 오직 다른 문명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sup>19)</sup> 동양 역시 서양과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서양 없는 동양은 영혼 없는 신체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위기는 더 이상 유럽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의 혼란과 전쟁, 위기는 동양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다. 앙팡탱이 선언한 법칙은 육체와 정신의, 산업과 과학의, 동양과 서양의, 여성

---

15)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 18.

16) Anouar Louca, *L'autre Égypte de Bonaparte à Taha Hussein* (Le Caire: IFAO, 2006), p. 69.

17) “Notices Historiques, II Enfantin, XVII(1832, Février)”, *Œuvres de Claude-Henri de Saint-Simon et d'Enfantin* (Paris: E. Dentu, 1865-1876), Vol. 6, pp. 12-14.

18) Philippe Régner, *Les saint-simoniens en Égypte (1833-1851)* (Le Caire: Banque de l'Union Européenne, Amin Fakhry Abdelnour, 1989), p. 9.

19) Francis Démier, “Les Europe des saint-simoniens”, Nathalie Coilly et Philippe Régner, (dir.), *Le siècle des saint-simoniens: du Nouveau christianisme au canal de Suez* (Paris: Bnf, 2006), p. 163.

과 남성의 진보적인 조화 또는 연합이다. 늙은 유럽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다. 따라서 슈발리에에게 동양은 더 이상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 모두의 삶이 걸린 존재론적 문제로 부상한다.<sup>20)</sup> 슈발리에에는 동·서양 연합의 정치는 지중해 연안 지역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지중해 시스템’을 수립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1)</sup>

유럽의 시인들은 ‘지중해 시스템’ 이전에 이미 동양을 찾아 동양의 관능적 자연을 찬탄하고 “지나간 영광의 자취와 다가올 영광의 씨앗을 찾으면서” 동양과 서양의 연합을 예지했다. 슈발리에에는 자신의 시대에는 시인들의 예지와 상상으로 만든 동·서양의 근접을 실제적인 산업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2)</sup> ‘지중해 시스템’은 동양을 문명과 번영의 길을 걸게 만드는 동양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유럽 민족 간의 대립과 전쟁의 공간을 넘어, 민족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무대, 곧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트랜스내셔널 공간에서 활기를 잃고 늙어가는 유럽을 재생시키기 위한 “사회 조직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사업이다. 민족의 이해 관계에 바탕을 둔 유럽 민족의 경쟁은 “이기주의”로부터 비롯되는 병폐와 쇠퇴를 결과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슈발리에의 기획은 문명 발전의 요구에 다름이 없다.<sup>23)</sup>

슈발리에가 전망하는 ‘보편적 연합(l’association universelle)’ 시스템은 단순히 민족의 연방이나 정부 간의 경제 조약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보편적 연합은 “모두를, 정당들, 계급들, 인종들 그리고 성들을 정당하게 인정해야만” 가능한 “노동의 조직”이다. 보편적 연합은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일반 사업과 각 민족에게 부여되는 이차적 특수 사업으로 구성되는, “지구 전체를 포함하는 산업적 노동 시스템의 조직”이다. 따라서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유럽의 경제적 재구조화로 이해할 수 있다.<sup>24)</sup>

---

20) Philippe Régnier, *Les saint-simoniens en Egypte (1833-1851)*, p. 10.

21)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p. 126-127.

22)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26.

23) Francis Démier, “Les Europe des saint-simoniens”, p. 163.

24) Michel Chevalier, “Politique d’association”(Le Globe, 30 mars 1832), *Religion saint-simonienne: Politique industrielle et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p. 31-33.

유럽 민족 중에서 프랑스 민족은 경제적 재구조화 정치의 중심을 구성한다. “자식”들을 전쟁터로 보내 얻은 “고통”과 “보물”을 대가로 “세계의 평화와 진보”를 사는 유럽 민족들에게 프랑스는 “예수”와 같은 존재로서<sup>25)</sup> 유럽 민족을 결집하는 “세계의 축”<sup>26)</sup>으로 기능한다. 영국과 독일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천재성으로 프랑스를 도와 “다른 민족을 점차적으로 통합하는 지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것이다. 세 민족이 중심이 되어 당대의 지배적인 군사적 정복 대신 산업 발전에 기초하는 보편적 조직을 수립할 것이다.<sup>27)</sup>

[……] 우리의 일반 정치는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능력을 가장 완벽하게 대표하는 세 민족, 곧 사교적이고 공감적인 민족 프랑스 그리고 산업적이고 물질주의적 민족 영국 그리고 정신적이고 학자적인 독일의 연합 위에 이뤄졌다: 우리에게 눈에 유럽의 다른 민족 대부분은 몰락했다.<sup>28)</sup>

역사를 문명 간의 일련의 이주, 만남, 충격으로 이해하는 생시몽주의자로서 슈발리에에는 생시몽주의 특유의 계서적 문명 인식으로 역사를 이해한다.<sup>29)</sup> 프랑스를 중심에 두고 영국과 독일이 이끄는 유럽 민족은 문명 계서체의 높은 단계에 위치하여, 서양의 문명과 강제적 힘을 동원하여 동양을 “무지한 혼수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슈발리에의 서사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인 동양과 서양의 열등과 우월의 계서적 이분법을 확인할 수 있다. 문명의 역사에서 우월한 서양과 열등한 동양은 생시몽주의자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자 현실이다. 여기서 문명에 대한 생시몽주의자들의 계서적 이해는 단지 물질적 부분뿐만 아니라 윤리적·정신적 부분에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열등한 문명 또는 비(非)문명일 수도 있는 동양은 물질적·정신적으로 우월한 문명의 안내에 따라 새롭게 재생될 존재로 운명 지워진다. 생시몽과 마찬가지로 생시몽주의자들 역시 미래 전망의 중심은 유럽이며, “유럽 이외의 다른 중심”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sup>30)</sup>

25)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21.

26)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 18.

27) Francis Démier, “Les Europe des saint-simoniens”, p. 162.

28)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 16.

29) Antoine Picon, *Les saint-simoniens. Raison, imaginaire et utopie* (Paris: Belin, 2002), p. 21.

30) Philippe Régnier, *Les saint-simoniens en Égypte (1833-1851)*, p. 7.

“최고의 행동 인간”<sup>31)</sup> 생시몽주의자들은 생시몽주의 특유의 계서적 문명관과 오리엔탈리스트 이분법적 인식을 공유하며 인간의 삼위일체의 능력(산업, 과학, 윤리)에 따라 유럽 민족을 분류하고, 문명의 빛을 대표하는 유럽 민족이 동양으로 팽창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합법적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동양으로의 서양의 열정적 인간들의 방출”<sup>32)</sup>을 승인한다. 슈발리에에는 서구 민족의 문명화 사명의 실천 무대로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서양의 보편적 연합 네트워크를 설명하면서 동양에게는 어떤 임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동양은 유럽 민족 사업의 무대일 따름이다. 그러나 유럽 민족 각각에게는 동양과 달리 개별적으로 특수한 임무가 할당된다. 스페인에게는 “문명이 그것을 따라 흐르면서 잠든 스페인을 깨울 정맥과 동맥의 시스템”을 수립하는 임무를, 프랑스에게는 “영국에게 지중해 주변을 열어주는” 역할을, “산업의 여왕” 영국에게는 “폐허 더미 안에서 반은 매장된 동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서구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평화적 십자군”으로서 “지중해 민중들의 재생”을 안내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이탈리아에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사자(使者)”라는 시대적 미션을, 독일에게는 “지적 유대”를 수립하는 역할, 곧 “모든 민족을 통일로” 결집하여 “이 위대한 운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맡긴다.<sup>33)</sup> 물론 ‘지중해 시스템’은 동양에 관하여 침묵만을 유지하지는 않는다. 동양에 관한 언급은 동양 민족의 역할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동양의 풍광과 역사에 대한 묘사로 이뤄진다. 슈발리에에게 동양은 서양의 도움 없이는 과거에 묻힌 사막일 뿐이다. 동양은 수많은 민족이 “지나간 시적인 대지”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제국의 파편”으로 평탄하게 된 대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나간 영광의 몰락에서 기인하는 “먼지”로 뒤덮인 지역이다.<sup>34)</sup>

‘지중해 시스템’ 사업에서 유럽 민족은 사업의 주체이자 “저자”로서 제시되지만, 동양 민족들은 내부의 구분 또는 구별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의 균질한 덩어리, 집단으로서, 철도망과 수로망이 “즐거운 그림”을 제공할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캠퍼스와 같은 “공간”으로 간주된다.<sup>35)</sup> 이 위대

31) *Œuvres de Claude-Henri de Saint-Simon et d'Enfantin*, vol. 9 (Paris: E. Dentu, 1865-1876), p. 63.

32) *Ibid.*, p. 95.

33)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p. 136-141.

34) *Ibid.*, pp. 143-144.

35) *Ibid.*, p. 145.

한 ‘즐거운 그림’은 당연히 서구 민족이 그릴 것이다. 슈발리에의 ‘즐거운 그림’은 이후 식민주의 역사를 예고하는 듯하다.

### III. 자유주의 비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에밀 테미므(Émile Temime)는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을 생시몽주의자들의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의 사업 활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평가하면서, 오랫동안 프랑스인들에게 잊혔던 지중해라는 공간에서 일하게 될 미래의 엔지니어와 사업가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고 말한다.<sup>36)</sup>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산업을 정치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슈발리에의 신념이 담겨있다. 슈발리에에 제국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산업은 “최고의 정치적 사실(le fait politique par excellence)”로서 다뤄져야 하며, 당시 유럽을 지배하는 “전쟁의 이해관계”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산업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민족의 역량과 “천재성”을 결집하여 세계적인 산업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7)</sup>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이후의 생시몽주의자들의 동양 원정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감과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너무 오랫동안 잊혀졌던 세계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서양과 동양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화해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sup>38)</sup>

생시몽은 미국 혁명에서 유럽 사회의 미래를 보았으며 새로운 유럽 사회의 핵심적 특성을 ‘자유’로 정의한다. 생시몽이 전망한 ‘자유’는 형이상학적 원리가 투영된 추상적 인권이라기보다는 산업 활동의 실제적인 자유이다. 인간과 물자는 물론 지식과 독트린이 이동이 자유로운 세계가 생시몽

---

36) Émile Temime, “Rêves méditerranéens et présence française en Orient au milieu du XIX<sup>e</sup> siècle”, Michel Levallois et Sarga Moussa (dir.), *L’orientalisme des saint-simoniens* (Paris: Maisonneuve & Larose, 2006), p. 19.

37) Michel Chevalier, “Organisation industrielle de l’armée”(Le Globe, 8 mars 1832), *Religion saint-simonienne: Politique industrielle et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p. 8-10.

38) Émile Temime, “Rêves méditerranéens et présence française en Orient au milieu du XIX<sup>e</sup> siècle”, p. 19.

이 전망한 미래의 유럽 사회이다.<sup>39)</sup> 슈발리에에는 생시몽이 전망하는 미래의 산업 활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럽 민족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유럽 민족과 비유럽 민족, 동양과 서양 문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한다. ‘지중해 시스템’은 생시몽의 유럽 공동체 기획을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확장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네트워크가 아니다.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물질적인 연결(또는 유대)로서 산업 생산 중심 지역을 연결하는 육지에서의 철로와 운하와 강 그리고 바다의 항로로 구성되는 “교통로(des voies de transport)”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정신적 연결(또는 유대)을 상징하는 은행들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지중해를 무대로 진정한 “동양과 서양의 대문자 보편적 연합(l’ASSOCIATION UNIVERSELLE)”을 실현하고자 한다.<sup>40)</sup>

슈발리에에는 자신의 기획을 당대의 지배적 사상인 자유주의와 대비시키면서, 기원적으로 민족 간의 경쟁에 기반하는 자유주의는 “범세계주의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족들을 “적대적인 애국주의”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슈발리에에는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폭넓은 대중의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를 통하여 평화적인 보편적 연합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중해 시스템’은 자유주의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정치에 기인하는 세계적인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동·서양 민족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41)</sup> ‘지중해 시스템’은 당대에 경합하는 정치세력, 중도파, 정통왕조파, 자유주의파들과 구분되는 정치를 추구한다.

자유주의는 그것을 둘러싼 정파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배척한다;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선의 표본으로 믿으면서, 중도파와 정통왕조파는 악의 화신이라고 판결한다.

---

39) *L'Industrie*(1816-1818), *Henri Saint-Simon Œuvres complètes*, vol. II, Juliette Grange, Pierre Musso, Philippe Régner et Frank Yonnet(introduction, notes et commentaires) (Paris: Puf, 2012), pp. 1478-1480.

40)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31.

41)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p. 15-16.



자유주의의 진영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먼저 자유주의자들의 방식을 거부해야만 했다. 그 기원에서 우리의 정치는 자유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폭넓은 대중적인 공감(des sympathies populaires)이라는 특징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들 [자유주의자들]은 대중을 위해 **형이상학적인** 권리, 다소 수정된 **보통 선거**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대중들을 위해 **윤리적, 지적, 신체적** 질서에서의 향상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이 노동 도구와 생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면서 **신비주의적** 평등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는 모든 출생의 특권들은 **예외 없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2)</sup>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당대의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 경향과의 차별로 구성된다. 슈발리에에 당대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면서, 자유주의자와의 구분을 흐리게 하던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입장도 바꿨다. 생시몽주의자들은 민주주의 대의를 위한 자유주의자의 추상적 구호 대신 새로운 사회 조직을 앞당기는 실천의 문제를 자신들의 과업으로 설정했다. 산업을 통한 사회 조직이 진보이며, 이는 평화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그들 담론에서 전면에서 나서게 된다. 생시몽주의자들의 평화 담론은 구체제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나폴레옹 군사 체제는 물론, 당대의 공화주의자들의 보편 선거 대의와의 구분이자 단절이다. 스승 생시몽의 계서적 사회 인식을 이어받은 생시몽주의자들은 지배와 존경을 기반으로 하는 질서 유지의 관념을 존중하며 구체제의 폭력적 전복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명한다. 그들에게 평화는 산업의 발전 형식일 뿐 아니라 사회 질서의 근본적 성격 중의 하나인 계서적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에서도 자유주의와의 구분으로서 평화의 담론이 등장하며, 계서적 평화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슈발리에에 따르면, 전쟁은 유럽의 현재 위기를 종식시킬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슈발리에에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 속에서 번영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실증적 수단으로서 ‘지중해 시스템’ 기획을 제시한다. 슈발리에에 따르면, 현재 세계는 계속적인 진동 운동에 놓여 있으며, 세계는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균형을 찾으려 하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균형의 상태는 타민족에 대한 일부 민족의 억압에 기초하고, 각 민족 내에서 질서는 여러 계급에 대한 일부 계급의 착취에 기초하기 때문이다.<sup>43)</sup>

42) Ibid., pp. 15-16. 굵은 글씨로 강조된 부분은 본문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이다.

자유주의의 경쟁을 자연적 원리로 수용하며, ‘연합’보다는 추상적인 ‘자유’ 이념에 갇혀 고립된 유럽 민족에게 슈발리에에는 동양과 서양의 연합에 기반한 “최종적인 평화”를 약속하는 ‘지중해 시스템’ 기획을 제시한다.<sup>44)</sup>

새로운 정치는 각 민족의 장점을 인정한다. 이런 윤리의 물질적인 해석인, 지중해 시스템은 동양을 서양의 수레에 묶는 대신에 그들의 오랫동안의 잠에서 깨어나 행진하도록 그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찬양하고 세계의 왕관을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sup>45)</sup>

개인은 물론 민족 간의 경쟁을 장려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유럽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역시 다른 유럽 민족과 마찬가지로 세계에 대한 지배, 곧 억압에 기초하는 정치를 실행하고 있다.<sup>46)</sup> 산업의 발전이 개인은 물론 민족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회적 유대의 출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중해 시스템’은 생시몽의 유럽의 산업 공동체 기획을 계승한다. ‘지중해 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평화로운 사회적 유대는 인간의 이동과 물자의 수송을 위한 철도와 해양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모델”과 “보편적 평화”는 “서양과 동양 사이의 유대”와 “커뮤니케이션의 거대한 축들”, 곧 런던, 파리, 마르세이유, 수에즈 운하, 동양 위에 설립될 것이다.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민족들의 보편적인 연합’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 수립되는 “지중해 연방(*confédération méditerranéenne*)”이다.<sup>47)</sup>

#### IV. 철도 기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반목’, ‘긴장’, ‘대립’ 등으로 구성되는 생시몽주의 고유의 ‘역사의 역동적’ 인식을 보여준다. 칸트와 헤겔의 사상은 생시몽주의자들의 역사 이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칸트에

---

43)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19.

44) Ibid., p. 118.

45)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p. 17-8.

46) Ibid., p. 15.

47) Francis Démier, “Les Europe des saint-simoniens”, p. 163.

게서 차용한 ‘항쟁(antagonisme)’ 용어는 슈발리에의 글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칸트의 ‘항쟁’은 생시몽주의의 역사적 역동성 관념에 영감을 제공했고, 헤겔의 철학은 ‘역사적 초월’, 다시 말해 인류와 지구의 최종적인 유기적 통합의 성취라는 생시몽주의 미래 전망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48)</sup>

슈발리에에는 문명과 야만의 대립을 수용한다. 이는 칸트의 설명으로는 ‘자아주의(egotism)’와 ‘사회성(sociability)’의 대립을 의미하며, 슈발리에에게는 물질과 인간 정신 또는 물질적 세계와 인류 사이의 연결을 의미한다. “우주와 개인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삶의 연결은 슈발리에가 결코 버린 적이 없는 믿음이었다.”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정체적인 동양으로부터 생산적이고 진보적인 서양으로의 문명 이동과 “문명화된 북부와 야만의 남부의 역동적 긴장”을 함축하고 있다. 슈발리에에는 역사에서의 긴장 또는 항쟁은 역사를 이끄는 추동력으로서 자신의 시대에는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결과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지중해는 ‘동양과 서양의 결혼 침대’로서 동양과 서양의 합일을 상징한다.<sup>49)</sup>

슈발리에의 역사 인식은 앙팡탱이 주도하는 생시몽주의 종교에 근거를 둔다. 앙팡탱에게 신은 세계의 삶이 살아가는 원칙이며, 살아 있는 세계 그 자체, 곧 자연 자체이다. 앙팡탱은 공개적으로 정치적·산업적 “범신론”을 주장한다. 이런 교리적 입장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된다. 신이 세계와 동일하다면 세계에 대한 지식은 종교적 지식과 다르지 않다. “과학과 종교는 본질적으로 대립되지 않는다.” 종교의 어원적 의미로 말하자면, 인간을 ‘재-연결하는 것(re-lier)’은 인간을 ‘연합하는 것(associer)’이다. 이는 창조자가 인간을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 객관적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연합을 이루는 존재들의 본성으로부터 존재들 사이에서 수립되는 관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 문명의 역사를 구성하는 동양과 서양의 긴장과 항쟁은 두 세계의 본성(nature)들의 관계에 따라 서로에게 고유한 역사적 역할이 부여될 것이다.<sup>50)</sup>

48) Michael Drolet, “Industry, Class and Society A Historiographic Reinterpretation of Michel Chevalier”, p. 1253.

49) Ibid., pp. 1254-1256.

50) Loïc Rignol, “Le saint-simonisme et la théorie du croisement: Science des races et politique religieuse au XIX<sup>e</sup> siècle”, Pierre Musso (dir.), *L’actualité du saint-simonisme* (Paris: Puf, 2004), pp.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물질적·정신적 세계의 연결 또는 조직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문명의 연합을 설명한다. 사실 슈발리에에는 최초로 ‘네트워크’라는 근대 관념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생시몽주의 연구가 피에르 뮈소(Pierre Musso)에 따르면 본래부터 생시몽의 유럽 통합 관념은 프랑스 경계를 넘어 유럽적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미 간파했다. 생시몽의 “네트워크 이데올로기(l'idéologie des réseaux)”<sup>51)</sup>에 기반을 둔 유럽 시스템의 구상은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 기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생시몽은 초기 연구 시절부터 인간 유기체에 대한 학문 생리학을 사회를 분석하는 근본적인 기초로 파악했다. 사회에 대한 생시몽의 생리학적 문제의식은 그의 망(réseaux), 곧 네트워크 개념으로 나타나며, 운하의 물, 인간 신체에서의 혈액, 사회에서의 지식, 화폐, 존경, 인간과 물자의 ‘흐름’과 ‘순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구성한다. 생시몽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요소들의 순환과 이동, 활동,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52)</sup>

슈발리에에는 망 또는 네트워크라는 “근대적 관념”을 물질적 또는 정신적 유대로 정의한다. 슈발리에에게 네트워크는 물질적 사회기반시설과 비물질적 재정을 연합하는 기술이자 동시에 시스템을 형성하는 “정치-윤리적 작동자”이다.<sup>53)</sup>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그의 스승 앙리 생시몽의 모빌리티, 순환, 이동, 흐름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시스템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슈발리에 역시 생시몽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그리고 국제적 사회기반시설 네트워크를 인간 신체의 ‘정맥’과 ‘동맥’ 시스템에 비교하는 비유를 자주 사용했다.<sup>54)</sup> 생시몽은 유럽 의회와 같은 정치 제도를 통한 산업 시스템으로서의 유럽 공동체 구성을 전망했다면, 슈발리에에는 인적·물질적 물질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의 민족 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시스

---

278-283.

51) Pierre Musso, “Le philosophe du nouveau monde industriel”, Nathalie Coilly et Philippe Régner(dir.), *Le siècle des saint-simoniens*, p. 26.

52) Pierre Musso, *Saint-Simon et le saint-simonisme* (Paris: Puf, 1999). pp. 14-20.

53) Ibid., p. 109.

54) Michael Drolet, “Industry, Class and Society A Historiographic Reinterpretation of Michel Chevalier”, p. 1269.

템을 수단으로 지중해에서 동·서양 문명 공동체를 수립하고자 했다. 19세기 초 슈발리에가 구상한 지중해 세계에서 서양과 동양의 화해라는 꿈은 사물뿐만 아니라 과학, 산업, 예술, 곧 모든 문명의 교류를 지향하다.<sup>55)</sup>

슈발리에에 앙팡탱의 텍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수송과 같은 물질적인 네트워크와 은행 시스템과 같은 비물질적인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종류의 기술적 네트워크를 구분함과 동시에 이 둘의 상호의존을 강조한다. 네트워크는 동양과 서양, 곧 육체와 정신의 통합을 허용하는 생시몽주의 종교의 상징적이고 실천적 작동자가 된다. 네트워크는 기술적 대상이자 보편적 연합의 상징이다.<sup>56)</sup>

전체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보편적 연합이라는 상상은 특별한 유토피아가 아니며 모든 근대 유토피아 사상에 씨를 뿌린다. 그런 점에서 생시몽주의는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신화적 교단 내에서 사회적 유토피아를 기술적 유토피아로 전환시키는 모든 가능한 해석 중의 하나이다.<sup>57)</sup>

생시몽이 지향했던 평화적인 국제 질서 이념을 계승하는 슈발리에가 그리는 ‘지중해 연방’은 무엇보다 “가장 멀리 떨어진 대륙을 관통하고 개방하는 특권적인 도구”로서의 철도 네트워크의 기능을 강조하며, “커뮤니케이션 일반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지상로와 해상로의 연결을 제시한다.<sup>58)</sup> ‘지중해 시스템’은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아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세계적 사업으로서, 노동, 생산, 평화를 위한 “거대한 철도 네트워크”의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59)</sup>

생시몽주의 연구가 앙투안 피콩(Antoine Picon)의 말대로 ‘망’ 또는 ‘네트워크’라는 말은 본래 물고기나 동물을 잡는 그물을 의미했다. 이후 점차 식물과 같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조직을 의미하게 됐다. 19세기 초 이 용어는 동맥, 정맥, 신경의 작용을 설명하는 의학 분야에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수리학과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운하와 같은 교통

55) Émile Temime, *Un rêve méditerranéen*, pp. 11, 39.

56) Pierre Musso, *Saint-Simon et le saint-simonisme*, p. 109.

57) Ibid., p. 214.

58) Georges Ribeill, “Les chemins de fer: de la doctrine aux réalisations” in Nathalie Coilly et Philippe Régnier (dir.), *Le siècle des saint-simoniens: du Nouveau christianisme au canal de Suez*, p. 130.

59)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 24.

또는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일반화를 의미하게 된다. 사실상 슈발리에가 처음으로 철도에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적용했기 때문에,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네트워크 용어의 일반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60)</sup>

사실 슈발리에의 철도에 관한 관심은 생시몽주의 운동에 참여한 초기 시절부터 확인할 수 있다. 『르글로브』 편집을 맡았던 슈발리에에는 당시에 드물었던 철도 공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며 대중들에게 철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1831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철도에 대한 선전을 시작했다. 특히 슈발리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831년 12월 10일 기사는 7월 왕정 이래 주요 유럽 국가가 전쟁에 허비한 14억 프랑을 유럽 주요 도시들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면 유럽의 모든 수도를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중해 남부 항구도시 카디스(Cadix)를 출발하는 철로는 마드리드(Madrid), 툴루즈(Toulouse), 보르도(Bordeaux), 오를레앙(Orléans), 파리(Paris), 메츠(Metz), 프랑크푸르트(Francfort), 카셀(Cassel), 마그데부르크(Magdebourg), 베를린(Berlin), 포젠(Posen), 바르샤바(Varsovie), 빌나(Wilna, 빌뉴스Vilnius), 리가(Riga),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Pétersbourg)에 이른다. 그리고 앞의 거대한 철도 노선에 교차하여 바르셀로나-마드리드-리스본, 마르세이유-파리-르아브르, 브로츠와프-베를린-함부르크, 벨그라드-빈-프라하-드레스덴-베를린, 베니스-인스브루크-뮌헨-프라하, 모스크바-페테르부르크, 베니스-로마-나폴리, 토리노-밀란-베니스, 앙베르-브뤼셀-마인츠 선이 이어짐으로써, 총 14,000km 철도 네트워크가 완성될 수 있다. 슈발리에에는 이러한 철도 네트워크의 완성으로 유럽의 모습은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sup>61)</sup>

유럽 대륙 내부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보편적 연합의 가장 완벽한 상징”<sup>62)</sup>인 철도 네트워크는 대륙의 수로와 함께 지중해 연안의 주요 항구들과 연결되어 해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지중해의

60) Antoine Picon, *Les saint-simoniens. Raison, imaginaire et utopie*, pp. 234-235.

61) *Le Globe*, 10 décembre 1831. 다음에서 재인용. Wallon Maurice, *Les Saint-Simoniens et les chemins de fer* (thèse pour le doctorat, 1908), pp. 34-36.

62) *Ibid.*, p. 152.

주요 항구 도시는 대륙의 연결점 기능을 하면서 지중해 일반 시스템(Système Général) 전체가 작동할 수 있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sup>63)</sup> “대륙의 우애”<sup>64)</sup>에 기여하는 대륙의 철도로 연결되는 지중해는 슈발리에 기획의 중심 무대이며 민족들의 물질적·정신적 커뮤니케이션의 “거대한 광장(un vaste forum)”이 될 것이다.<sup>65)</sup>

그렇게 거대한 수로들 각각은 그것들과 대체로 평행하는 철도로 연장될 것이고, 수로와 철도의 흐름을 따라 이뤄질 인간과 물자의 거대한 이동은 서로 공유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철도는 사람과 가벼운 물자만을 수송하고, 무겁고 거대한 화물은 항해로 운반되도록 할 것이다.<sup>66)</sup>

엔지니어의 천재적 영감을 보여주는 ‘지중해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물질적 유대’와 함께 ‘정신적 유대’인 은행의 네트워크를 통해 완성되며, 정신적 힘과 물질적 힘의 증개 또는 연결을 보장한다.<sup>67)</sup> 산업자의 생산 활동으로 구성되는 산업은 생산 중심지들로 구성되며, 중심지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유대, 다시 말해 교통로의 유대 또는 연결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신적 유대, 다시 말해 은행의 유대로 통합된다.”<sup>68)</sup>

은행 네트워크와 교통로 네트워크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자는 지구에 대한 최선의 개발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편성되고, 후자는 바로 그에 따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인 요소들에서 결정된다.<sup>69)</sup>

## V. 맺음말

미셸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민족국가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 경제적·산업적 교류 네트워크를 통한 유럽 민족과 동양 민족의 통합 기획

---

63) Georges Ribeill, “Les chemins de fer: de la doctrine aux réalisations”, pp. 130–131.

64) *Ibid.*, p. 131.

65)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29.

66) *Ibid.*, p. 135.

67) Georges Ribeill, “Les chemins de fer: de la doctrine aux réalisations”, p. 162.

68)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31.

69) *Ibid.*, p. 131.

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슈발리에의 기획은 제국주의를 준비하는 시기 민족주의적 기획과는 차별을 두면서도, 서구 유럽 중심적 시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슈발리에 기획은 경쟁과 전쟁을 수용하는 당대의 자유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세계 경제 질서의 평화적 재편성에 관한 ‘지중해 시스템’의 전망은 문명에 대한 유럽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동양에 대하여 과편, 쾌락, 관능, 먼지, 폐허, 잔해 등과 같은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스트 이미지를 재생산했다. ‘지중해 시스템’은 앙팡탱이 생시몽주의 교리의 핵심축으로 구성한 ‘보편적 연합’ 독트린의 산업적·윤리적 정교화로서, 유럽중심주의적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두고 유럽 민족의 동양 진출을 권장하며 그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생시몽이 구상했던 영국과 프랑스 민족이 주도하는 의회 중심의 유럽 공동체 기획과 비교할 때, 슈발리에의 기획은 계승과 동시에 차이를 보여준다. 두 기획은 모두 문명 진보의 운동 역사에 기반을 두는 낙관적인 미래 공동체 전망을 보여준다.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생시몽의 유럽 공동체 기획을 지중해 중심의 지구적 기획으로 확장한다. ‘지중해 시스템’은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크와 은행 네트워크의 수립을 통해 동·서양 문명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유럽 중심주의적 기획으로서 미래 신민주의 또는 제국주의를 예고한다. 생시몽 역시 영국과 프랑스 민족 주도하는 유럽 공동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조직 수립을 통한 산업 네트워크 수립하고자 했다. 슈발리에에는 산업을 뚜렷하게 정치 전면에 내세우며 생시몽주의 교리에 따라 유럽과 비유럽을 통합하는 거대서사 ‘보편적 연합’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철도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또는 모빌리티 네트워크로 실현하고자 했다. 슈발리에 기획은 이후 서구인이 지중해서 펼친 식민과 제국을 포함한 많은 활동에 영감을 제공한다.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mistoire@naver.com

#### 주제어(Key Words)

미셸 슈발리에(Michel Chevalier), 지중해 시스템(Mediterranean System), 생시몽주의(Saint-Simonism),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미셸 슈발리에(Michel Chevalier)의 공동체적 상상력

(Communication Network), 보편적 연합(Universal Association)

투고일: 2023.04.20. 심사일: 2023.05.17. 게재확정일: 2023.05.19.

<국문초록>

미셸 슈발리에의 공동체적 상상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지중해 시스템'

양재혁

이 글은 미셸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 기획을 살펴본다. 생시몽의 유럽 공동체 기획을 지중해 중심의 지구적 공동체 기획으로 확장하는 '지중해 시스템'은 철도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로 구성되는 물질적 네트워크와 은행이 대표하는 정신적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동양과 서양의 보편적 연합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생시몽주의의 고유한 미래 전망이다. 생시몽 역시 영국과 프랑스 민족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조직 수립을 통한 산업 네트워크 수립하고자 했다. 슈발리에에는 산업을 뚜렷하게 정치 전면에 내세우며 생시몽주의 교리에 따라 유럽과 비유럽을 통합하는 거대 서사 '보편적 연합'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철도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실현하고자 했다. 슈발리에 기획은 이후 서구인의 식민과 제국을 포함하는 지중해 활동에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

<Abstract>

**Michel Chevalier's Communal Imagination:  
'Mediterranean System' Communication Network**

**Yang, Jae Hyuk**

This article examines Michel Chevalier's idea of the 'Mediterranean System'. Expanding from Saint-Simon's European Community plan to a Mediterranean-centered global plan, the 'Mediterranean System' envisions a community composed of material networks such as railways and social infrastructure, as well as spiritual networks represented by the banks. The unique, futuristic project of Saint Simon seeks to build a universal utopia by associating the Orient and the Occident. Thus, Saint-Simon aimed to establish an industrial network through making of a political organization of the European Union, led by England and France; whereas Chevalier prominently emphasized the industrial aspect within the political forefront, with the goal of realizing the grand narrative of the 'Universal Association' that integrates Europe and non-Europe. This vision reflects the era through a communication network centered around the 'railway network'. Chevalier's plan provided significant inspiration for the subsequent activities in the Mediterranean world, including the colonization and empire-building endeavors made by the following Western powers.

## 참 고 문 헌

### 1. 사료

*Henri Saint-Simon Œuvres complètes*, vol. I~IV, Juliette Grange, Pierre Musson, Philippe Régnier et Frank Yonnet (introduction, notes et commentaires) (Paris: Puf, 2012).

*Œuvres de Claude-Henri de Saint-Simon et d'Enfantin* (Paris: E. Dentu, 1865~1876).

Michel Chevalier, *Religion saint-simonienne: Politique industrielle et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aris: Bureaux du Globe, 1832).

Philippe Régnier(Édition, introduction et notes), *Le livre nouveau des Saint-Simoniens: Manuscrit d'Émile Barrault, Michel Chevalier, Charles Duveyrier, Prosper Enfantin, Charles Lambert, Léon Simon et Thomas Ismayl Urbain (1832-1833)* (Tusson, Charente: Du Lérot, 1991).

*Le Globe*.

### 2. 단행본

육영수, 『근대 유럽의 설계자. 생시몽·생시몽주의자』 (서울: 소나무, 2022).

Braudel, Fernand, 강주현 역, 『지중해의 기억』 (과주: 한길사, 2006).

Braudel, Fernand, 주경철·조준희 역,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서울: 까치, 2017).

Carpentier, Jean and Lebrun, François, 강민정·나선희 역, 『지중해의 역사』 (과주: 한길사, 2006).

Coilly, Nathalie, and Régnier, Philippe (dir.), *Le siècle des saint-simoniens: du Nouveau christianisme au canal de Suez* (Paris: Bnf, 2006).

Levallois, Michel and Moussa, Sarga (dir.), *L'orientalisme des saint-simoniens* (Paris: Maisonneuve & Larose, 2006).

Louca, Anouar, *L'autre Égypte de Bonaparte à Taha Hussein* (Le Caire: IFAO, 2006).

Maurice, Wallon, *Les Saint-Simoniens et les chemins de fer* (thèse

pour le doctorat, 1908).

Musso, Pierre, *Saint-Simon et le saint-simonisme* (Paris: Puf, 1999).

Musso, Pierre (dir.), *L'actualité du saint-simonisme, Colloque de Cerisy* (Paris: Puf, 2004).

Régnier, Philippe, *Les saint-simoniens en Egypte (1833-1851)* (Le Caire: Banque de l'Union Européenne, Amin Fakhry Abdelnour, 1989).

Picon, Antoine, *Les saint-simoniens. Raison, imaginaire et utopie* (Paris: Belin, 2001).

Temime, Émile, *Un rêve méditerranéen: Des saint-simoniens aux intellectuels des années trente (1832-1962)* (Marseille: ACTES SUD, 2002).

Walch, Jean, *Michel Chevalier, économiste saint-simonien 1806-1879* (Paris: J. Vrin, 1975).

### 3. 논문

김용우, 「프랑스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MuCEM)의 지중해주의」, 『역사와세계』, 54호(2018), 93~118쪽.

최혜영, 「고대 지중해 식민 활동과 여성」, 『서양고대사연구』, 52호(2018), 107~143쪽.

Drolet, Michael, "Industry, Class and Society: A Historiographic Reinterpretation of Michel Chevalier",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123:504(2008), pp. 1229-1271.

Walch, Jean, "Problèmes Saint-Simoniens et problèmes contemporains: Le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de Michel Chevalier",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Étranger*, 153(1963), pp. 421-439.

### 4. 인터넷자료

<https://www.hellenicaworld.com/Greece/Person/en/Hecataeus.html> (검색일: 2023년 04월 15일).

<https://www.societe-des-etudes-saint-simoniennes.org/chevalier> (검색일: 2023년 04월 15일).

## 이주민의 순이동률 변동에 대한 국가취약지수의 영향 분석\*

최 강 화

### I. 머리말

인간의 이주 및 이민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주 또는 이민은 주로 경제적 목적이나 정치적 자유로움, 사회적 안정, 보다 좋은 교육 환경, 어메니티(amenity) 환경의 우수성 등의 매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다 더 질 좋은 삶 그리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인간은 이러한 기본적 욕구의 발현을 위해 더 나은 국가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범 세계화가 보편타당해지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인구의 글로벌 이주 및 이민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국내외적으로 글로벌 이주 또는 이민과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국외 연구로는 Haas et al. (2019)와 Bansak et al. (2021), Simpson (2022)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신상화 (2016)와 최강화와 오병섭(202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글로벌 이주 및 이민의 촉발 요인이 무엇이고, 인간의 글로벌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Simpson (2022)의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적 요인으로써 소득 차별 및 소득 불균형 그리고 실업률 등과 같은 요인들이 국가 간 이주를 가속화시키는 촉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이주를 억제하는 장애요인으로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24)

이주관련 비용(migration costs)과 이주국의 이주정책(immigration policy) 그리고 이주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Bansak et al. (2021)은 이주와 관련한 배출 요인(push factors)과 흡인 요인(pull factors)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국가에서의 배출 및 흡인 요인들과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사분면의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이주와 관련된 이주국이나 배출국의 이주 결정요인을 설명하였다.

	배출요인(Push Factors)	흡인요인(pull Factors)
경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난/저임금</li> <li>• 높은 세율</li> <li>• 높은 실업률</li> <li>• 인구 과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수요</li> <li>• 높은 임금</li> <li>• 높은 의료 및 교육 서비스</li> <li>• 강한 경제성장</li> <li>• 적은 생활비</li> <li>• 높은 기술 수준</li> </ul>
비경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li> <li>• 열악한 의료 시스템</li> <li>• 전쟁과 압박</li> <li>• 부패</li> <li>• 범죄</li> <li>• 강제적 군대 복무</li> <li>• 팬데믹</li> <li>• 환경/기후 위기</li> <li>• 기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및 친구 네트워크</li> <li>• 재산권</li> <li>• 권리와 자유</li> <li>• 법률과 질서</li> <li>• 자연경관</li> <li>• 문화와 언어</li> </ul>

<표 1> 이주의 결정요인<sup>1)</sup>

최근의 최강화와 오병섭(2020)의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를 토대로 글로벌 이주와 관련하여 노동의 질이나 사회·문화의 질을 포괄한 이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순환적 인과관계를 제시하였고, 신상화(2016)의 연구에서는 OECD의 국제이주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이민 거주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거주국 결정에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주민의 이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이주민들이 글로벌 이주 또는 이민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으로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한 삶이 가능한 국가로 이동하려

1) Cynthia Bansak, Nicole Simpson, Madeline Zavodny,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Oxford: Routledge, 2020).

는 것이고, 둘째는 정치적·사회적·환경적으로 보다 행복한 삶이 가능한 국가로 이동하려는 것이다. 즉,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민들은 현재 거주국과 이주 거주국과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이주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사회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주는 글로벌 평가지표들은 다수이다. 그 중에서 국가취약지수(Fragile States Index)는 국가의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국가 평가지표 중의 하나이다. 이 지표는 평화기금회(Fund for Peace)와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서 매년 공표하는 국가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한 국가의 국가 내 응집성, 정치, 경제, 사회 및 국제 관계 등의 다섯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국가의 취약성을 측정한다. 또한, 측정된 지표 값을 기준으로 국가의 취약성을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개별 국가별 취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가취약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국가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다수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 국가취약지수가 높은 국가로 이주하는 전입 이주민은 작을 것이고 반대로 다른 안정된 국가로의 전출은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 국가로 전입하는 이주민 수보다 다른 국가로 전출하는 이주민의 수가 많아서 순이동률(net migration rate)은 음(-)의 값을 보이게 된다. 반대로, 국가취약지수가 낮게 되면,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취약지수가 낮은 국가로의 인입 이주는 증가하게 되고 다른 국가로의 전출 이주는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의 순이동률은 양(+ )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취약지수와 이주민의 순이동률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취약지수가 이주민의 국제 이주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다섯 개의 국가취약지수를 원인조건(causal condition)으로 설정하고 이주민의 순이동률을 결과 조건(outcome condition)으로 설정하여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 결합 원인조건(multi-conjunctural causation)의 배열조합을 찾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집합 이론(set-theoretic)의 관점에서 국가의 취약성



관련 주요 원인조건들이 이주민의 순이동률이라는 결과 조건에 충분조건인 결합적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원인조건과 결과조건 간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과조건(complex causation) 배열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과조건들의 배열 조합을 제시해 줄 것이다.

## II. 국가취약지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

미국의 평화기금회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공동으로 2005년부터 매년 국가의 취약 정도를 측정한 국가취약지수(FSI)를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취약지표는 전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정당성과 인권, 치안, 경제상황, 인구력 등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개별 국가의 취약성을 측정한 지표이다. 여기서 취약성(fragile)은 상처, 손상, 연약함, 약점, 불안정성 및 유한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러한 국가취약지수는 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국제관계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시스템들이 불안정하다거나 위협에 노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분류	중분류	지표 설명
응집력 지표 (Coh)	① 치안 유지 (Security Apparatus)	민간의 군대통제, 반군존재여부, 경찰력 유지 및 통제여부 등
	② 지도층 파벌 (Factionalized Elites)	선출직 대표, 지도층 리더십, 부의 배분정도, 법적 평등여부 등
	③ 집단 간 갈등 (Group Grievance)	갈등 후 화해 여부, 피해자 보상, 전범 기소, 갈등 폭력 여부 등
경제적 지표 (Eco)	④ 경제쇠퇴 (Economic Decline)	정부부채, 금리, 생산성, GDP, 실업률, 경제전망, 비즈니스 환경 등
	⑤ 개발 불균형 (Uneven Development)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기회, 사회경제적 역학 등
	⑥ 인제 유출 (Human Flight and Brain Drain)	전문직 및 숙련노동자 이주, 정치인 출국, 해외송금 규모 등
정치적 지표 (Pol)	⑦ 국가 정당성 (Legitimacy of the State)	정부신뢰도, 시위보장, 폭동여부, 부패투명성,

		정치개방성 등
	⑧ 공공 서비스 (Public Services)	일반 공공서비스, 건강, 교육, 주택공급 및 비용, 인프라 등
	⑨ 인권과 법치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언론자유, 이동자유, 종교자유, 고민 및 권리침해 여부 등
사회적 지표 (Soc)	⑩ 인구 압박 (Demographic Pressures)	인구증가율 및 밀도, 유아사망률, 공중보건, 식량, 환경 등
	⑪ 난민과 국내 실향민(Refugees and Internally-Displaced Persons)	난민유입규모, 난민수용능력, 난민대상폭력, 실향민 등
외부개입 지표 (Ext)	⑫ 외부 개입 (External Intervention)	외부세력의 정치개입, 외국군 주둔여부, 해외군사교류, 경제의존 등

(출처: <https://fragilestatesindex.org/indicators/>)

<표 2> 국가취약지표의 분류와 지표 설명

일반적으로 국가취약지수(FSI)은 응집성 지표(cohesion indicators), 경제적 지표(economic indicators), 정치적 지표(political indicators), 사회적 지표(social indicators) 그리고 외부개입 지표(cross-cutting indicators) 등과 같이 크게 다섯 개의 주요 카테고리(category)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개념들은 총 12개의 개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12개 지표들은 각 지표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집성 지표는 치안 유지(security apparatus)라든지 지도층 파벌(factionalized elites) 그리고 집단 간 갈등(group grievance)과 같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지표들은 다시 각각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섯 개의 취약국가지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응집력 지표는 치안 유지, 지도층 파벌, 그리고 집단 간 갈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적 지표는 경제 쇠퇴, 개발 불균형, 그리고 인재 유출의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 지표는 국가 정당성과 공공 서비스 그리고 인권과 법치와 같은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적 지표에는 인구 압박 및 난민과 국내 실향민 등과 같은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개입 지표는 외부 세력의 정치 개입이나 외국군 주둔 여부 그리고 타국에의 경제 의존도 등과 같은 단일 지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12개의 개별 국가취약지수는 10점 만점의 척도로 평가되며, 가장 취약이 큰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하며,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작은 경우에는 0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총 12개의 개별 지표 점수들을 모두 합산하여 국가의 취약성을 측정하고 국가별 취약성 순위를 결정한다. 총점 120점을 기준으로 국가취약지수는 점수대 별로 지속 가능군(sustainable, 30점 이하), 안정군(stable, 30점 초과 60점 이하), 경고군(warning, 60점 초과 90점 이하), 그리고 위험군(alert, 90점 초과) 등과 같은 네 개의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한다. 즉, 국가취약지수가 클수록 취약성이 높은 불안정한 국가가 되고, 국가취약지수가 작을수록 안정되고 약점이 없는 강건한 국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국가취약지수가 크게 되면 자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지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고, 국가의 존립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자국민이 해외로 이주나 이민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총 전출(total emigration)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취약국가로 이주하거나 이민을 오는 총 전입(immigration)은 줄어들게 되어 궁극적으로 취약국가로의 유입 대비 취약국가로부터의 유출 비율이 높아 이주의 순이동률은 음(-)의 값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이주민의 순이동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도출된다. 즉, 국가 간 순이동률은 인구 1,000명당 해당국가로의 전입자 수(immigrants)에서 다른 국가로의 전출자 수(emigrants)를 뺀 순이동자 수를 해당년도 중간에 추정된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해당년도의 순이동률은 한국으로 이주 또는 이민 오는 사람이, 같은 기간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보다 더 많으면, 순이동률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보다 다른 해외 국가로 떠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순이동률은 감소(-)하게 된다.

$$1,000 \times \frac{(I - E)}{P}$$

(단,  $N$  = 순이동률,  $E$  = 유출 이주민수(emigration),

$I$  = 유입 이주민수(immigration),  $P$  = 중간년도 추정 인구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국가취약지표들이 이주민의 순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세부항목 값을 합산하여 다섯 개의 개별 국가취약지표 값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다섯 개의 지표 값들을 이주민의 순이동률이라는 결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 (causal conditions)으로 파악하였다.

### III. 국가취약지표와 순이동률의 자료 특성

다음의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162 개국의 2019년 국가 취약성 관련 지표들과 순이동률에 대한 기술 통계학 값들이다. 우선, 응집력 및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외부 개입지표들은 값이 클수록 국가취약성이 크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로서의 최종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국가취약성지표 값들이 작을수록 국가의 붕괴나 실패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 국가 인입 이주가 인출 이주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순이동률은 양(+ )의 값을 가지고, 반대인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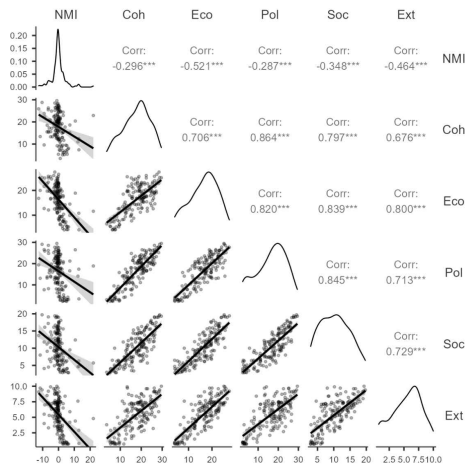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에 필요한 눈금매기기 (calibration)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95%-50%-5%의 백분위수(percentile)를 이용하여 원자료(raw data) 값을 0부터 1사이의 소속 점수(membership score)로 변환하였다 (Woodside, 2013). 즉, 본 연구에서는 완전소속(95%)–분기점(50%)–완전비소속(5%)에 해당되는 백분위 값을 소속 점수의 기준값으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취약성 관련 지표들과 순이동률의 백분위 값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의 <표 3>와 같다.

이주민의 순이동률 변동에 대한 국가취약지수의 영향 분석

	순이동률 (NMI)	응집력 지표 (Coh)	경제적 지표 (Eco)	정치적 지표 (Pol)	사회적 지표 (Soc)	외부 개입 (Ext)	
평균	-0.109	17.848	16.438	16.518	10.362	5.462	
표준편차	4.165	6.194	5.789	7.221	4.445	2.48	
최솟값	-12.523	3.5	4.1	2.3	2.9	0.7	
최댓값	22.027	29.6	27.4	29.5	19.7	10.0	
백분위	5%	-6.471	7.0	5.625	3.1	3.505	0.9
	50%	-0.285	18.85	17.2	17.65	10.25	5.85
	95%	5.89	27.075	25.0	26.49	17.69	9.195

<표 3> 국가취약지표와 순이동률 자료의 기술 통계학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취약지표들과 순이동률 간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단,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1> 국가취약지표와 순이동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표의 첫 번째 열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가취약지표들과 순이동률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0.001의 유의수준 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이주민의 순이동률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국가취약지표는 경제적 지표(  $\rho = -0.521$ )이었으며, 가장 작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국가취약지표는 정치적 지표( $\rho = -0.287$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3.1 질적비교분석(FsQCA)을 위한 진리표(truth table) 작성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응집력 지표, 경제적 지표, 정치적 지표, 사회적 지표, 그리고 외부 개입이라는 다섯 개의 취약국가의 원인 조건과 순이동률이라는 결과 변수들 간의 원인조건 조합 배열을 도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약국가지수와 관련된 다섯 개의 원인조건에 부합하는 개별 국가 사례들과 이에 해당되는 결과값의 퍼지셋 소속 점수를 기반으로 총 32( $2^5$ )개의 데이터 행렬표를 만들었다. 또한, 충분조건 포함 절삭점(inclusion cut-off: incl)과 PRI 절삭점의 기준 값을 기반으로 다음의 <표 3>와 같은 총 24개의 원인조건 배열의 진리표(truth table)을 도출하였다. 일부 원인조건은 해당하는 개별 국가의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포함 절삭점과 PRI 절삭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Coh	Eco	Pol	Soc	Ext	OUTPUT	n	incl	PRI
0	0	0	0	0	1	43	0.864	0.725
0	0	0	0	1	0	8	0.885	0.428
0	0	1	0	0	1	4	0.915	0.560
0	0	1	0	1	0	1	0.917	0.495
0	1	0	0	0	0	2	0.889	0.292
0	1	0	0	1	0	5	0.831	0.225
0	1	0	1	0	0	3	0.92	0.411
0	1	0	1	1	0	4	0.857	0.207
0	1	1	1	0	0	1	0.925	0.447
0	1	1	1	1	0	9	0.847	0.222
1	0	0	0	1	0	4	0.901	0.405
1	0	0	1	0	1	1	0.936	0.511
1	0	0	1	1	0	3	0.899	0.406
1	0	1	0	0	1	6	0.921	0.579
1	0	1	0	1	0	2	0.909	0.493
1	0	1	1	0	1	4	0.929	0.566
1	0	1	1	1	0	3	0.896	0.416
1	1	0	0	0	0	1	0.911	0.365
1	1	0	0	1	0	1	0.875	0.269
1	1	0	1	0	0	4	0.923	0.461

1	1	0	1	1	0	1	0.877	0.298
1	1	1	0	0	0	3	0.895	0.357
1	1	1	0	1	0	1	0.860	0.259
1	1	1	1	0	0	9	0.884	0.386

<표 4> 국가취약지표의 원인조건 및 결과의 진리표

<표 4>의 진리표에서 충분조건 포함 절삭점(incl cut-off) > 0.8과 PRI 절삭점(cut-off) > 0.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결과 값은 결과의 존재(present)인 1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인조건 배열에 대해서는 결과의 부재(absent)인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각각의 원인조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 $\sim\text{Coh} * \sim\text{Eco} * \sim\text{Pol} * \sim\text{Soc} * \sim\text{Ext}$ 」의 원인조건 배열을 만족하는 사례는 총 43개가 있으며, 「 $\text{Coh} * \sim\text{Eco} * \text{Pol} * \sim\text{Soc} * \sim\text{Ext}$ 」의 원인조건 배열을 가진 사례는 6개가 있다. 또한, 「 $\sim\text{Coh} * \sim\text{Eco} * \text{Pol} * \sim\text{Soc} * \sim\text{Ext}$ 」의 원인조건과 「 $\text{Coh} * \sim\text{Eco} * \text{Pol} * \text{Soc} * \sim\text{Ext}$ 」의 원인조건 배열을 가진 사례는 각각 4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 $\text{Coh} * \sim\text{Eco} * \sim\text{Pol} * \text{Soc} * \sim\text{Ext}$ 」의 원인조건 배열은 1개가 있다. 이와 같이 5개의 원인조건 배열들은 모두 충분조건 포함 절삭점 기준이나 PRI 절삭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원인조건 배열로 이러한 원인조건은 결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다섯 개의 원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인조건 배열들은 충분조건 포함 절삭점(inclusion cut-off)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PRI 절삭 기준점을 충족하지 못해 결과 값에 부재에 해당되는 값(0)을 부여하였다.

### 3.2 필요조건 분석(necessary condition analysis)

진리표의 작성 이후에 다섯 개의 원인조건 중에서 결과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원인조건을 찾고, 이러한 핵심 원인조건 배열을 논리적 최소화 과정(logical minimization process)을 통해 최종 논리식에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별 원인조건이 논리적 최소화 과정을 통해 최종 논리식에

반드시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치성(consistency)은 0.9 이상(consistency  $\geq$  0.9)의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개별 원인조건은 결과 값의 상위 집합(superset)이 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설명력(coverage)은 0.6 이상(coverage  $\geq$  0.6)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원인조건	NMI		~NMI	
	Consistency	Coverage	Consistency	Coverage
Coh	0.616695	0.633579	0.732022	0.730467
Eco	0.583840	0.582777	0.804310	0.779789
Pol	0.621076	0.613757	0.745803	0.715849
Soc	0.593088	0.610012	0.733901	0.733166
Ext	0.589194	0.596452	0.784515	0.771372

원인조건	NMI		~NMI	
	Consistency	Coverage	Consistency	Coverage
~Coh	0.737649	0.739178	0.632799	0.615900
~Eco	0.779387	0.803941	0.569657	0.570729
~Pol	0.712460	0.742643	0.597595	0.605023
~Soc	0.740569	0.741291	0.609622	0.592692
~Ext	0.774154	0.787181	0.589577	0.582282

<표 5> FsQCA의 필요조건 분석(necessary condition analysis)

다음의 <표 5>와 같은 필요조건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별 원인조건  
의 존재(1) 및 부재(0)의 상태에서 결과 값의 존재(NMI)와 부재(~NMI)  
에 일치성(consistency) 기준과 설명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 원인  
조건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NMI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원인조건 중에서는 ~Eco(0.779)와 ~Ext(0.774)의 일치성  
이 가장 높았고, 또한 ~NMI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 중에서는  
Eco(0.804)와 Ext(0.784)의 일치성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인조건들도 기준값인 0.9를 초과하질 못해 최종 논리식에 필요불가결한  
필수 요소라고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원인조건은  
설명력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일치성의 기준을 만족하는 원인조건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 논리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원인조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논리적 최소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 IV. FsQCA 분석 결과 및 해석

국가취약지표와 순이동률 간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분석을 살펴보면, <표 6>의 최소 간결해(parsimonious solution)의 결과에서는 「 $\sim$ 경제적 취약성(Eco) \*  $\sim$ 외부 간섭(Ext)  $\rightarrow$  NMI」의 원인조건 배열이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원인조건 배열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적 취약성과 외부 간섭의 부재(absent)가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순이동률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취약성과 동시에 외부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원인조건 배열이 최소 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원인조건 배열의 충분성 포함 질삭값(sufficiency inclusion score: incluS)은 0.842이고, 원시 설명력에 해당되는 covS (coverage score) 값은 0.689로 분석되었다.

	inclS	PRI <sup>2)</sup>	covS	covU
$\sim$ Eco * $\sim$ Ext	0.842	0.690	0.689	-

<표 6> 최소 간결해(Parsimonious Solution)의 결과

다음으로 복잡해(complex solution)의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원인조건 배열이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의 원인조건 배열(M1)은 「 $\sim$ Coh \*  $\sim$ Eco \*  $\sim$ Soc \*  $\sim$ Ext + Coh \*  $\sim$ Eco \* Soc \*  $\sim$ Ext + (Coh \*  $\sim$ Eco \* Pol \*  $\sim$ Ext)」이고, 두 번째 원인조건 배열(M2)은 「 $\sim$ Coh \*  $\sim$ Eco \*  $\sim$ Soc \*  $\sim$ Ext + Coh \*  $\sim$ Eco \* Soc \*  $\sim$ Ext + ( $\sim$ Eco \* Pol \*  $\sim$ Soc \*  $\sim$ Ext)」이다.

- 2) PRI(proportional reduction in inconsistency) 일치성은 부분 집합(subset)의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로, 기존의 원시 일치성과 더불어 fsQCA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진리표 변환의 기준점이다. 이러한 PRI 일치성은 불일치성의 비율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의 배열 조건이 결과의 부재('0')을 충분히 설명할 만큼 결과의 존재('1')를 설명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M1):  $\sim\text{Coh} * \sim\text{Eco} * \sim\text{Soc} * \sim\text{Ext} + \text{Coh} * \sim\text{Eco} * \text{Soc} * \sim\text{Ext} + (\text{Coh} * \sim\text{Eco} * \text{Pol} * \sim\text{Ext}) \rightarrow \text{NMI}$
- (M2):  $\sim\text{Coh} * \sim\text{Eco} * \sim\text{Soc} * \sim\text{Ext} + \text{Coh} * \sim\text{Eco} * \text{Soc} * \sim\text{Ext} + (\sim\text{Eco} * \text{Pol} * \sim\text{Soc} * \sim\text{Ext}) \rightarrow \text{NMI}$

우선, (M1)과 (M2)의 두 개 원인조건 배열에 공통으로 포함된 원인조건 배열은 「 $\sim\text{Coh} * \sim\text{Eco} * \sim\text{Soc} * \sim\text{Ext} + \text{Coh} * \sim\text{Eco} * \text{Soc} * \sim\text{Ext}$ 」이다. 즉, 응집력 취약성과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그리고 외부 간접의 부재(absent)가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응집력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존재(present)하고 경제적 취약성과 외부 간접이 부재하면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통적 원인조건 배열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원인조건 배열인 (M1)에는  $\text{Coh} * \sim\text{Eco} * \text{Pol} * \sim\text{Ext}$ 의 원인조건이 포함된다. 또한 두 번째 원인조건 배열인 (M2)에는  $\sim\text{Eco} * \text{Pol} * \sim\text{Soc} * \sim\text{Ext}$ 의 원인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M1)에서는 응집력 취약성과 정치적 지표가 존재하고 경제적 취약성과 외부 개입이 없으면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M2)에서는 정치적 지표가 있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지표가 없으며 외부 개입이 없는 원인조건에 이주민의 순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inclS	PRI	covS	cov U	(M1)	(M2)	Case
$\sim\text{Coh} * \sim\text{Eco} * \sim\text{Soc} * \sim\text{Ext}$	0.861	0.723	0.593	0.286	0.316	0.286	Denmark, Finland, Australia, Canada, Norway, Switzerland, NewZealand, Ireland, Sweden, Singapore, Luxembourg, Netherlands, UAE, Slovenia, Germany, Portugal, Belgium, Malta, Austria, France
$\text{Coh} * \sim\text{Eco} * \text{Soc} * \sim\text{Ext}$	0.930	0.578	0.326	0.002	0.002	0.035	Thailand, Turkey, Indonesia, Brazil, Mexico
$\text{Coh} * \sim\text{Eco} * \text{Pol} * \sim\text{Ext}$	0.909	0.577	0.351	0.000	0.014		Thailand, SaudiArabia, China, Turkey, Bahrain, Kazakhstan, Russia, Mexico, Brazil, Turkmenistan,
$\sim\text{Eco} * \text{Pol} * \sim\text{Soc} * \sim\text{Ext}$	0.913	0.603	0.347	0.000		0.014	China, SaudiArabia, Bahrain, Kazakhstan, Russia, Vietnam, Cuba, Turkmenistan, Malaysia, DominicanRepublic

M1	0.861	0.716	0.677
M2	0.862	0.719	0.676

<표 7> 복잡해(Complex Solution)의 결과

이러한 원인조건에 부합하는 개별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 7>의 「~Coh \* ~Eco \* ~Soc \* ~Ext」의 원인조건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아시아의 성공국가(싱가폴, UAE 등)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Coh \* ~Eco \* Soc \* ~Ext」의 원인조건에는 아시아 권역의 태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남미 국가인 브라질,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경제적 취약성과 외부 개입이 낮고, 반대로 응집력 지표나 정치적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다. 한편,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의 국가들은 경제적 취약성이나 사회적 취약성 그리고 외부 개입은 매우 낮은 편이나 정치적 취약성은 상존해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Eco \* Pol \* ~Soc \* ~Ext).

따라서, 개별 원인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국가들은 국가별 고유성이나 개별 국가들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을 찾고, 이러한 원인조건의 개선을 통해 개별 국가의 순이동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 V. 결론 및 연구 시사점

본 연구는 미국의 평화기금회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서 매년 공동으로 공표하는 국가취약지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stats.oecd.org)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주민의 국가간 순이동률(net migration index)의 지표를 활용하여 다섯 개의 국가취약지수 중에서 어떠한 원인요인 배열들이 이주민의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분석 방법과 차별화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국가취약지수와 순이동률 간의 원인조건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론적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제 이주에 선행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요인들을 도출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면(신상화, 2016), 본 연구에서는 집합이론(set-theoretic)의 관점에서 국가의 주요 영역별 취약성의 존재(present) 및 부재(absent)가 이주민의 국가 간 순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국가취약지수를 원인조건으로 하고 이주민의 순이동률을 결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적 관계를 살펴본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존의 일부 연구는 국가의 취약성 지수를 활용하여 이러한 국가취약지수가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성장회귀분석을 활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송철중, 2021).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다양한 영역의 취약성이 높을수록 이주률에 역(-)의 상관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주율이라는 결과 조건과 국가 취약성 지수라는 원인 조건과의 결합적 인과관계(conjunctural causality)를 살펴보았다는 점이 연구의 의의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럽이나 아시아의 선진국가들의 순이동률이 높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은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의 순이동률은 아주 낮은 음(-)의 순이동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1,000명 당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91.73), 싱가포르(74.91) 스위스(47.80) 그리고 노르웨이(46.96)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엘살바도르(-39.59), 리비아(-79.84), 시리아(-201.71) 등의 국가들은 매우 낮은 순이동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이주민의 순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연구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기간 설정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

3)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sovereign\\_states\\_by\\_net\\_migration\\_rate](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sovereign_states_by_net_migration_rate).

서는 2019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비교분석(QCA)을 시도하였는데, 단일년도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퍼지셋 질적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2019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자유로웠던 시기였다면, 2020년 이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의 발현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 인구의 이동이 불가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발생 이전 시점과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시점을 비교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이라는 외부 환경요인의 변화가 전 세계적 인구의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량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원인조건 배열을 분석하였는데, 실제로 이주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기후 변동(climate change)나 정주지의 교육 환경(education index) 등과 같은 정성적 요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성적 요인은 정량적 요인들과 더불어 이주민의 국가 간 순이동에 중요한 영향 요인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성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 자료까지 반영하여 전반적인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 경영학부, 교수, khchoi@hansung.ac.kr

#### 주제어(Key Words)

국가취약지수(Fragile State Index), 순이동률(Net Migration Rate), 퍼지셋 질적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투고일: 2023.01.28. 심사일: 2023. 04. 27. 게재확정일: 2023. 05. 19.

<국문초록>

**이주민의 순이동률 변동에 대한 국가취약지수의 영향 분석**

최강화

이 논문은 국가취약지수가 이주민의 순이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집합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국가의 취약성이 커질수록 이주민의 취약국가로의 입인은 작아지게 되고, 반대로 취약국가로부터의 이탈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응집력 지수, 정치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그리고 외부 개입 등과 같은 다섯 개의 국가취약지수 중에서 어떠한 원인조건과 원인조건외 배열조합이 이주민의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충분조건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취약성과 외부 개입의 부재가 이주민들의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조건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응집력 취약성이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외부 개입의 부재가 이주민의 순이동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요한 영역에서 취약성이 없는 경우에 이주민의 순이동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fragile state index on the  
change in net migration rate**

Choi Kanghwa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fragile state index (FSI) on the net migration rate from the perspective of a set-theoretic approach. The higher the FSI score, the relatively fewer immigrants into the fragile states, and on the contrary, the more emigrants from their fragile stat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which causal conditions among the five FSIs such as cohesion index, political index, economic index, social index, and external intervention affect the net migration rate of migrants, using the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ology.

The FsQCA result is that the absence of economic indicators and external intervention affects the net migration rate of migrants. In particular, the absence of cohesiveness and economic, social index, and external intervention enhances the net migration rate of migrants in a significant number of European countries. Thus, a scrutinized analysis of the causal conditions is required to establish an effective and efficient migration policy.

## 참고문헌

### 1. 논문

- 송철중, 「국가의 취약성과 경제성장」, 『문화와 정치』, 제8권 3호(2021), 99~141쪽.
- 이선호, 강동관, 황진영, 「고급인력 국제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23권 2호(2014), 1~32쪽.
- 최강화, 오병섭, 「글로벌 이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시스템 사고」, 『호모미그란스』, 제22권(2020), 319~344쪽.
- Carson, K., and Bruggemann, R., “Fragile State Index: Trends and Developments. A Partial Order Data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3(2017), p. 1-14.
- Haas, H., Czaika, M., Flahaux, M.-L., Mahendra, E., Natter, K., Vezzoli, S., Villares-Varela, M.,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Determinants, and Policy Effec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5(2019). p. 885-922.
- Simpson, N. B., “Demographic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Migration”, *IZA World of Labor*, 373(2022). doi: 10.15185/izawol.373.v2.
- Wong, C. 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 Bibliometric Analysis of Failed/Fragile/Collapsed State Research During 1990-2020”, *Frontiers in Research Metrics and Analytics*, 7(2022), pp. 1-19.

### 2. 정책연구보고서 및 신문기사

- 신상화, 「국제이주의 학력수준별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242호(20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Fafchamps, M., Shilpi, F., “Determinants of Choice of Migration Destina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728. (Washington DC.: World Bank, 200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World Migration Report 2019/2020/2021/2022* (2022).

O'leary, M., *Fragile States Index Probes Nations' Weaknesses, Information Toda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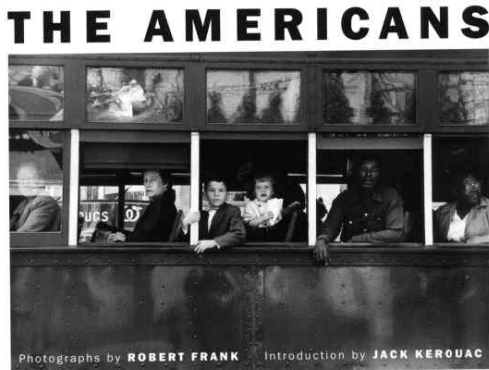
The Fund for Peace, *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 (Washington DC.: 2019).

#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 - 『ROUTE 44』의 사진적 방법론

홍 상 현

### I. 사진적 다큐멘트,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진



로버트 프랭크, 『미국인들』 표지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 1924~2019)의 『미국인들(THE AMERICANS)』은 1950년대 미국 사회의 이주민을 기록한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집이다. 이 작품집이 갖는 가치는 이전의 다큐멘터리 사진의 시선과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온 데에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사적인 관심사로서의 대상을 포착”<sup>1)</sup>했다는 점이다. 즉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카메라 뒤에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524)

1) 민병욱 · 박종현, 「위대한 미국의 우울한 텍스트 -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서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시선에 대한 질문을 그가 던진 것이다.

그동안 사진은, 특히 다큐멘터리 사진은 3인칭의 시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객관성’을 동일시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에서는 “3인칭 관점에서 1인칭의 관점으로, 일반 보편적 시각에서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체계의 전환”<sup>2)</sup>이 이루어졌다. 이는 그동안 세계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사진적 시각이 미치지 못한 어떠한 시각지대를 발견한 로버트 프랭크의 혁신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본래 어떤 사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앞선 사진행위이다. 일찍부터 사진은 기계적 기록성의 속성인 정확성과 객관적인 사실성으로 말미암아 정보전달의 기능을 주된 본령으로 삼아왔다. 사진은 전달목적을 우선으로 삼고, 기록적인 효용성을 기본적인 가치로 추구하였다.<sup>3)</sup>

전통적으로 사진은 카메라라는 시각 장치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고 재현한다는 점 때문에 들여다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 간의 특유한 힘의 관계로 설명되어져 왔다. 무엇보다도 다큐멘터리 사진의 경우 사실적인 재현 방식과 내포된 내러티브의 작용을 통해 대상을 타자로서 응시하고 스스로를 주체로 구성하는 일종의 근대적 시각 장치, 혹은 ‘무기’로 비유되기도 한다.<sup>4)</sup>

로버트 프랭크가 1인칭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의 다큐멘터리 사진은 “에세이 성격을 띤 픽처 스토리(picture story)”<sup>5)</sup>라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미국 사회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집의 출간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기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데에서 찾는

---

인. The American』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3권 5호(2012), 168쪽

2) 같은 논문, 167쪽.

3) 같은 곳.

4) 강인혜, 「리 프리들랜더의 뉴 다큐멘터리 사진과 1960년대 말의 미국 사회」, 『현대미술사연구』, 22호(2007), 7쪽.

5) 육명심, 『세계사진가론』 (과주: 열화당, 1998), 168쪽.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당시의 미국사회를 바라본 그의 시선이 갖는 가치는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에서 탈피하여 미국의 이면을 개인적인 관점에서”<sup>6)</sup> 기록한 것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워커 에반스(Walker Evans, 1903~1975)에 의한 화면구성의 변화 이후 사진조형적인 관점에서 또 한 번의 변화 역시 또 다른 가치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대의 거울이란[원문 그대로] 명명되는 ‘다큐멘터리 사진(Documentary Photography)’은 현실세계를 거짓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의 생명은 하나의 진실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다. ...(중략)... 그럼, 다큐멘터리 사진의 시발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찌보면 사진술 발명 그 자체가 다큐멘터리 사진의 시발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최초의 사진술은 르네상스시대 사람들의 근대적 시각개념의 일환으로 발명된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에서 출발하였다.<sup>7)</sup>

사진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다큐멘터리는 사진이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방법이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베긴다(寫眞)’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의 이 시각언어의 특수성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적인 기록’은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특정 분야만의 특성은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진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사진분리파(photo-secession) 이후 사진이 회화적인 표현과는 다른, 독자적인 예술적 표현 영역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도 바로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특수성 덕분이었다. 이러한 매체적 특수성과 예술적 표현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결국 모든 사진은 이미 그 자체로 다큐멘터리일 수 있는 생각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종류의 사진이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기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사진이 갖는 독자적인 표현의 영역과 정당성 확보는 단순한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물로서의 목적을 갖는 다큐멘트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다큐멘트와 다큐멘터리 사진은 그 목적과 관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예

---

6) 민병욱·박종현, 「위대한 미국의 우울한 텍스트」, 167쪽.

7) 정영혁, 「기록으로서의 초기 다큐멘터리 사진에 관한 연구」, 『Viscom』, 4호(2003), 91쪽.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를 들어, 유적이거나 고고학 관련 사진들, 풍경이나 건축물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 등은 단지 아카이브(archive)를 위한 자료사진이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과 문제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존 톰슨(J. Thomson)이나 제이콥 리스(J. Riis) 등의 사진은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분류된다.<sup>8)</sup>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결국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회적 현실과 문제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아카이브를 위한 사진적 다큐멘트와 차이를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다큐멘트적인 방법을 취하지만 그러한 방법이 단순한 아카이브 자료로서의 목적을 넘어서서,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작가의 ‘참여’와 ‘관심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다. 그것은 ‘참여’와 ‘표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작가적 발화(發話)가 ‘언어적’으로 기능하면서 ‘설명적인’ 기능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설명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다큐멘터리 사진이 획득하고자 했던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기능이 다시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 또한, 다른 평면조형언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기호(sign)로서 기능하는 시각요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언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광고사진이다.



광고사진들은 대부분 주어와 술어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1915~1980)는 『이미지의 수사학』에서 판자니(Panzani) 파스타 광고사진을 기호로서 분석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광고사진은 기호(sign)로서만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즉 거기에는 아무런 알레고리도 없고 예술적 표현으로 읽힐 필요도 없다(물론 바르트는 그 기호의 단계적 층위들을 설명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예술적 기능과는 다르다). 상품 구매자에게 필요한 내용만을 오해의 여지없이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광고사진의 목적상 그것은 주어-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하고 명료한 문장이어야 한다. 아마도 이것이 바르트가 이 광고사진에서 바라보는 것이 『밝은 방』에서 사진을 바라볼 때의 시선과 다른 이유일 것이다.<sup>9)</sup>

8) 이혜선, 「다큐멘터리 사진의 미술교육적 의의 탐색」, 『미술교육논총』, 70호 (2022), 172쪽.

사진에서 기호가 갖는 언어적 기능이 커지게 되면, 그것은 광고사진에서 기능하는 이미지의 역할과 큰 차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큐멘터리 사진이 '사회적 현실 문제에 대한 작가의 참여와 관심 표현'이라는 점에서 "다큐멘터리는 '특정한 목적에 봉사하려는'"<sup>10)</sup>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굳이 프로파간다(propaganda) 미술의 사례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작가의 참여와 표현이 언어적인 설명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큐멘터리 사진이 사진적 다큐멘트와의 차이를 얻게 된 '예술적' 기능이 그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

사진적 기록은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언어적 기능과 설명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미지의 예술적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일의적(univocal)인 의미전달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그것은 상업광고에서 사진이 하는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사진의 기능과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사진은,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에서도, 그 언어적 기능이 아카이브 사진이나 광고사진에서와는 다르게 작동해야 한다.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이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미국인들이 기대하던 이미지가 아니었다"<sup>11)</sup>. 왜냐하면 그의 사진은 당시 사회 일반의 시각과는 다른 시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사적인 관심사로서 대상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파편적"<sup>12)</sup>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 시점'에서의 '파편화된'인 사진적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다큐멘터리 사진이 예술적 표현이 될 수 있는 한 출발점을 생각할 수 있다.

---

9) 홍상현, 『사진도 예술입니까?』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16), 105~106쪽.

10) 민병욱 · 박종현, 「위커 에반스의 다큐멘터리 스타일과 사진 형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권 1호(2011), 236쪽.

11) 민병욱 · 박종현, 「위대한 미국의 우울한 텍스트」, 167쪽.

12) 같은 논문, 167쪽.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Arthur ROTHSTEIN, *Girl at Gee's Bend, Alabama*, 1937.



William KLEIN, *Gun 1*, New York, 1955.



Robert FRANK, *Parade*, Hoboken, New Jersey, 1955.

## II. 44번 국도, 우울한 분위기의 시적(詩的) 이미지



『ROUTE 44』 표지(부분)

『ROUTE 44』는 ‘국도 제44호선’(이하 44번 국도)이라는 표면적인 소재와 함께 생활의 이주사(移住史)라는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로서의 소재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생활의 이주사’는 한국의 60-70년대 산업화 과정을 주도한 현재의 은퇴세대의 시선에서 시작한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는 한국이 산업화되기 이전에 강원도 ‘인제’와 ‘원통’으로 군대에 입대하던 젊은이들의 한탄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한다. 산을 따라 굽이굽이 돌던

강원도 길(道)은 오지(奧地) 중에서도 오지였던 그곳을 더 먼, 원통한 곳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이야기는 ‘이제 와서 원통하다.’라는 말로 바뀌었다. 44번 국도가 개통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토 여기저기를 끊어내면서 생겨난 산업도로들은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바꾸었고,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을 지나는 6번국도와 연결되는, 강원도 인제와 원통을 가로질러 동해안의 양양까지 이어지는 44번 국도가 생겼다. 그 덕분에 강원도 인제와 원통도 이제는 더 이상 오지가 아닐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조금 이른 시기에 오지 생활을 경험한 어른들은 ‘이제 와서 원통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44번 국도를 잘 찾지 않는다. 44번 국도 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최근 십여 년 동안 44번 국도 주변 가게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 주변의 풍경들 또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sup>13)</sup>

『ROUTE 44』에서는 44번 국도를 ‘산업화 한국’이 남긴 하나의 흔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은 한국을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였고, 그 과정에서 고속화된 도로를 건설하는 일이 선결과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화 한국’을 위해서 생산 공장들이 급증했으며, 그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물자의 빠른 운송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전국에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시작은 1967년에 착공한 ‘경인고속도로’와 1968년에 착공을 시작한 ‘경부고속도로’이다.

44번 국도는 그러한 전국 도로의 고속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반국도’이며, 1971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사용 중인 도로이다. 이 도로가 만들어진 이후, 대표적인 오지였던 강원도의 마을들 또한 일일생활권 안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십여 년 동안 44번 국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변화의 시작은 44번 국도 위를 지나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이다. 2009년에 서울-춘천-동홍천 분기점 개통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그 과정에서 44번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도로 주변의 휴게소를 비롯한 시설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풍경 또한 기존의 ‘고속화 도로’ 주변 모습과는 달라졌고, 그러한 변화는 흔적들을 남기게

13) 『ROUTE 44』, FI PRO, 2023, 작가노트 필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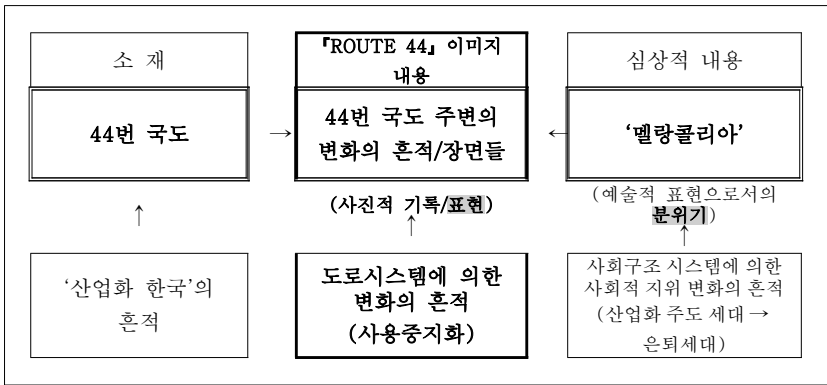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되었다.



『ROUTE 44』 도관 이미지

『ROUTE 44』는 44번 국도 주변의 변화와 그 변화가 남긴 흔적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러한 상황과 장면을 바라보는, ‘산업화 한국’이 남긴 또 다른 흔적의 삶을 살아온 세대의 시선이 멜랑콜리아(melancholia)의 감정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은퇴세대의 멜랑콜리아는 존재의 활동의지 박탈에서 기인한다. 아직 사용을 중지할 필요는 없지만 도로 시스템에 의해 ‘사용중지화’된 44번 국도의 상황에 “지금도 힘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 쓸모를 다하지는 않았는데...”<sup>14)</sup>, 자기 외적인(사회구조 시스템) 이유로 인해 은퇴자 신분이 된 세대의 감정을 투영한 것이다. 즉, 『ROUTE 44』는 ‘산업화 한국’의 흔적으로서의 44번 국도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현재 44번 국도 주변 풍경의 변화가 남긴 흔적들을 사진적으로 기록/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멜랑콜리아 감성을 통해 ‘우울한 흔적’으로서의 전체적인 심상적 표현 분위기를 구성한다.

14) 『ROUTE 44』, 같은 곳.



『ROUTE 44』작품 형성과 구성의 배경 및 과정

여기에서 『ROUTE 44』의 이미지들이 심상적 표현으로서의 ‘분위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사진이 갖는 또 하나의 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다. 『ROUTE 44』에서는 도로 시스템에 의해 사용증지화된 44번 국도와 사회구조 시스템에 의해 강제은퇴자가 된 세대가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지로서의 분위기만 보일 뿐, 언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20세기 초, 최초로 초현실주의 미학을 보여준 으젠느 앳제(E. Atget)가 파리 거리의 세부 묘사가 되어 있는 인화 사진을 화가들에게 팔면서 ‘예술가들을 위한 다큐먼트(docu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15)</sup>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장의 사진은 특정 상황이나 장면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기록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사실적인, 밑그림용 이미지’를 지칭한 것이 ‘다큐먼트’이다. 이 용어가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적인 기록’이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적 특징으로 여겨지는지 생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15) 이혜선, 「다큐멘터리 사진」, 172쪽.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Eugene Atget, *Shop Window*, 1910.



Eugene Atget, *Cabaret de l'Enfer entrance*, 1910.

잘 알려진 것처럼, 앳제가 촬영한 사진 이미지들은 예술적 표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파리의 구석구석을 단순히 기록하는, 아카이브를 위한 ‘사진적 다큐멘트’의 용도로 사진술을 사용하고자 했다.

이십 년 넘도록 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서 파리의 오래된 거리들을 18×24 센티미터 크기의 네거티브로 찍었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들에 대한 예술적인 기록사진 컬렉션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옛 파리의 모습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Kearful, 1997: 10).<sup>16)</sup>

“1920년 문화재 사진 관리국에 2,600여 점의 음화(陰畫, negative)를 넘겨주면서”<sup>17)</sup> 그가 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앳제의 사진은 ‘기록사진 컬렉션’으로서의 목적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만 레이(Man Ray, 1890~1976)와 베러니스 애보트(Berenice Abbott, 1898~1991)에

16) 1920년 앳제가 미술아카데미(Academie des Beaux-Arts)의 책임자 폴 레옹(Paul Leon)에게 보냈던 서신, 손명아·주은우, 「외젠 앳제의 사진에 나타난 근대적 도시 풍경 독해」, 『사회와 이론』, 23호(2013), 394쪽.

17) Gerry Badger, 정재곤 역, 『외젠 앳제』 (과주: 열화당, 2003), 3~6쪽; 다음에서 재인용. 손명아·주은우, 「외젠 앳제의 사진」, 394쪽.

의해 앓제의 사진에서 드러나는 초현실주의 표현이라는 ‘예술적’인 가치들이 재평가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앓제가 그의 사진으로 목표했던 바와 이후의 평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앓제 사진의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초현실주의 미학’과 ‘다큐멘트’ 사이에는 상당히 큰 의미적 거리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큐멘트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목적이다. 하지만 초현실주의적이라는 것은 ‘비사실적’, ‘비객관적’인 방법으로 ‘기록 불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이 둘은 의미적으로는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앓제의 사진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기능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앓제는 현실에 숨어 있는 시의 세계를 찾아”<sup>18)</sup>내는 “카메라의 시인”<sup>19)</sup>이라는 표현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sup>20)</sup>. 문자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언어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표현방법이 시(詩)이다. “시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문자언어의 체계 안에서 읽힘에도 불구하고, 반(反)-언어적인 모습까지 포함하는 메타언어의 기능을 한다.”<sup>21)</sup> 즉, 메타언어로서의 기능하는 시어(詩語)들은 거기에 적혀 있는 문자의 내용을 넘어서는, 그 문자들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넓은 의미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의 시를 읽을 때, 그 누구도 그 단어들에 가진 사전적 의미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 시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새롭게 생성하는 의미들까지 어떠한 ‘분위기’ 안에서 확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자언어가 예술적 표현으로서 기능하는 시언어로부터 사전적 기록이 예술적 표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앓제 사진이 갖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연결될 수 있는 정당성 확보의 가능성 또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한 장의 사진에 기록된 사실적인 내용들은

18) 육명심, 『세계사진가론』, 26쪽.

19) 같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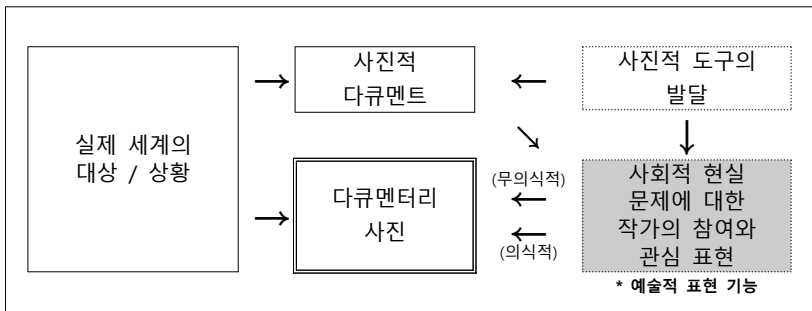
20) 육명심 또한 앓제가 주로 기록을 위한 사진을 찍었다는 점과 그를 ‘시인’이라고 평가하는 것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그 당시 살롱사진가들이 머릿속에서나 그리던 시의 세계를 표현했던 것과 달리, 앓제는 현실에 숨어 있는 시의 세계를 찾아낸다.”라고 앓제 사진에서 ‘기록’으로서의 ‘시적 표현’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21) 홍상현, 『사진도 예술입니까?』, 73쪽.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기본적으로는 사진적 의미로 기록된 문자언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진 이미지 속 시각요소들이 그러한 역할에서 기능을 끝낸다면, 그것은 시각 이미지가 가진 실용적인 기호의 기능에서 멈춘다. 그러나 한편의 시 안에서 문자언어가 기능하는 것처럼, 한 장의 사진 안에 담긴 시각요소들이 기호로서의 기능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면, 다큐멘터리 사진에서의 작가의 관심과 표현은 시인의 시작(詩作)과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록으로서의 사진과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사진은 각각이 다른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큐멘터리 사진에서의 작가적 참여와 관심은, 앓제의 사진의 경우에서처럼, 무의식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앓제의 경우 의도적이었거나 뚜렷한 자신의 주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가 깊이 빠져 있던 고독이라는 늪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간절한 만남의 욕구가 사진을 통하여 독자들과 깊은 공감을 이루게 된 것이다.”<sup>22)</sup> 특히 사진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한 기록’이라는 기본적인 조형(造型)의 성격상, 다큐멘트로서의 기능이 우선된다. 하지만 사진 또한 조형예술로서의 작가적 관심과 표현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며, 앓제의 경우에서처럼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사진적 다큐멘트와 다큐멘터리 사진

22) 육명심, 『세계사진가론』, 26쪽.

### Ⅲ. 비서사적 사진과 예술로서의 추상성



『ROUTE 44』 도판 이미지

(이) 작품들은 서사(narrative)를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작품들은 보는 이가 자신의 세계를 투영하여 읽어야 하는 텍스트이다. 그러기에 독자들 눈에 이 작품집은 아무 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 어려움 투성이로 비칠지 모르겠다. 내게 그의 작품은 분석되기도 해석되기도 거부하며 그냥 상상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장 같다.<sup>23)</sup>

『ROUTE 44』의 이미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비서사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설명적이지 않은’, ‘시적 분위기’의 표현을 위한 방법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ROUTE 44』에서의 표현들이 가진 특징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은 ①정면에서 바라본, ②비서사적이고, 어떤 분위기만을 전달하는 ③파편적인 이미지들의 열거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이미지들은 보는 이들에게 해설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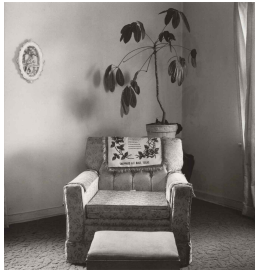
23) 황혜성, 「Route 44, 철학적 사색으로의 초대」, 『ROUTE 44』, FI PRO, 2023, 서문.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않는다. 오히려 보는 이들에게 이미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파악을 통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로버트 프랭크의 '1인칭의 관점'과 앳제의 '시적 분위기'가 '상상의 세계'에서 사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장치들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면성'과 '열거'라는 사진적 표현의 방법은 이미 워커 에반스의 '다큐멘터리 스타일 (documentary style)'에서 시작된 바 있다.



Walker Evans, *Family of farmer, Hale Country*(Alabama), 1936



Walker Evans, *New Year's Day, Guthrie, Kentucky*, 1970



Walker Evans, *Subway Portraits, L.A.*, 1938~1941.

워커 에반스의 사진세계는 조형적인 공간성의 추구하고 시적인 감정 이입을 특징으로 한다. ...(중략)... 조형적인 공간성과 시적인 감정 이입은 대개의 경우 다큐멘터리 사진에서는 소홀히 취급하거나 또는 부수적인 요소로 돌려 버리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에반스의 사진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큐멘터리 사진의 사실성을 밑받침하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sup>24)</sup>

에반스의 사진에서 드러나는 조형적 특징을 육명심은 '정면성'을 '조형적 공간성'으로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에반스의 사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이 '정면성'이기도 하다. 이는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서 그의 사진이 '객관성'을 추구하는 나름의 시도였을 것이다. 에반스가 "나는 주어진 일정한 시간 동안 82명의 사람들이 기계적인 카메라 앞에 스스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오기를, 그리고 파인더 안에 들어

24) 육명심, 『세계사진가론』, 93쪽.

은 이 사람들이 촬영 순간에 최소한의 인간의 개입도 없이 사진 찍혔다는 것을 믿고 싶었다.”<sup>25)</sup>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사진에 드러난 ‘정면성’은 ‘객관성’의 표현을 위한 사진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가 찍은 대상은 소작인들과 같은 빈민들의 사진이었지만, 작품 속에 담아낸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실제의 배경 앞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또 다른 시선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 에반스는 인물 보다는 주변 생활공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진적 기교나 과도한 연출 없이 섬세하지만, 직선적인 눈으로 그들의 삶을 기록해 내었다. 이러한 에반스의 ‘순수한 기록’을 향한 대상에 대한 접근법과 그의 절제된 감정어입 방식은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빌린 그의 사진을, 하나의 예술적 사진작품으로 평가하게 하였다.<sup>26)</sup>

에반스의 정면성은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작동하는 전통적인 내러티브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에반스의 ‘정면성’은 자칫 앞에서 이야기한, ‘아카이브’를 목적으로 하는 ‘사진적 다큐멘트’로의 회귀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워커 에반스의 다큐멘터리 스타일에 관한 언급은 사진가의 완전한 배제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sup>27)</sup>

여기서 대상의 정면성이라는 부분에서 에반스의 사진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에반스의 방법론이 대상의 정면성이라 점, 그리고 비개성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을 아카이브로 구획하려는 시도는 오류의 소지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큐멘터리는 ‘특정한 목적에 봉사하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표현’이다. 아카이브는 다큐멘터리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역사를 기록한다는 목적에서, 그 역사는 지식

---

25) Walker Evans, *Walker Evans at Work* (New York: Harper and Row, 1982), p. 160; 박평중, 「다큐멘터리 형식과 워커 에반스의 현재성」, 『AURA』, 12권(2005), 136쪽 재인용.

26) 김종열,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집 《미국인들》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권 4호(2015), 288쪽.

27) 허용무, 「사진, 이후의 사진시대와 다큐멘터리사진의 표현방식 변화 - ‘다큐멘터리 스타일(documentary style)’을 중심으로-」, 『AURA』, 45권(2020), 58쪽.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의 체계에서 논의된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의 스타일만을 추구하는 에반스의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사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에반스는 예술사진을 추구했지만 스타일은 다큐멘터리 사진의 형식만을 차용한 것뿐이다. 따라서 단지 "정면성"이라는 방법론, "비개성적"이라는 성격(뉘앙스)만으로 아카이브로 논의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sup>28)</sup>

그리고 에반스의 사진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조형적 특징은 <Subway Portrait>에서 표현된 것과 같은 '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또한 사진적 기록의 객관성을 위한 표현방법을 위한 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사물을 묘사가 아닌 열거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대상의 독자성이나 개별성보다는 그 대상의 범주를 구획하는 것이다. 에반스는 사진에서 사물의 개별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같은 범주의 사물들을 열거를 통해 보여준다. 열거를 통해 제시된 사물들은 각 사진들 간의 연관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 장의 사진에서는 감상자가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지만, 하나의 범주에 속한 사진들은 독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진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해석이 된다.<sup>29)</sup>

에반스는 사진에서 사물의 개별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같은 범주의 사물들을 열거를 통해 보여준다. 열거를 통해 제시된 사물들은 각 사진들 간의 연관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플로베르는 묘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묘사를 작가가 거의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인 성격으로 채택하고 있다. 에반스가 에이지와 플로베르에게서 영향 받은 바는 에반스의 사진적 태도, 즉 정면성과 익명성, 관찰자적인 시각으로 승화된다.<sup>30)</sup>

이러한 열거의 방법을 현대 예술사진에서 활용한 작가로 먼저 베르트(Bernd Becher, 1931~2007)와 힐라 베허(Hilla Becher, 1934~2015) 부부의 유형학적 사진(Typology Photography)을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의 소재의 다양한 모습들을 정면에서 기록하고, 그 결과물들을 나열하여 하나의 대상에 대한 유형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

28) 민병욱 · 박종현, 「위커 에반스의 다큐멘터리 스타일과 사진 형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권1호(2011), 236쪽.

29) 강인혜, 「리 프리들랜더」, 9쪽.

30) 민병욱 · 박종현, 「위커 에반스」, 235쪽.

은 에드워드 루샤(Edward RUSCHA, 1937~)의 대표작 “26개의 주유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오클라호마까지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만났던 26개의 주유소를 순서대로 찍은 60장의 주유소 사진 중에 26장을 선택해서 사진집으로 만들었다.”<sup>31)</sup>



Bernd and Hilla BECHER. <Water Towers>, 1980-89.



Edward RUSCHA, <26 Gasoline Stations>, 1963.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표현된 내용만을 보면 “예술성보다는 철저하게 정보(Information) 기능으로 사진을 활용했다”<sup>32)</sup>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베허 부부의 유형학적 사진은 대상의 객관적인 재현을 위해 작가의 주관이나 감정을 제거하고 대상 자체의 본질적인 형태를 표현한 개념이다.”<sup>33)</sup>라는 말처럼, 그것은 철저하게 비(非)정보적 내용으로서의 예술적 표현을 추구한다. 즉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진적인 메커니즘의 활용방법을 탐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베허 부부와 에드 루샤의 작업에서의 기록물의 ‘열거’는 사진적인 추상(抽象)의 시도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 두 작업에서 열거된 기록물들은 맥락 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기록의 나열은 아니다. 두 작업 사이에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작품들에서는 하이데거

31) 허용무, 「사진, 이후의 사진시대」, 57쪽.

32) 같은 곳.

33) 같은 곳.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가 이야기한 “그때 그때마다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자의 재현이 아니라, 사물들의 보편적 본질의 재현”<sup>34)</sup>이라는 내용의 사진적 실천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때 열거된 이미지들은 감상자로 하여금 어떤 한 지점을 상상하도록 안내한다. 또 그 지점이 본질을 일깨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기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사진적 추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추상(抽象)한다’(abstrahere)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에서부터 뽑아낸다’(extrahere)는 뜻이 아니라, 개별적 조건들에 관한 한 ‘—에서부터 해방한다’는 뜻이고, 감각상과 ‘현실태로 있는 가지적인 것’에 관한 한 ‘—을 통해서 일깨운다’는 뜻이다.<sup>35)</sup>

#### IV. 다큐멘터리와 사진

44번 국도를 따라 움직이며 마주한 풍경들에서 시간과 공간의 움직임과 변화를 흑백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다.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 해무가 짙게 깔린 동해 바다의 수평선과 구름, 바다 가운데 섬처럼 떠있는 바위들 등 친숙한 풍광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이미지화 하여 독자에게 내밀고, 벽과 시멘트의 균열, 문을 닫은 가게 등 산업화로 버려진 건축물들과 그 속에 남아있는 잔해들을 기억의 공간 속에서 재배치한다.<sup>36)</sup>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ROUTE 44』는 사적(私的)인 시각, 시적(詩的)인 분위기, 그리고 비서사적인 스토리 전개와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세 가지 특징은 사진사(史) 안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이 단순한 사진적 아카이브를 넘어서서 갖는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방법으로 발전시켜 온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장의 사진 안에 기록과 예술적 표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공간을 ‘시간화’하는, 예술로서의 사진이 갖는 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사진이라는 매체의 일반적인 양태일 것이다. 일상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감

34) Martin Heidegger, 오병남·민형원 역, 『예술작품의 근원』 (서울: 경문사, 1986), 103쪽.

35) Giuseppe Zamboni, 이재룡 역,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식론』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6), 297쪽.

36) 황혜성, 『Route 44』, 같은 곳.

동적인 풍경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비공간적인 공간’이다. 즉, 공간적이지 않은 감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사진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로버트 프랭크가 공적인 관심사를 사적인 관심사로 돌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앓제의 사진에서처럼, 공간은 우리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시간화’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공간화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변하게 되며, 이 공간화할 수 없는 ‘어떤 것’은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현전하는, 의도적/의지적으로 지속 혹은 다시 표상할 수 없는 ‘그것’이다<sup>37)</sup>. 그저 시간에 따라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시간적으로 변하는 그것이다. 여기에서 ‘시간에 따라 왔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카르티에-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1908~2004)은 우리의 경험에 ‘동일하게 남지 않는 무언가’를 ‘결정적 순간(L'instant decisif)’이라는 말로 이야기<sup>38)</sup>하고자 했을 것이다.

사진은 공간(특정 공간을 점유 혹은 연장)을 모방하지만, 예술로서의 사진은 그 공간을 똑같이 모방/복제하지 않는다. 사진은 공간을 복제(copy)하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 시간적인 것을 포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작가적 표현으로서의 다큐멘터리 사진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기록수단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예술로서의 기능하고자 하는 사진이 다양한 시도들을 볼 수 있다.

앓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의 장르가 형성된 이후에는 사진가들이 ‘작가적 참여’와 ‘관심의 표현’을 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작가적 참여’와 ‘관심의 표현’은 사진 이외에도 다른 모든 예술적 표현 방법에서 그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표현 방법은 사진의 기록성이 하나의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 사진적 도구들의 발달에 의해 진화한 사진적 표현방법의 변화된 기록의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진의 도구적 특수성과 예술적 표현 기능을 기반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의 변화 과정을 잇는 오늘날의 한 지점에서 본고에 담지 못한 부분이

---

37) 홍상현, 『사진도 예술입니까?』, 98쪽.

38) 같은 책, 98쪽.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 등장해 있는 ‘디지털 이미지’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사진, ‘이후의 사진’ 시대의 다큐멘터리 사진 장르에서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에의 존재론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복잡한 사회구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표현 방법의 필요성 문제로 압축된다.<sup>39)</sup>

기술적 영상으로서, 태생적으로 과학기술적 장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진’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예술의 분야와 사진의 세부 분야들에서도 ‘디지털 이미지’로서의 사진의 기능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다큐멘터리 사진의 분야에서는 디지털 이미지의 활용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는 아마도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특성으로 인해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디지털 이미지의 특성이 그러한 객관성에 대한 표현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앓제, 그리고 워커 에반스와 로버트 프랭크가 어떻게 지배적인 사회적 인식을 사진적 표현 안에서 극복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디지털이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구조’를 다룰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예술적 방법이라면, 사진과 디지털의 관계를 다큐멘터리 안에서 다루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이미지가 예술적 표현 방법으로서의 정당성 확보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큐멘터리로서의 디지털 이미지의 가능성을 ‘사진’이라는 방법 안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다른 논의의 장으로의 확대 또한 가능할 것이다.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조교수, hong@kiu.ac.kr

주제어(Key Words):

---

39) 허용무, 「사진, 이후의 사진시대」, 53쪽.

다큐멘터리 사진(documentary photography), 다큐멘터리 스타일  
(documentary style), 비서사(non-narratives), 예술사진(fine-art  
photography), 44번 국도(route 44)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국문초록>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 『ROUTE 44』의 사진적 방법론

홍 상 현

본고는 2023년 출간된 사진집 『ROUTE 44』의 작품론이다. 이 책은 ‘44번 국도’를 ‘산업화 한국’이 남긴 하나의 슬픈 흔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사회구조 안에서의 ‘은퇴세대’를 ‘산업화 한국’이 낳은 또 하나의 흔적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그 세대의 일원인 작가의 아버지 개인의 ‘생활의 이주사’를 시작으로 ‘지금의 44번 국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미지에 담는다. 『ROUTE 44』의 이미지들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서사적 다큐멘터리 사진’이다. 일반적으로 기록으로서의 사진은 주제 안에서 구성되는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런데 『ROUTE 44』의 이미지들은 비서사적이며, 파편적이고, 기록의 열거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기록으로서의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예술적 표현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문자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메타언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詩 언어에서처럼, 메타모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사진적 기록이다. 이는 로버트 프랭크, 워커 에반스, 그리고 앓제의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그 방법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Non-narrative, personal, poetic documentary photography as  
artistic expression  
– The photographic methodology of *ROUTE 44***

Hong Sang-Hyun

This article is the work theory of the photo book *ROUTE 44* published in 2023. *ROUTE 44* sets 'Route 44' as a sad trace left by 'industrialized Korea' and 'retirement generation' in today's social structure as another trace produced by 'industrialized Korea'. And, starting with the 'history of life migration' of my father, a member of that generation, the image captures the gaze of 'current Route 44'. The images in *ROUTE 44* show several characteristics, the most representative of which is 'non-narrative documentary photography'. In general, photography as a record tells a story centered on a narrative composed within the subject. However, the appearance of the images in *ROUTE 44* is non-narrative, fragmented, and a sequence of records.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photography as an archive and documentary photography. Unlike the archive, documentary photography performs the function of artistic expression. This method can be found in the 'documentary' photographs of Robert Frank, Walker Evans, and Atget.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 참 고 문 헌

### 1. 사료

황혜성, 「Route 44, 철학적 사색으로의 초대」, 『ROUTE 44』, FI PRO, (2023), 서문.

### 2. 단행본

육명심, 『세계사진가론』 (서울: 열화당, 1998).

홍상현, 『사진도 예술입니까?』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16).

Gerry Badger, 정재곤 역, 『외젠 앗제』 (과주: 열화당, 2003).

Giuseppe Zamboni, 이재룡 옮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식론』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6).

Martin Hediegger, 오병남·민형원 역, 『예술작품의 근원』 (서울: 경문사, 1986).

### 3. 논문

강인혜, 「리 프리들랜더의 뉴 다큐멘터리 사진과 1960년대 말의 미국 사회」, 『현대미술사연구』, 22호(2007), 7~36쪽.

김중열,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집 《미국인들》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권 4호(2015), 285~292쪽.

민병욱·박종현, 「워커 에반스의 다큐멘터리 스타일과 사진 형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권 1호(2011), 231~238쪽.

민병욱·박종현, 「위대한 미국의 우울한 텍스트 -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인 The American』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3권 5호(2012), 167~175쪽.

박평중, 「다큐멘터리 형식과 워커 에반스의 현재성」, 『AURA』, 12권(2005), 130~143쪽.

손명아·주은우, 「외젠 앗제의 사진에 나타난 근대적 고시 풍경 독해」, 『사회와 이론』, 2호(2013), 393~425쪽.

- 이혜선, 「다큐멘터리 사진의 미술교육적 의의 탐색」, 『미술교육논총』, 70호(2022), 169~194쪽.
- 정영혁, 「기록으로서의 초기 다큐멘터리 사진에 관한 연구」, 『Viscom』, 4호(2003), 88~99쪽.
- 허용무, 「사진, 이후의 사진시대와 다큐멘터리사진의 표현방식 변화 - '다큐멘터리 스타일(documentary style)'을 중심으로-」, 『AURA』, 45권(2020), 53~68쪽.

## 호모미그란스 휘보

### 2023년 이주사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공동주최: 이주사학회, 창원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창원대학교 시각의 정치 연구단,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인문사회사업연구단

장소: 창원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

일시: 2023년 2월 16 오후 1시 - 17일 오후 3시

2월 16일

<1부> 13:00~14:20

개회식 및 기조발표 - 전시 성폭력 문제와 사회적 책임

사회자: 양재혁(한성대)

발표 1, 정유진(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 포스트 식민주의와 여성에 대한 폭력

발표 2, 문경희(창원대) - 여성운동가 김문숙의 활동과 삶의 궤적

(휴식: 14:20~14:30)

<2부> 14:30~16:30

전시 동원 체제의 젠더적 성격과 경계성

사회자: 이순주(울산대)

발표 1: 문중현(세종대), 제1차 세계대전과 프랑스 제국의 전시 동원: 시민권 획득의 젠더 메커니즘

토론자: 박 단(서강대)

발표 2: 마치다 타카시(창원대), 관부재판과 성찰적 한일 시민 운동: 전후 책임과 탈중심성

토론자: 오애리(계명대)

발표 3: 신동규(창원대), 민족과 여성 역사관 아카이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초국적 연대의 기록

토론자: 강지윤(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휴식: 16:30~16:40)

<3부> 16:40~17:50

경상도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활동

사회자: 안숙영(계명대)

발표 1: 강경화(경상국립대), 한양하(경상국립대),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지원 활동가들의 돌봄 의식

토론자: 장지은(계명대)

발표 2, 손선희(계명대), 대구경북 지역 일본군'위안부'이야기 다시쓰기: 돌봄 정치를 중심으로

토론자: 허윤(부경대)

<4부> 17:50~18:30

종합토론 - 트랜스내셔널 역사학 관점의 시민권과 전시 성폭력 연구 쟁점  
좌 장: 김용우(교원대)

토론자: 오영인(평택대), 신지혜(전남대), 이용일(대구교대), 홍용진(고려대)

2월 17일

<5부> 10:00~12:00

제1세션: 대학원생 발표 - 일본군 '위안부' 지원 활동과 경상도의 지역성

사회자: 안드류 밀라드(창원대)

발표 1, 민경택(창원대),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본 고대 한·일 관계의 태동

발표 2, 고명진(경상국립대), 1990년대 대학 참여학생회와 위안부 지원 활동: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자: 김주용(창원대), 문경희(창원대)

제2세션: 일본군 ‘위안부’ 지원 활동과 김문숙의 유산  
사회자: 윤용선(한성대)

발표 1, 장찬영(창원대), 영화 ‘허스토리’의 재현: 역사적 사실과 비역사적  
내러티브의 경합

발표 2, 김효영(창원대) 김문숙과 <부산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의 사회  
적 인식과 상담소 운영

토론자: 박정이(부산외대), 최재희(계명대)

<6부> 14:00~16:00

라운드테이블 -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와 글로컬 연대

좌 장: 신동규(창원대)

토론자: 참여자 전원

2023년 이주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인문학 사업단' 공동학술대회

주제: 글로벌 이주시대 공동체 이론과 실제

일시: 2023년 5월 13일(토)

장소: 한성대학교 컨퍼런스홀(한성대학교 상상관12F)

개회사 및 축사 5월 13일 13:00~13:20

개회사: 황혜성(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장)

환영사: 이창원(한성대학교 총장)

축 사: 박 단(서양사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오영인(이주사학회 회장, 평택대학교)

<1부> 5월 13일 13:20~14:50

사회: 권은혜(한성대학교)

발표 1. 김지윤(한성대학교) 모빌리티 시대의 이주: 이주 담론의 차별화  
토론 서선영(충북대학교)

발표 2. 고가영(서울대학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 마을' 공동체의 확장

토론 양승조(숭실대학교)

<2부> 5월 13일 14:50~16:20

사회: 박효근(세종대학교)

발표 3. 문종현(세종대학교) 식민지 시대 알제리로의 여성 이주 -프랑스 만  
들기와 여성

토론 양재혁(한성대학교)

발표 4. 이찬행(충북대학교) 갱스타 랩과 로스앤젤레스 인종 갈등

토론 김성엽(서울대학교)

<3부> 5월 13일 16:20~17:30

사회: 이용일(대구교육대학교)

발표 5. 김만권(경희대학교) 다원성과 공동체: 이주민과 ‘겹’ 공동체  
토론 서대승(서울대학교)

종합토론

#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민인종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인종연구"(가칭)의 투고원고이다.

##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과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를 3년 동안 금지한다.

#### 제5조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상 금지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

## 『호모 미그란스』 원고 작성 요령

---

---

2022년 12월 16일 개정

### 제 1 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투고 원고는 본문, 필자의 소속, 직위, e-mail 주소, 핵심 주제어(Key Words)[한글(영문)],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참고 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반각)
  -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 (3) 『 』(반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 (4) 「 」(반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 을 사용한다(예3).

2) 인용 문헌의 페이지 표기는 다음과 같다.

(예1)홍길동√편,√『서양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2),√12쪽.

(예2)홍길동,√「그리스인의√역사서술」,√허균√편,√『서양고대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6),√12쪽.

(예3)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ates√and√New√Controversies*√(London√&√New√York:√Routledge,√1998),√p.√12.

(예4)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al√Imperialism√under√the√Early√Stuarts*”,√A.√Fletcher√&√P.√Roberts,√eds.,√*Religion,√Culture,√and√Society√in√Early√Britain*√(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94),√p.√12.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홍길동,√「호레이쇼√얼저와√성공신화」,√『미국사연구』,√4집(1996),√12쪽.

홍길동,√『프랑스√근대사√연구』√(서울:√길동출판사,√1998),√12쪽.

(예2)木畑洋一,√『帝国のたそがれ:√冷戦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東京:√東京大学出版会,√1996年).

(예3)草光俊男,√「東アジアの構築:√表象空間の発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史学雑誌』,√3号(2004).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University Press, 1951), p. 9.

(예2) Michel Vovelle, *La Révolution contre l'Eglise - De la Raison à l'Etre Suprême* (Paris: Gallimard, 1988), pp. 12-13.

(예3) Michael Schneider, *Streit um Arbeitszeit. Geschichte des Kampfes um Arbeitszeitverkürzung in Deutschland* (Köln: Suhrkamp, 1984), p. 15.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 (연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18-3(1952), p. 287.

(예2) Serge Bianchi, “Les Curés Roug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249(1982), p. 364.

(예3) J. Kocka, “Zurück zur Erzählung? Plädoyer für Historische Argument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10(1984), pp. 395-408.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 홍길동, 『서양 문화사』 (서울: 길동출판사, 1998), 13쪽. - 홍길동, 같은 책, 25쪽.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 로 표시한다.

(예) 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 120.

- Ibid.

- Ibid., p. 130.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예1)홍길동, √『서양의√지적√전통』√(서울:√길동출판사,√1998),√13쪽.

→ 홍길동, √『서양의√지적√전통』,√15쪽.

(예2)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uage√of√Labor√from√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80),√p.√120.

→ 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p.√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E.√J.√Hobsbawm,√*강명세√역*,√『1780년√이후의√민족과√민족주의』√(서울:√길동출판사,√1994), 30쪽.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10) 참고 문헌은 자료, 저서(단행본), 논문 순으로 배열한다. 참고 문헌은 언어별(한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순)로 구분하여 배열한다. 참고 문헌의 표기는 각주의 저서, 논문의 표기 방법을 따르지만 서양사의 경우는 성, 이름, 저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

Brantlinger,√Patrick√ed.,√*Dark√Vanishings*√(Ithaca:√Cornell√University√Press,√2013).

Sewell,√William,√*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uage√of√Labor√from√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80).

제 2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칙

① 본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호모 미그란스』 편집·투고 규정

---

---

### 제 1 장 편집위원회

제 1 조 (편집위원회) 본 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구성, 소집, 의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 논문 투고 및 심사,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비롯한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엄정하게 심의 결정한다.
  - (1) 투고된 원고 1차 심사 및 심사 진행 여부 결정
  - (2) 연구논문과 비평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 (3)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의 확인과 게재 여부의 판정
  - (4) 여타 원고의 기획과 집필 의뢰
  - (5)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연 2회,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의 발의로 소집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2 장 투고

제 4 조 (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제 5 조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비평논문, 서평 및 기타로 한다.

제 6 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 원고에는 필자의 소속, 지위, e-mail 주소, 핵심 주제어(Key Words)[한글(영문)],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참고 문헌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초록에는 제목과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영문 초록의 경우는 영문 표기).

(2) 초록의 분량은 250단어(관사 포함)로 제한한다. 핵심 주제어는 5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국문과 영문이 표기되어야 한다.

(3) 논문 본문 말미에 필자의 소속, 지위, e-mail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정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호모 미그란스』 원고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반송할 수 있다.

제 7 조 (원고작성요령) 투고 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제 8 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 제 3 장 심사

제 9 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10 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
3.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
4.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
5.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 11 조 (심사 결과 및 판정)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A: 게재

A, B: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A, C: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C, C: 수정 후 재심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제 12 조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4조 (기타 원고 심사)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 **제 4장 학술지 발행**

제 15조 (발행자):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

제 16조 (발행횟수 및 일자): 연 2회,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발행한다.

#### **부칙**

- ①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호모 미그란스』 연구회 회칙

< 제정: 2009년 2월 16일 >

< 개정: 2015년 2월 9 일 >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이주사학회(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관련 분야의 연구 촉진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3.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4.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5. 해외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 ◆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회의 정회원은 이민인종 및 관련 학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준회원은 학생회원, 기관회원,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 ◆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으며 주요 사업을 결의한다.

제10조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 4 장 임 원

제12조 본 회의 회장은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 중 편집위원장을 선임하고 편집위원에게 학술지 발간을 위촉하며 그와 관련된 편집규정을 별도로 둔다.

#### 제15조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한다.
3.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 회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 6 장 연구윤리

제20조 본회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는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위원회라 칭한다.
2.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임원 중 약간 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3.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를 감독하고, 부정행위 적발시 규정에 따라서 조취를 취한다.
4. 총회에서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감독,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 ◆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